

I. 서론

I. 서론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사에 유례 없는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였다. 반세기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전형적인 농경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였고 이제는 본격적인 정보사회의 문턱에 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의 이면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서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갈등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유달리 심각한 것은 급속한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경사회에서 나서 자라 산업화를 주도한 기성세대와, 정보사회가 세상의 전부인 신세대 청소년들은 생활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성장의 과실만을 향유하며 절대빈곤을 모르고 성장하는 우리 역사의 첫번째 세대이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은 물질적 풍요와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하면서도 항상 갈등과 불만에 가득 찬 알 수 없는 존재이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갈등과 고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를 체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 한국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의식의 실태와 특성을 주기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관련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생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는 개별연구자나 기관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첫째, 특정 주제영역만을 다룬 연구가 대다수로서 청소년 생활·의식의 전체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표집에 있어서 제한된 연령 범위와 지역 단위(주로 서울 등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셋째, 청소년 생활·의식에 관한 전국 단위의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몇 차례 있어왔지만 대부분 1회성 연구에 머물러 시계열적인 변화양상의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기존의 조사연구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조사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 생활·의식의 전체상을 조감할 수 있는 종합적·포괄적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표집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조사 결과의 경험적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 생활·의식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적·기초적 문항 중심으로 조사표를 편성하고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방향에 따라 지난 2000년에 청소년 생활·의식 전반을 포괄하는 조사항목 체계와 조사표를 개발하였고¹, 같은 해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 제2차년도인 올해에는 전국의 남녀 중·고교생을 모집단으로 하여² 선정된 3,5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단위의 집단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사의 문항별 응답결과를 제1회 조사와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1993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청소년 생활·의식 조사”의 결과와도 비교하였다³.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생

¹ “부록: 조사항목 체계 및 조사표” 참조.

² 제1회 조사에서는 만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학생청소년(초등학생·대학생 포함), 취업(근로)청소년 및 무직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고교생으로 한정하였다.

³ “청소년 생활·의식 조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 생활지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사연구로서 조사대상과 표집방식이 이 조사(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와 완전히 일치하고, 이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조사문항만을

활영역을 기준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국가관” “교우관계 및 생활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종합논의”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II. 조사의 개요

1. 조사대상과 내용
2. 조사의 방법
3. 표본의 구성

II. 조사의 개요

1. 조사대상과 내용

가. 조사의 대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의식의 실태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청소년”)은 2004년 3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전국의 남녀 중·고교생⁴으로 한정하였다. 청소년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 조사에서는 연령보다는 신분(중·고교생)에 의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현행 법체계상으로 단일화된 청소년 연령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연령기준들이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수행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양자의 연령기준에 따를 경우 초등학교와 대학생까지 청소년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청소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은 중·고등학교의 학령기(만 13세~18세)에 해당하는 사회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

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학교는 모집단에 포함하였으나, 장애인 대상의 특수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인가받지 않은 비정규 학교는 제외하였다.

⁵ 특히 청소년 비행·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서는 대학생과 초등학교생은 논외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중·고교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경우 나이가 통상적인 교급별 학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18세의 대학생과 19세의 고교생)에는 나이보다는 신분(고교생인가 대학생인가의 여부)에

“청소년”의 개념정의를 중·고교생으로 한정했을 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근로청소년과 무직(또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진학률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⁶.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질병이나 가사상의 이유로 일시적인 학업중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엄밀한 의미의 “취업” 또는 “무직” 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 “청소년”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⁶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진학률 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진학률이 99.9%, 고등학교 진학률이 99.6%에 달한다. 물론 학교 진학 이후 자퇴하거나 중도탈락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본 조사의 표집규모(3,500명)을 고려할 때 이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일상생활·의식의 구조적인 파악을 위하여 “생활영역” “생활과정·관계” “의식·가치관”의 세가지 요소를 축으로 하여 조사영역을 범주화하였다.

먼저 생활영역은 개인(주체)에게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적 범주로서 “가족(가정)” “학교(교육)” “지역사회” “사회·국가”와 더불어 주체로서의 “개인·자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생활과정·관계는 각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내에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가는 행위양식 및 사회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생활과정”(고유활동·임의활동)과 “사회(인간)관계”의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치관·의식은 각 생활영역과 관련된 주관적 가치와 태도로서 “개인·자아관” “가족가치관” “교육관련 의식” “노동·직업관” “지역사회관” “사회·국가관”의 6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표 II-1> 조사영역의 범주

구분		생활과정·사회관계				가치관·의식	
		생활과정(행위)		사회(인간)관계			
관계범주	생활영역	고유활동	임의활동				
개인	자아	필수활동	휴식	-		개인·자아관	
가족	가족·가정	가사	여가활동	가족		가족가치관	
사회	현실	학교·교육		학습	교우관계	교사	교육관련 의식
		직장·노동				동료	노동·직업관
		지역 사회				이웃	지역사회관
회	추상	일반사회·국가	사회·국가관				

이와 같은 청소년 일상생활·의식의 범주화 작업을 통하여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 사회·국가관, 여가생활, 개인·자아관 등 총 6개의 조사영역과 21개의 하위영역 및 조사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가정생활	가족구성	부모님 생존·동거여부, 형제유무·순위, 조부모 동거여부, 친·외가 접촉빈도
	가족관계	부모와의 대화빈도, 부모의 자녀이해도, 부모와의 대립경험,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가족가치관	부모님 부양의사, 전통적 가족가치관(성별역할관, 결혼·이혼관, 위계적 가족관)에 대한 태도
	가정생활 만족도	전체만족도, 가정생활의 전망
학교생활	학업관련 활동	학교성적 평가, 좋은 성적의 요인
	학교내 인간관계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교사와의 대화빈도, 교사의 학생이해도, 교사와의 대립경험, 바람직한 교사상,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유무, 부모의 학교방문 경험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만족도, 학교생활의 전망
	진로·노동관	고졸 후 진로계획, 직장선택 요인, 일과 여가생활, 아르바이트 경
지역사회	지역사회 활동	동네행사 참여빈도
	지역내 인간관계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 역할모델로서의 이웃어른
	지역사회 선호도	지역사회 선호도, 이주의사, 지역사회의 전망
사회·국가관	사회·국가 인식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국가와 개인의 관계
	사회현실 만족도	사회현실 만족도, 사회변화 전망,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통일관	통일관, 북한 무력침공 가능성, 통일의 예상시기
여가생활	생활시간	수면시간, TV시청시간, 여가시간, 공부하는 시간
	여가활동	휴일을 보내는 방식 여가활동 동반자·장소, 수련 시설 이용경험, 한달평균 용돈, 아르바이트 경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의 장애요인
	교우관계	친한 친구 유무·성별, 동네친구와 학교친구, 친구의 자기이해도, 친구관계 만족도
	정보화	컴퓨터 유무·주사용자, 컴퓨터 사용빈도, 인터넷 사용빈도, 컴퓨터·인터넷의 유용성 평가
개인·자아관	고민·걱정거리	주된 고민·걱정거리, 고민·걱정거리 상담상대
	전체적인 행복감	전체적인 행복감

2. 조사의 방법

가. 표집 · 조사방식

조사의 표본은 다단층화집락추출법(multi-stratificated cluster sampling)의 방식으로 제1회 조사(2000년)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표집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집단 전체인구⁷의 약 0.01%에 해당하는 3,500명을 목표 표집인원으로 설정하고 자료선별 과정에서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3,700명을 실제 조사대상 인원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모집단을 ① 성(남·여), ② 교급(중학생·고교생), ③ 고등학교 계열(인문계·실업계) ④ 지역권역(서울·경인권·충부권·호남권·영남권), ⑤ 지역규모(서울·광역시·시군부)으로 층화한 뒤, 각 범주별 모집단의 실제인구에 비례하여 조사대상 인원을 할당하였다.

지역권역과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전국을 10개의 조사권역으로 구분하고(서울은 강남/강북으로 구분), 각 조사권역별로 지리적 위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 1~2 곳과 시군부 3~4 곳을 유의선정하여 21개의 조사지점을 확정하였다.

<표 II-3> 지역권역별 조사지점

	조사지점	
	광역시	시군부
서울	강남, 강북	
경인권	인천	안양, 이천, 하남
충부권	대전	당진, 충주, 강릉, 동해
호남권	광주	여수, 무주, 남원
영남권	부산·대구	밀양, 마산, 김천, 안동

⁷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3월 현재 전국의 중·고교생(정규학교 기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비인가 학교 제외)은 3,621,170명이다.

각 조사지점별로 교육부의 학교명부에 의거하여 1~5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50개의 조사대상 학교를 확정하고, 조사지점별로 배정된 표본규모를 고려하여 1~3개 학급을 최종 조사대상 학급으로 할당하였다.

조사대상 학교·학급을 결정한 뒤에는 협조공문을 통하여 학교의 허락을 얻고, 안내문을 통하여 설문조사 요령을 숙지한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학급 단위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자계식(自計式)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2004년 6월에서 7월까지 약 약 한달이 소요되었다.

설문조사 후 수거된 조사표는 모두 3,645매였으며, 오류검토 및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된 표본은 3,500매로서 유효표본 비율은 96.0%였다.

나.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배경변인(독립변인)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교차분석과 일원변량 분석의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통계표에서 유의도 수준은 $p < 0.05 = *$, $p < 0.01 = **$, $p < 0.001 = ***$ 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조사결과의 시계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각 문항별로 2000년 제1차 조사의 응답결과와 비교하였고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1993년과 1994년에 실시한 “청소년 생활·의식조사”의 결과도 비교대상으로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독립변인은 성(이하 “성별”로 표기)·교급·고등학교 계열(이하 “계열”로 표기)·지역규모·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이하 “계층”으로 표기)의 다섯가지이다. 성별·교급·계열·지역의 네 변인은 설문 문항의 응답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계층 변인은 “부친의 최종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평가” 문항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조작적으로 재구성

하였다⁸.

조사결과 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활용한 네 변인의 하위집단별 명칭과 사례수, 구성비(무응답·결락치는 제외함)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4> 통계분석의 독립변인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자	1,722	49.2
	여자	1,778	50.8
교급	중학생	1,749	50.0
	고교생	1,751	50.0
계열	인문고	1,200	68.5
	실업고	551	31.5
지역	서울	714	20.4
	광역시	986	28.2
	시군부	1,800	51.4
계층	하	568	17.5
	중	1,612	49.6
	상	1,068	32.9

⁸ 엄밀한 의미에서 “계층” 변인의 구성을 위해서는 “학력”과 “소득”, “직업”의 세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기 가정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 문항으로 대체하였고, 직업은 우리나라의 직업위세(prestige)를 서열화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 활용된 “계층” 변인은 사회학적 의미의 사회계층이라기 보다는 사회통념을 반영한 연구진의 조작적 정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계층 변인의 구성방식은 서열적으로 측정한 “부친의 최종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평가”(모두 5점 척도) 문항 응답결과와 표준화 점수를 산출한 뒤, 각각 0점(표준화 점수가 음수인 경우)과 1점(양수인 경우)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2점은 상층, 1점은 중간층, 0점은 하층으로 명명하였다.

3. 표본의 구성

최종 분석의 대상이 표본(3,500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49.2%, 여자가 50.8%로서 여자가 다소 많았다.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있는 사례가 93.7%로서 두 분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안 계신 결손가정은 0.7%에 머물렀다. 지역규모 별로는 시군부가 51.4%로서 절반을 점하였고, 광역시가 28.2%, 서울이 20.4%로서 가장 적었다. 실제 모집단인구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자, 지역 별로는 시군부가 과대표집되었다.

학교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교생이 같은 비율로 표집되었고(50.0%), 고교생 중에서는 인문계가 68.5%, 실업계가 31.5%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먼저 부친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8.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27.3%), 중학교 졸업 이하(10.8%), 대학원 졸업 이상(6.2%), 전문대학 졸업(2.9%)의 순이었다. 모친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58.2%로서 다수였고, 이어서 대학교 졸업(18.5%), 중학교 졸업 이하(14.0%), 전문대학 졸업(2.6%), 대학원 졸업 이상(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수준이 59.9%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간보다 못 사는 편(19.9%), 중간보다 잘 사는 편(14.8%)의 순이었고, 매우 못산다거나 잘 산다고 응답한 사례는 극소수였다(각각 4.0%, 1.2%).

분석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제1회 조사(2000년)의 표본과 비교하면, 표집의 기준이 되었던 성·교급·지역규모별 하위집단의 비율은 이번 조사와 거의 다름이 없었다⁹. 고등학교 계열별 구성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표집과정에서 통제하지 않았던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변인에서는 부친과 모친의 학력수준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⁹ 이번 조사에서는 2000년의 제1회 조사뿐만 아니라 1993년, 1994년에 실시한 “청소년 생활·의식조사”의 조사결과도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조사에서도 표본의 성·교급·지역별 구성은 이번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 5> 표본의 구성

		2004년		2000년
		사례수(명)	비율(%)	비율(%)
전체		3,500	100.0	100.0
성별	남자	1,722	49.2	50.7
	여자	1,778	50.8	49.3
부모님 생존여부	두분 모두 계신다	3,279	93.7	93.0
	아버님만 계신다	72	2.1	1.5
	어머님만 계신다	118	3.4	3.9
	두분 모두 안계신다	18	0.5	0.8
	무응답·결측값	13	0.4	0.8
지역규모	서울	714	20.4	21.5
	광역시	986	28.2	31.7
	시군부	1,800	51.4	46.8
교급	중학생	1,749	50.0	50.8
	고교생	1,751	50.0	49.2
고교계열	인문계 고교생	1,200	68.5	60.0
	실업계 고교생	551	31.5	40.0
부친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78	10.8	18.8
	고등학교 졸업	1,696	48.5	49.4
	전문대학 졸업	100	2.9	3.3
	대학교 졸업	957	27.3	20.8
	대학원 졸업 이상	217	6.2	5.3
	무응답·결측치	152	4.3	2.6
모친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4.0	27.1
	고등학교 졸업	2,036	58.2	55.0
	전문대학 졸업	90	2.6	2.2
	대학교 졸업	649	18.5	11.7
	대학원 졸업 이상	89	2.5	1.8
	무응답·결측치	147	4.2	2.2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	매우 못사는 편	141	4.0	2.3
	중간보다 못 사는 편	697	19.9	20.5
	중간수준	2,097	59.9	66.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17	14.8	9.7
	매우 잘 사는 편	43	1.2	0.7
	무응답·결측치	5	0.1	0.8

Ⅲ. 조사의 결과

1. 가정생활
2. 학교생활
3. 사회·국가관
4. 교우관계·생활일반

III. 조사의 결과

1. 가정생활

가. 가정배경

조부모 동거여부

Q 현재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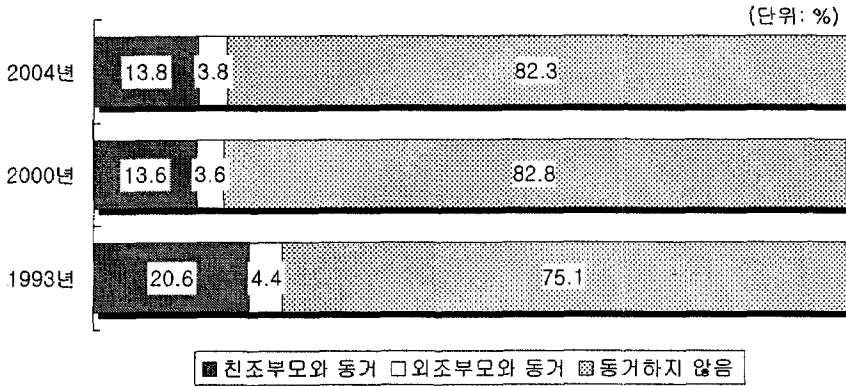
1. 친할아버지 · 할머니(또는 두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2. 외할아버지 · 할머니(또는 두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3. 할아버지 ·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3세대 가정의 분포와 그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자신의 가정에서 친가족 또는 외가족 조부모님(또는 두 분 중의 한 분)을 모시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친조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13.8%, 외조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3.8%로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세대 가정은 17.6%에 머물렀다.

같은 질문에 대한 2000년,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에는 조부모 동거가정의 비율이 17.2%로서 이번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10여년 전인 1993년에는 친조부 동거가정의 비율이 20.6%, 외조부모를 모신 가정이 4.4%로서 전체 가정의 약 1/4이 3세대 가정이었다. 10여년 남짓한 기간 동안 3세대 가정이 약 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핵가족화현상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친조부모 동거가정이 크게 감소한 것과는 달리 외조부모 동거가정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어서 전체 3세대 가정 중에서 모계존속(외조부모)과 동거하는 가정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II-1] 조부모 동거 여부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비율을 하위변인별로 비교해 보면(2004년), 지역과 계층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친조부모 동거가정의 경우, 지역별로는 시군부가 16.8%로서, 10% 남짓한 서울·광역시보다 월등하게 높고, 계층별로는 중·하층이 14% 수준으로서 상층(11.9%)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III-1> 친조부모 동거가구 비율

(단위: %)

		2004 년	2000 년	1993 년
지역 ¹⁾	서울	10.3	9.1	17.5
	직할시	11.0	13.7	16.4
	시군부	16.8	15.6	24.0
계층 ²⁾	하	14.0	15.0	22.0
	중	14.8	13.6	18.9
	상	11.9	12.4	23.5

통계(2004 년 원자료) : 1) $\chi^2=32.27^{***}$, 2) $\chi^2=5.34$

1993년의 경우에도 지역별로는 시군부의 동거가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지만, 계층별로는 상층의 조부

모 동거가정 비율의 1993년의 23.5%에서 12.4%(2000년)-> 11.9%(2004년)로 크게 떨어져 그 감소폭이 중·하층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녀와 분거하는 노년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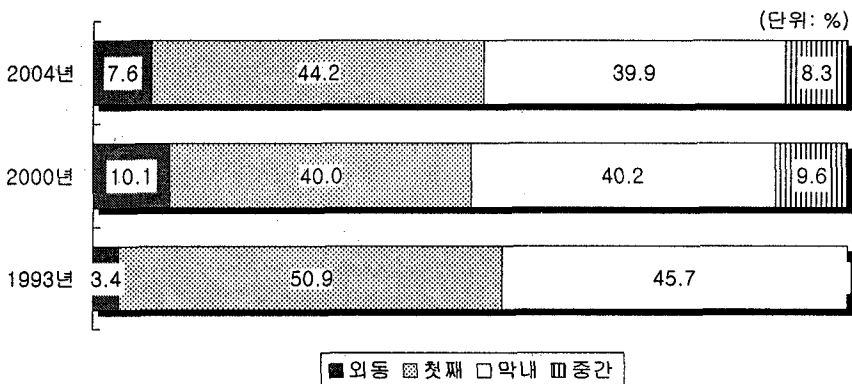
형제·자매 유무와 순위

Q 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자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들(또는 외동딸)”이다
2.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말이(첫째)”이다
3.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막내”이다
4.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중간”이다

형제(자매)가 있는지, 있다면 자신의 형제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은 7.6%에 머물렀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장남(녀)”이 44.2%, “막내”가 39.9%였으며 중간이 8.3%로서 가장 적었다. “중간”의 비율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것은 최근에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림 III-2] 형제·자매 유무와 순위



주: 1993년에는 “막내”와 “중간”을 통합하여 조사하였음.

이전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외동”의 비율이 1993년(3.4%)보다 배 이상 증가한 반면, 2000년(10.1%)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형제(자매) 중 “장남(녀)”의 구성비는 1993년의 50.9%에서 44.2%로 크게 감소하였다.

형제가 없는 “외동”의 구성비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9.2%로서 여자(6.1%)보다 많았는데, 첫자녀로 남아를 낳으면 쉽게 자녀생산을 중단하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그 요인으로 짐작된다. 지역별로는 세 하위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계층별로는 하층이 6.6%로서 7%를 상회하는 중·상층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1993년과 비교하면, 지역·계층의 두 변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역별로는 1993년에는 “외동”의 구성비가 서울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계층별로는 1993년에는 하층의 “외동” 구성비가 1.4%로서 4%를 상회하는 중·상층과 뚜렷하게 대비되었지만, 2004년에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 대도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던 소자녀 가구가 이제는 지역간·계층간의 차이 없이 전체 가구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 2> “외동” 자녀 구성비율

		(단위: %)		
		2004 년	2000 년	1993 년
성별	남자	9.2	13.3	4.0
	여자	6.1	6.8	2.8
지역	서울	7.6	11.6	6.1
	광역시	7.2	11.4	3.8
	시군부	7.9	8.4	2.0
계층	하	6.6	10.2	1.4
	중	7.5	10.1	4.2
	상	7.1	9.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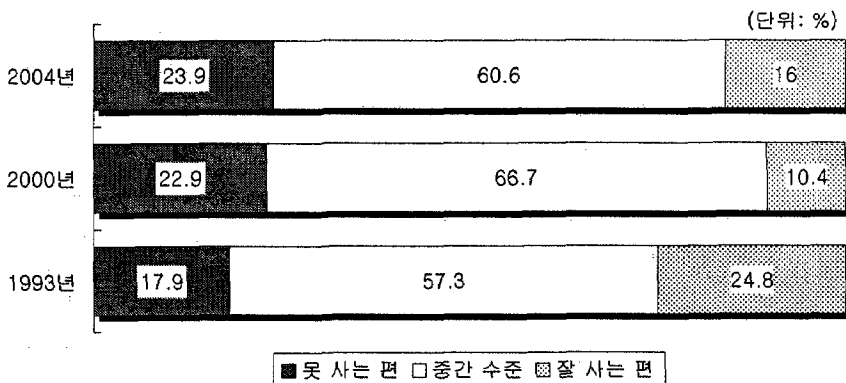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

Q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청소년들에게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6할이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다수를 차지하였고(60.0%), 이어서 “중간보다 못 사는 편”(19.9%), “중간보다 잘 사는 편”(14.8%)의 순이었으며 “매우 못 사는 편” 또는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였다(각각 4.0%, 1.2%). 전체적으로 자기 가정이 경제적으로 하층(“매우 못 사는 편”+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23.9%로서 상층(“매우 잘 사는 편”+ “중간보다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률(16.0%)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III-3]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1993년,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못 사는 편이라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17.9%→ 22.9 %→ 23.9%),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감소(24.8%→ 10.4%→ 16.0%)하였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후반 IMF사태를 겪은 이후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은 과거에 비해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교급·계열·지역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 고교생보다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실업계 고교생 중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3.1%에 달하여 인문계 고교생 응답률(20.3%)의 두 배를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서울시 23.5%로서 다른 두 지역을 크게 앞섰으며, 못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광역시가 가장 많았다.

<표 III- 3>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

(단위: %)

		2004		1993	
		못사는 편	잘사는 편	못사는 편	잘사는 편
성별 ¹⁾	남자	23.3	16.8	20.2	22.9
	여자	24.7	15.3	15.6	26.8
교급 ²⁾	중학생	20.4	18.4	15.0	27.9
	고교생	27.5	13.6	20.8	21.7
계열 ³⁾	인문고	20.3	16.2	18.4	27.1
	실업고	43.1	8.2	25.0	12.3
지역 ⁴⁾	서울	21.4	23.5	16.9	28.2
	광역시	26.5	13.6	18.3	25.0
	시군부	23.6	14.4	18.1	23.1

통계(2004년 원자료): 1) $\chi^2=5.42$, 2) $\chi^2=31.35^{***}$, 3) $\chi^2=130.22^{***}$, 4) $\chi^2=55.74^{***}$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1993년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자가 크게 증가하여 (15.6%→ 24.7%)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계열별로는 못 사는 편이라는 응답률의 증가폭이 실업계(25.0%→ 43.1%)가 인문계(18.4%→ 20.3%)를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청소년들의 실업계 기피현상이 점차 일반화하면서 실업계 고교생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응답경향은 1993년에도 서울 청소년들이 광역시·시군부 청소년에 비해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을 높게 평가하였고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이번 조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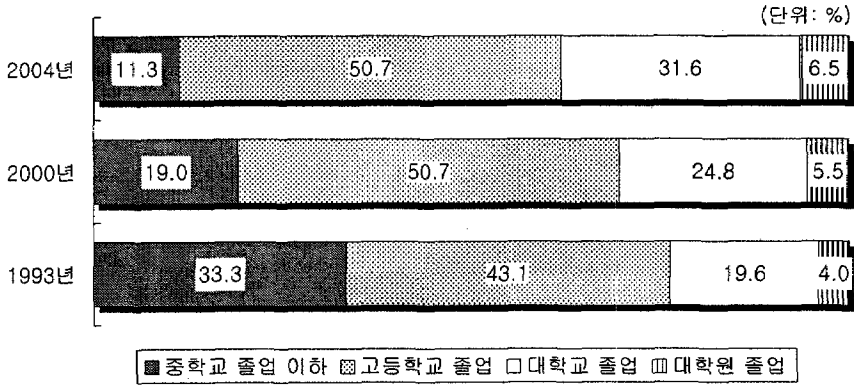
부모의 최종학력

Q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예: “고등학교 중퇴”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부모님의 최종학력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먼저 부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서 가장 다수였고, 대학교 졸업이 28.6%로서 전문대, 대학원 졸업을 포함한 대졸 이상이 38.1%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는 1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다(11.3%).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률은 1993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크게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33.3%→ 19.0%→ 11.3%), 대학교 졸업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6%→ 30.3%→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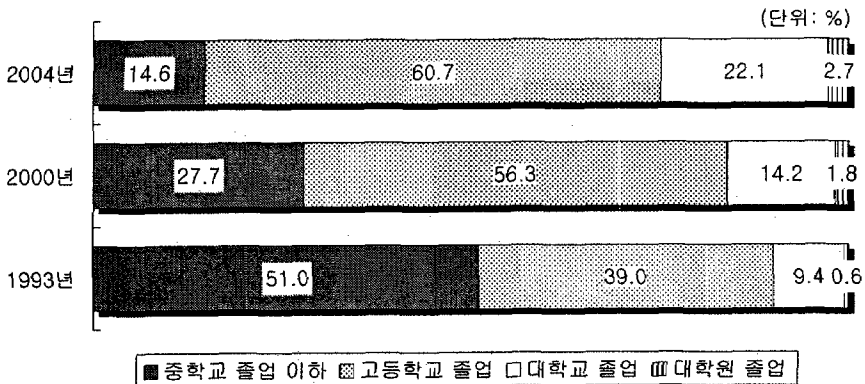
[그림 III- 4] 부친의 최종학력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모친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할로서 가장 다수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24.8%로서 중학교 졸업 이하(14.6%)보다 1할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1993년의 조사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과반수를 상회하여 가장 다수였고(51.0%),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0%에 머물렀음을 감안하면 그 변화의 폭이 매우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여성-부모세대의 급격한 교육수준 향상은 청소년 생활·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I- 5] 모친의 최종학력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특히 최근에 학부모 연대활동, 교육참여 운동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한편, 자녀교육 목적의 이민, 고액 과외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학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향상, 특히 고학력 전업주부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택의 형태

Q 살고 있는 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상가주택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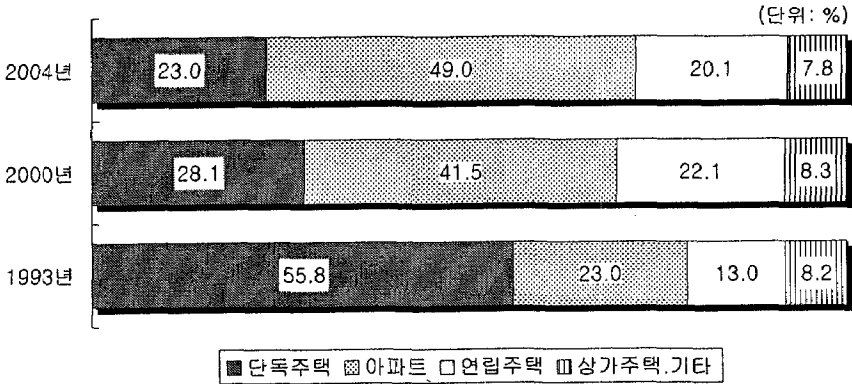
주택은 단순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놀이·여가·교우관계 등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의 주거형태와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의 절반 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여 다수를 차지하였고(49.0%),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이 각각 2할 남짓한 수준이었으며(23.0%, 20.1%),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4.2%, 기타 3.6%).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같은 공동주택에 범주에 넣으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69.1%로서 단독주택에 사는 청소년의 3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1993년·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단독주택에 사는 청소년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55.8%→28.1%→23.0%), 아파트 거주 청소년은 1993년의 23.0%에서 2004년의 49.0%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 청소년의 과반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했음에 비해 이제는 아파트에 사는 청소년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주거환경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생활·의식 변화양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I-6] 주택의 형태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1993년 조사에서는 “기타”항목이 없었음)

주택형태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특히 지역·계층의 두 변인에서 두드러졌다¹⁰. 지역별로는 시군부에서 단독주택에 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8.4%로서 서울·광역시보다 월등하게 많은 한편(15.9%, 18.3%),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도 48.7%에 달하여 다른 두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다¹¹. 계층별로는 아파트 거주 청소년의 비율이 상층 청소년이 68.7%에 달하여 하층(31.6%)의 두 배를 상회하였다.

1993년·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 청소년 비율의 증가폭이 지역별로는 시군부(20.1%→30.1%→48.7%), 계층별로는 하층(9.3%

¹⁰ 이밖에도 아파트 거주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교급별로는 중학교보다는 고교생,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보다는 인문계가 더 높은 수준이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¹¹ 서울은 아파트 거주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주택의 다른 형태인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인원이 31.5%로서 시군부의 두 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형태에 있어서 대도시와 다른 지역(소도시·농촌)을 구분짓는 지표가 과거의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6.7%-> 31.6%)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II- 4> 주택의 형태

(단위: %)

		2004 년		2000 년		1993 년	
		단독	아파트	단독	아파트	단독	아파트
지역 ¹⁾	서울	15.9	43.0	25.0	37.4	45.5	23.7
	광역시	18.3	53.9	27.2	46.9	53.7	28.4
	시군부	28.4	48.7	30.1	39.7	61.8	20.1
계층 ²⁾	하	29.1	31.6	32.7	26.7	66.9	9.3
	중	27.2	44.1	32.6	36.4	52.7	25.4
	상	12.9	68.7	16.7	63.6	47.6	36.2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125.76^{***}$, 2) $\chi^2=257.06^{***}$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나. 가족관계

부모와의 대화빈도

Q 평소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평소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 그 빈도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부친과는 “가끔 대화한다”가 39.9%로서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자주 대화한다”(34.8%),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17.2%)의 순이었으

며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할에 가까웠다(9.0%). 모친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66.4%)이 “자주 대화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또는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부친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친과 대화한다(자주 또는 가끔)는 응답률은 71.6%에서 73.8%로, 모친과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9.7%에서 91.0%로 각각 증가하였다. 증가의 폭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부모-자녀간의 접촉시간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표 III- 5> 부모와의 대화빈도

(단위: %)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2004 년	부친	9.0	17.2	39.0	34.8
	모친	2.3	6.7	24.4	66.6
2000 년	부친	9.4	19.0	39.2	32.4
	모친	3.0	7.4	23.3	66.4

부모와 대화를 나눈다(자주 또는 가끔)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04년 조사결과와 경우,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부친·모친 모두 성·교급·계열·계층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¹² 1997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한국이 56.3%로서 일본(78.5%)보다 적었다(정희옥 외 2인: 1997). 또한 베ネッセ教育研究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원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서울)은 74.8%에 달하여 일본(동경: 46.7%), 미국(뉴욕: 59.3%)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베ネッセ教育研究所, 1994).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부친의 경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대화빈도가 다소 많은 편이었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월등하게 많은 편이었다. 계층별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상층이 80%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간층(74.5%), 하층(60.9%)의 순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폭이 성별로는 여자(70.9%→74.3%), 계열별로는 인문계(66.3%→73.4%)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모친과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고, 계층별로는 부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층(95.1%)→중간층(91.1%)→하층(83.8%)의 순이었다. 2000년과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자, 계열별로는 인문계의 증가폭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6> 부모와의 대화빈도

(단위: %)

		대화하고 있다(자주 또는 가끔)			
		부친		모친	
		2004	2000	2004	2000년
성별	남자	73.3	72.3	89.0	89.2
	여자	74.3	70.9	93.0	90.2
교급	중학생	77.9	78.2	91.3	91.2
	고교생	69.7	64.6	90.7	88.1
계열	인문고	73.4	66.3	92.6	89.8
	실업고	61.4	61.8	86.4	85.4
계층	하	60.9	58.8	83.8	80.1
	중	74.5	72.5	91.1	91.7
	상	80.9	78.6	95.6	93.3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양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고교생보다 일관되게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계층별 차이는 다른 변인에 비해 매우 현격하게 나타나, 상층일수록 부모-자녀간의 대화빈도가 잦고 이에 따라 부모와 더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이해도

Q 부모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약간 이해하신다
4. 많이 이해하신다

대화빈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친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이해하고 있다”가 39.7%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25.4%)와 “많이 이해하고 있다”(24.5%)가 유사한 수준이었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가 1할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9.6%에서 24.5%로 증가하는 등 이해하고 있다(“약간” 또는 “많이”)는 응답률이 46.8%에서 64.2%로 크게 증가하였다.

모친의 경우에도 “약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3.6%로서 가장 다수였지만, 부친과는 달리 “많이 이해하고 있다”의 응답률이 33.3%로서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17.7%)의 두 배에 달하였다. 또한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에 불과하여 부친의 1/2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부친보다는 모친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

다(“약간” 또는 “많이”)고 응답한 청소년이 증가추세(61.5%→ 76.9%)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부모의 자녀이해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7> 부모의 자녀이해도

(단위: %)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약간 이해하신다	많이 이해하신다
2004 년	부친	10.3	25.4	39.7	24.5
	모친	5.4	17.7	43.6	33.3
2000 년	부친	13.7	39.5	37.2	9.6
	모친	7.8	30.8	44.6	16.9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약간” 또는 “많이”)고 응답한 비율을 하위집단별로 정리하면 <표 III-8>과 같다. 부친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별·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교급별·계층별 차이가 매우 현격하였다. 중학생의 67.7%가 부친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고교생(60.8%)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부친의 자녀이해 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친의 자녀이해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계층 변인에서만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중·상층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각각 78.2%, 79.7%에 달하는 반면, 하층은 67.6%에 머물렀다.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는 계층뿐만 아니라 교급·지역 변인의 하위집단간 차이가 현저하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모두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III- 8> 부모의 자기 이해도

(단위: %)

		이해하고 있다(약간 또는 많이)			
		부친		모친	
		2004 년	2000 년	2004 년	2000 년
성별	남자	64.6	48.6	75.7	61.4
	여자	63.9	45.0	78.1	61.6
교급	중학생	67.6	55.1	76.0	66.0
	고교생	60.8	38.1	77.8	56.7
계열	인문고	63.8	40.5	79.2	57.3
	실업고	54.2	34.2	74.6	55.8
지역	서울	66.4	48.2	77.9	65.1
	광역시	64.6	45.8	76.5	58.8
	시군부	63.2	46.9	76.7	61.6
계층	하	50.2	36.3	67.6	56.2
	중	65.0	46.7	78.2	62.6
	상	71.0	54.3	79.7	63.5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부모와의 대립경험

Q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반항을 하거나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있다
2. 없다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일상생활 과정에서 부모님과 의견대립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부친과 대립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7.9%로서 모친과 대립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48.9%)보다 1할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앞서 두 문항의 응답경향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대화빈

도나 자녀이해도의 측면에서 부친보다는 모친과 더 가깝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경험은 모친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모친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되며 부친과의 관계가 보다 원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친과의 대립경험 응답률은 48.9%에서 37.9%로 크게 감소하였고, 모친과의 대립경험 응답률도 소폭으로 감소(49.9%→45.9%)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9> 부모와의 대립경험

		(단위: %)	
		있다	없다
2004 년	부친	37.9	62.1
	모친	48.9	51.1
2000 년	부친	45.9	54.1
	모친	49.9	50.1

부모와의 대립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표 III-10>과 같다. 먼저 부친과의 대립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는 교급·계층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44.3%가 대립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31.4%)보다 1할 이상 많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의 대립경험 응답률(43.8%)이 중·상층(36.1%, 38.5%)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2000년과 비교하면 여자의 대립경험 응답률이 남자보다 높아진 점이 특징적이고, 교급·계층별 응답률의 차이와 순위는 변함이 없었다.

모친과의 대립경험에서는 성·교급·계층의 세 변인에서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모친과 대립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많았으며, 계층별로는 하층의 대립경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친과의 대립경험 응답률과 비교할 때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학교계열별의 차이가 크게 감소한 점이 두드러진다. 즉, 인문계 고교생의 대립경험 응답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58.9%

-> 51.3%), 실업계 고교생은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었다(50.1%-> 49.9%). 계층별로는 2000년에는 하층의 대립경험 응답률이 중간층과 더불어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0> 부모와의 대립경험

(단위: %)

		있다(지난 1 년간)			
		아버지		어머니	
		2004 년	2000 년	2004 년	2000 년
성별	남자	36.2	47.5	46.3	52.4
	여자	39.4	44.4	51.5	47.4
교급	중학생	31.4	39.1	47.0	44.6
	고교생	44.3	53.2	50.9	55.4
계열	인문고	42.9	55.6	51.3	58.9
	실업고	47.6	49.2	49.9	50.1
지역	서울	40.3	52.6	51.6	53.8
	광역시	38.1	45.4	49.5	51.2
	시군부	36.8	43.2	47.5	47.2
계층	하	43.8	54.3	53.4	48.5
	중	36.1	43.7	45.9	48.2
	상	38.5	45.0	51.3	54.3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Q 앞으로 자신의 아버님(여자인 경우는 어머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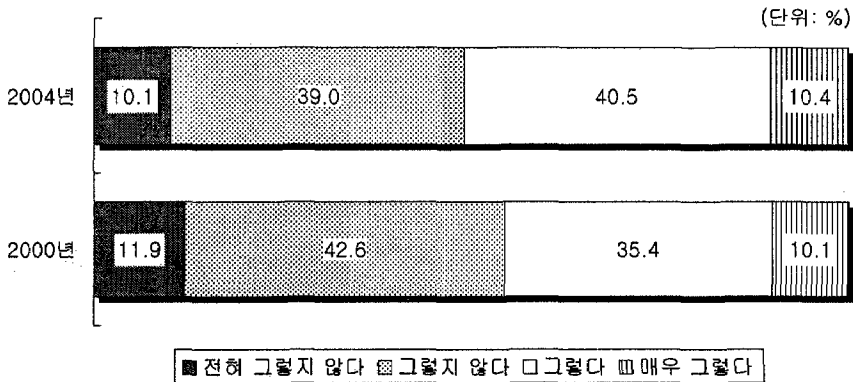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성인의 지위와 역할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를 자신

의 역할모델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자신의 (동성)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의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거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어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할 안팎으로 유사했으며(각각 40.5%, 39.0%), 강한 긍정과 반대(“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의사를 나타낸 청소년도 동일하게 1할 남짓한 수준이었다(각각 10.4%, 10.1%). 전체적으로 긍정응답률이 50.9%로서 부정응답률을 소폭으로 상회하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54.5%에서 49.1%로 감소하여 부모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7]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같은 질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표 III-11>과 같다.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52.2%로서 남자(49.4%)보다 다소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급·계열별 차이는 매우 현격하였는데,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고교생보다 긍정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중·상층의 긍정응답률이 모두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각각 50.7%, 61.1%), 하층은 3할 수준에 머물러(35.3%)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인문계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39.5%

-> 50.9%)하여 실업계 고교생과의 격차가 더 커진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 11>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단위: %)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	
		2004	2000
성별	남자	49.4	44.2
	여자	52.2	46.8
교급	중학생	54.2	51.9
	고교생	47.4	38.8
계열	인문고	50.9	39.5
	실업고	39.9	37.6
계층	하	35.3	28.5
	중	50.7	48.0
	상	61.1	52.8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친·외가 접촉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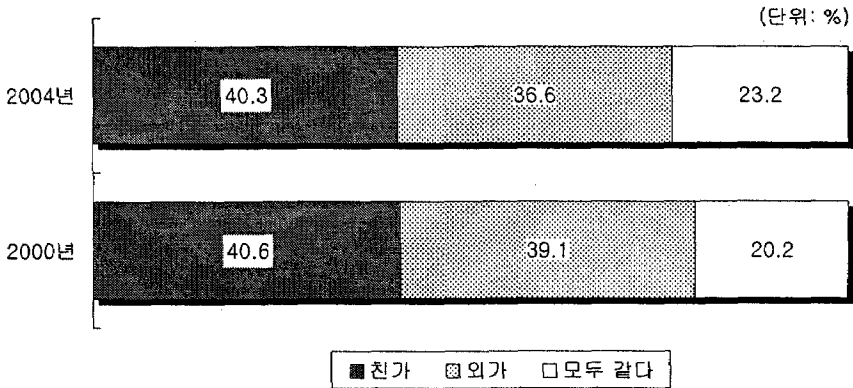
Q 일상생활에서 친가(아버지쪽 친척)와 외가(어머니쪽 친척) 중에서 어느쪽과 더 자주 만나십니까?

1. 친가
2. 외가
3. 모두 같다

일상생활에서 친가·외가 중 어느쪽과 더 많은 접촉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친가”가 40.3%로서 다수였지만 “외가”와 더 자주 접한다는 응답률도 36.6%에 달하였다. 양쪽 모두 같다는 응답(23.2%)을 포함하면 전체 가정의 과반수 이상이 부계에 편중되었던 전통적인 친척관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외가”의 응답률이 다소 감소하고 “모두 같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소폭으로 증가하였

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림 III- 8] 자주 접촉하는 친척



친·외가 접촉빈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지역·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친가의 응답률(42.5%)이 외가(33.6%)보다 월등하게 높은 반면, 여자는 외가의 응답률(39.4%)이 친가(38.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친가의 응답률은 시군부가, 외가의 응답률은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외가와 외가의 접촉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외가와 더 자주 만난다는 청소년이 40.6%에 달하여 친가의 응답률(34.5%)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계층별로는 친가의 응답률이 하층이 가장 높고(45.6%), 다음으로 중간층(42.2%), 상층(36.2%)의 순이었다. 상층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외가의 접촉빈도가 모두 같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8.1%로서 중·하층(각각 22.7%, 15.6%)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외가와 더 자주 만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소폭으로 감소한 반면, “모두 같다”의 응답률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부계 친척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기 보다는 과거와는 달리 외가쪽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부계·모계 친척간의 구분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표 III- 12> 자주 접촉하는 친척

(단위: %)

		2004		2000	
		친가	외가	친가	외가
성별 ¹⁾	남자	42.5	33.6	42.9	37.8
	여자	38.2	39.4	38.2	40.5
지역 ²⁾	서울	34.5	40.6	33.8	43.7
	광역시	39.8	37.9	40.5	37.7
	시군부	42.9	34.2	43.8	38.1
계층 ³⁾	하	45.6	38.7	42.9	40.0
	중	42.2	35.1	42.5	37.4
	상	36.2	35.7	35.4	41.0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13.10^{**}$, 2) $\chi^2=16.58^{**}$, 3) $\chi^2=36.22^{***}$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다. 가족의식

부모님 부양의사

Q 나이드신 부모님을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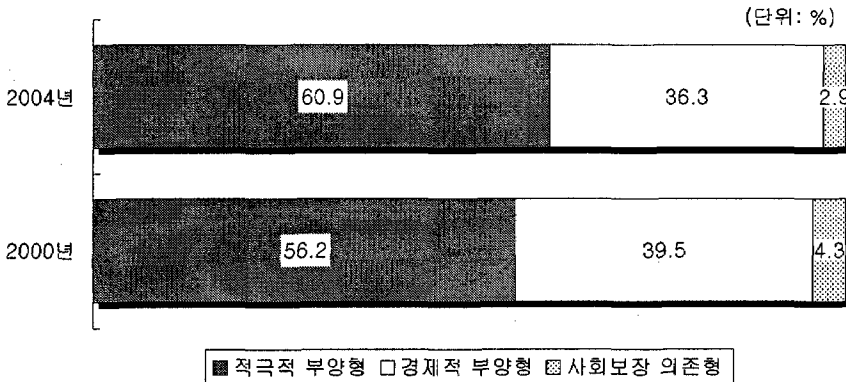
1.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
2.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3. 되도록이면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4. 전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연로한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를 상이한 유형의 네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의 응답률이 60.9%로서 다수를 점하였고,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6.3%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부모 자신의 힘이

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에 머물렀다(각각 2.2%, 0.7%).

응답항목을 각각 “적극적 부양형”(1), “경제적 부양형”(2), “사회보장 의존형”(3, 4)으로 명명하고,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 9] 부모님 부양방식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적극적 부양형은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56.2%→ 60.9%), 사회보장 의존형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4.3%→ 2.9%). 핵가족화·도시화가 진전되는 사회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부모님 부양의사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¹³ 국제비교 조사를 통해서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님 부양의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2003년 일본 내각부의 세계 5개국 비교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부모님을 부양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39.4%로서 일본(25.2%), 독일(21.9%), 스웨덴(13.0%)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미국(73.1%)보다는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內閣府: 2004, 15). 한편 1994년에 시행된 조사에서는 앞으로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한국(서울)은 45.9%에 달하여 비교대상 5개 도시 중 가장 많았다(“보론” <표 V-6>). 전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 부양의사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라마다 다르게 해

부모님 부양의사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표 III-13>과 같다. 이번 조사(2004년)에서는 교급·지역·계층의 세 변인에 걸쳐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적극적 부양형의 응답률이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68.4%에 달하여 고교생(53.4%)을 크게 앞섰으며, 지역별로는 시군부(63.4%)가 서울·광역시(각각 60.7%, 56.4%)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중간층의 적극적 부양형 응답률(63.2%)이 상층·하층(각각 57.3%, 5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 부양형은 증가하고 사회보장 의존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부양의사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의식이 짧은 기간에 쉽게 변화하지는 않음을 감안하면, 2000년 조사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응답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⁴. 하위집단별로는 적극적 부양형의 응답률이 고교생보다는 중학생이 높고, 서울이 가장 낮은 수준인 점은 이번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계층별 적극적 부양형의 응답률도 2000년에도 중간층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와 같은 응답경향이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석될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질문방식 때문에 비롯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부모님 부양이 곧 동거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해당 항목의 응답률이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구체적인 부양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후자의 조사결과는 실제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양의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부양의사를 비교하는 데 보다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¹⁴ 즉, 당시는 IMF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업·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청소년들의 가족의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응답결과가 2000년 보다 긍정적인 형태(대화빈도·부모의 자기이해도 증가, 부모와의 대립경험 감소 등)로 변화한 것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III- 13> 부모님 부양방식

(단위: %)

		2004 년		2000 년	
		적극적 부양형	사회보장 의존형	적극적 부양형	사회보장 의존형
성별 ¹⁾	남자	62.6	2.5	58.0	4.4
	여자	59.2	3.2	54.4	4.3
교급 ²⁾	중학생	68.4	2.0	60.0	4.2
	고교생	53.4	3.7	52.2	4.4
지역 ³⁾	서울	60.7	2.7	49.4	5.5
	광역시	56.4	2.7	58.9	5.2
	시군부	63.4	2.9	57.5	3.1
계층 ⁴⁾	하	58.6	3.0	54.0	3.1
	중	63.2	2.1	57.8	3.8
	상	57.3	3.4	54.3	6.2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6.37$, 2) $\chi^2=83.49^{**}$, 3) $\chi^2=14.45^*$, 4) $\chi^2=17.71^{**}$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자신의 노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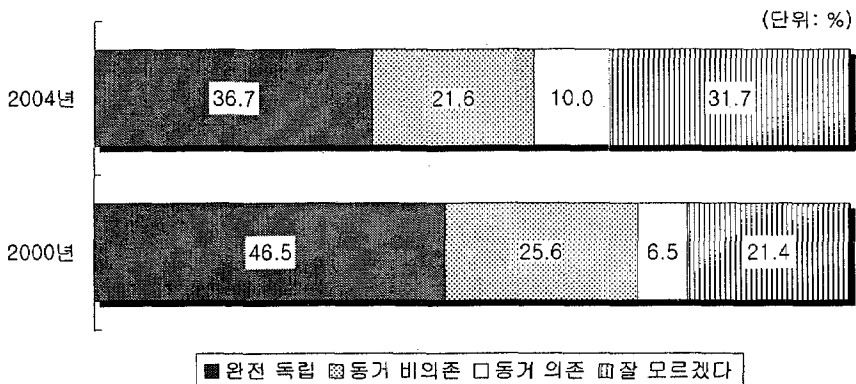
Q 앞으로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

1. 자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가겠다
2. 자식과 함께 살되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
3. 자식과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겠다
4. 잘 모르겠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이 노후에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자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가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6.7%로서 가장 많았고, 동거하되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21.6%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동거하고 경제적 도움도 받겠다는 응답률은 1할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반응을 나타낸 청소년도 3할에 달하였다(31.7%).

이상의 응답항목을 각각 “완전독립형”(1), “동거 비의존형”(2), “동거 의존형”(3)으로 명명하고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1993년과 비교하여 이번 조사에서 “완전독립형”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46.5%→36.7%)한 점이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이밖에 “동거의존형”의 증가현상도 주목되는 점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자녀와 분거하는 노년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의 3할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놓고 전통적인 대가족 또는 3세대 가구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III-10] 자신의 노후 계획



은퇴 후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계열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동거의존형, 여자는 완전독립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계열별로는 고교생의 완전독립형 응답률이 47.6%에 달하여 25.7%에 불과한 중학생과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고교생보다 완전독립형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밖에 계층별로는 상층의 독립형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

니었다.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완전독립형의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 동거의존형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별 하위집단의 응답률 분포와 순위는 이번 조사와 거의 동일하였다. 2000년의 경우에도 계층별로 상층 청소년의 완전독립형 응답률이 중·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 14> 자신의 노후계획

(단위: %)

		2004 년		2000 년	
		완전독립	동거의존	완전독립	동거의존
성별 ¹⁾	남자	32.1	12.5	39.2	9.6
	여자	41.1	7.6	53.8	3.5
교급 ²⁾	중학생	25.7	13.2	37.4	9.8
	고교생	47.6	6.8	55.7	3.2
계열 ³⁾	인문고	50.4	6.2	59.4	2.7
	실업고	41.6	8.3	49.2	4.2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49.89^{***}$, 2) $\chi^2=201.36^{***}$, 3) $\chi^2=12.73^{**}$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성 귀속의식

Q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으로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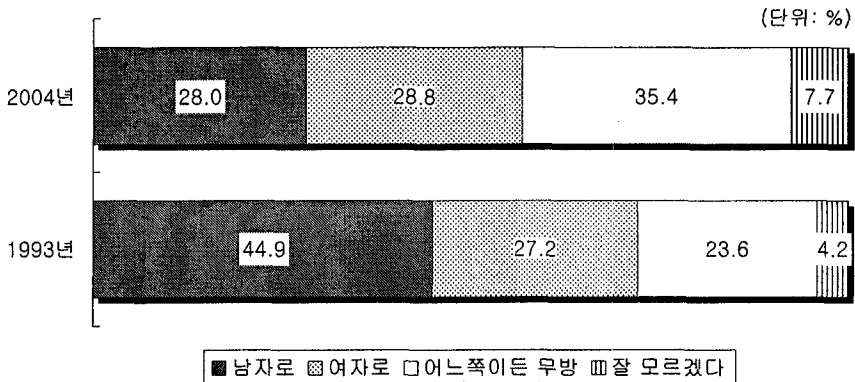
1.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2.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3.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
4. 잘 모르겠다

자신의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귀속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여자 중 어느 쪽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5.4%로서

가장 많았고, “남자”와 “여자”의 응답비율은 모두 28%로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각각 28.0%, 28.8%). 1993년 조사에서는 “남자”의 응답률이 44.9%에 달하였고, “어느쪽이든 상관없다”가 23.6%로서 “여자”를 선택한 비율(27.2%)보다 적었음을 감안하면 10여년간 청소년들의 성 귀속의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림 III- 11] 성 귀속의식: “다시 태어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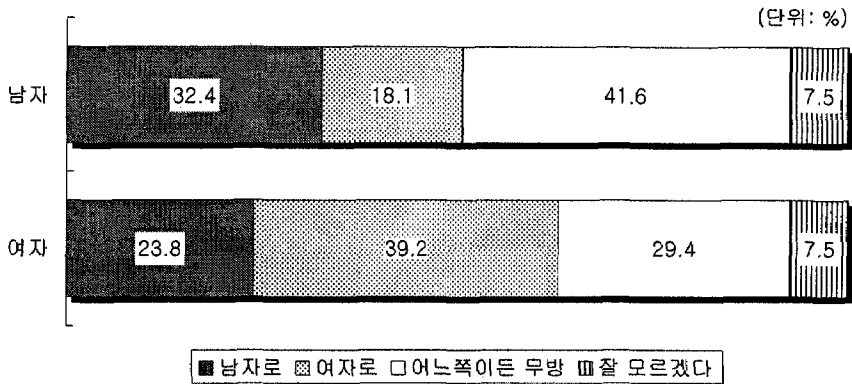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부계·남성 중심의 사회로서 사회제도적으로 남녀간의 차별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는 “어느쪽이든 무방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매스컴을 중심으로 성전환, 동성애 등 과거에 금기되던 성 관련 담론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와 같은 문화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성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¹⁵ 2003년에 실시한 4개국 고교생 생활·의식 비교조사에서도 다시 태어날 경우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33.9%로서 중국(47.6%), 일본(41.3%), 미국(39.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원, 1993: 40-41). 가부장제적 전통이 아직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성 구분 또는 차별의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응답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남자는 “어느 쪽이든 상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1.6%로서 다수였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률은 32.4%에 머문 반면, 여자는 동성(“여자”)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39.2%), “어느 쪽이든 상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29.4%로서 남자보다 1할 이상 적었다. 이것은 여자의 자기 성에 대한 귀속의식이 남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한편, 남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I- 12] 성 귀속의식: “다시 태어난다면…”(성별)



통계: $\chi^2=194.78^{***}$

성 귀속의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변인과 더불어 교급·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남성” “여성”의 응답률이 높은 한편, “어느 쪽이든 상관 없다”와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계열별로는 “어느 쪽이든 상관 없다”의 응답률이 인문계가 실업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7%, 30.7%).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서 일관되게 “남자”의 응답률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남자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수준이거나 소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실업계 고교생의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률의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5> 성 귀속의식: “다시 태어난다면...”

(단위: %)

		2004 년		2002 년	
		남자로	여자로	남자로	여자로
성별	남자	32.4	18.1	49.2	23.8
	여자	23.8	39.2	40.7	30.7
교급 ¹⁾	중학생	26.8	27.8	44.1	28.3
	고교생	29.2	29.8	45.7	26.1
계열 ²⁾	인문고	29.4	29.0	42.5	29.1
	실업고	28.7	31.6	51.4	20.8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8.14^*$, 2) $\chi^2=8.56^*$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배우자의 직장생활

Q [남학생만 응답] 결혼 후 자신의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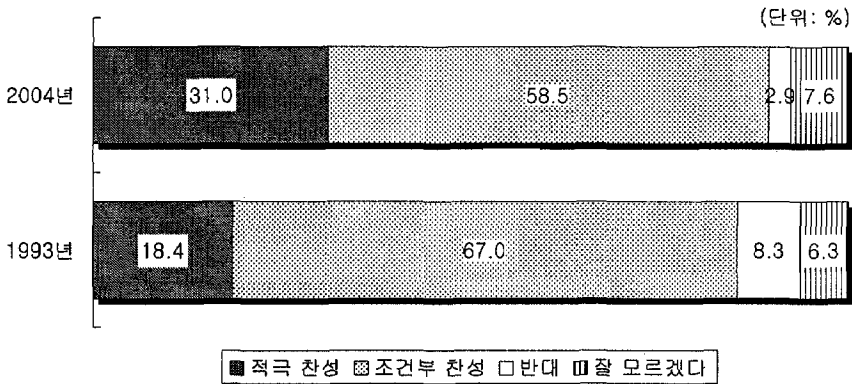
1. 가정생활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찬성
2.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찬성
3. 가정생활에만 전념하도록 반대하겠다
4. 잘 모르겠다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 후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찬성”한다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8.5%),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더라도 찬성”한다는 응답률도 3할에 달한 반면(31.0%), 반대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머물렀다(2.1%).

응답항목을 각각 “적극 찬성”(1), “조건부 찬성”(2), “반대”(3)로 명명하고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10여년 전과 비교하여

적극 찬성의 응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18.4%→ 31.0%), 반대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8.3%→ 2.9%). 여성취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과 더불어 맞벌이 부부를 원하는 남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조건부 찬성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⁶.

[그림 III- 13] 배우자(여자)의 직장생활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학생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교급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배우자의 취업에 대하여 훨씬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계층별로는 중간층의 적극 찬성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¹⁶ 1993년 초등학교(5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 조사를 보면, 남학생 중 자신의 배우자로서 전업주부를 선호하는 비율이 한국(서울)이 53.5%로서 미국(뉴욕: 14.7%), 영국(런던: 12.9%)은 물론 일본(동경: 39.0%)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보론” <표 V-5>). 다소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남학생이 배우자로서 전업주부를 선호하는 비율은 아직도 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 16> 배우자(여자)의 직장생활

	적극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단위: %) 잘 모르겠다
중학생	28.7	56.6	4.0	10.7
고교생	33.5	60.6	1.7	4.3

통계: $\chi^2=35.11^{***}$

결혼후 직장생활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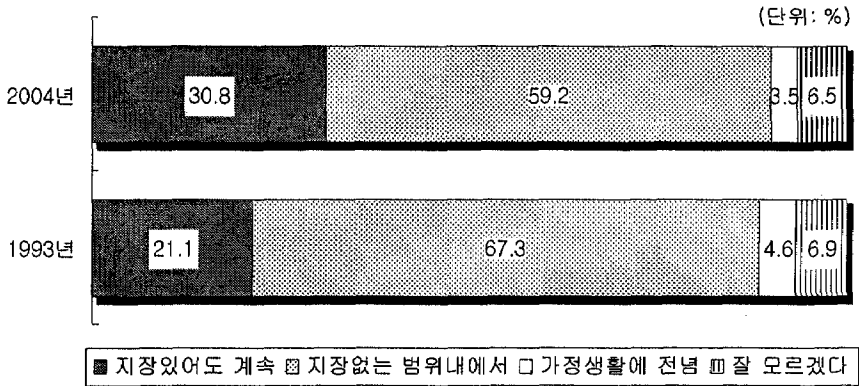
Q [여학생만 응답] 결혼한 뒤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까?

1. 가정생활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계속 하겠다
2.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하겠다
3.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겠다
4. 잘 모르겠다

이번에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9.2%로서 가장 많았으며,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더라도 계속 하겠다”는 응답률은 30.8%에 머물렀고,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겠다는 응답률이 3.5%에 불과하여 가장 적었다.

응답항목을 각각 “지속형”(1), “조건부 지속형”(2), “포기형”(3)으로 명명하고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조건부 지속형과 포기형이 감소한 한편, 지속형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21.1%→ 30.8%).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여학생들이 지난 10여년간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형의 비율이 3할에 머물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학생의 적극 찬성형(“가정생활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찬성”) 비율이 3할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주부 취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직장보다는 가정생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남학생 못지 않게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 14] 결혼 후 직장생활 의사(여자)



결혼 후 직장생활 지속여부에 대한 여학생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교급·계열·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지속형의 비율이 고교생은 36.7%에 달하는 반면 중학생은 2할 수준에 머물렀다(24.3%). 계열별로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실업계 고교생 중 지속형 응답자의 비율(23.9%)이 인문계(43.4%)보다 오히려 월등하게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또한 계층별로는 상층이 가정생활보다는 직장생활을 우선시하겠다는 응답률(지속형)이 중·하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포기형의 응답률은 하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III- 17> 결혼 후 직장생활 의사(여자)

(단위: %)

		지장있어도 계속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가정생활에 전념	잘 모르겠다
교급 ¹⁾	중학생	24.3	62.9	3.7	9.1
	고교생	36.7	55.9	3.3	4.1
계열 ²⁾	인문고	43.4	50.8	3.1	2.6
	실업고	23.9	65.6	3.5	7.0
계층 ³⁾	하	30.7	57.1	4.6	7.6
	중	27.9	62.5	3.0	6.6
	상	35.5	56.7	3.0	4.8

통계(2004년 원자료): 1) $\chi^2=42.01^{***}$, 2) $\chi^2=39.01^{***}$, 3) $\chi^2=13.26^*$

결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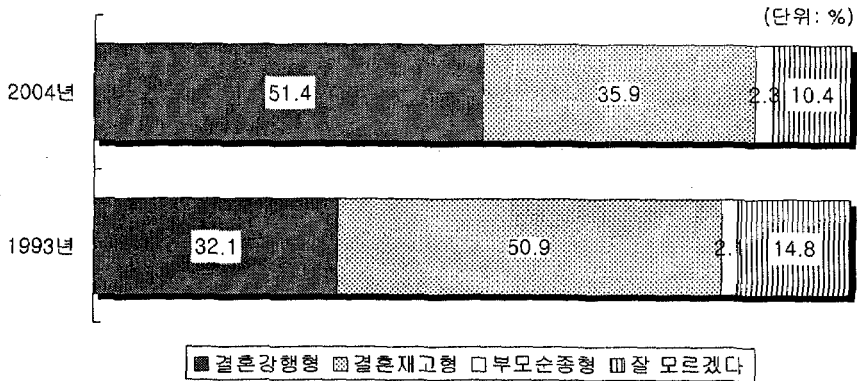
Q 앞으로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1.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2.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
3.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결혼하겠다
4. 잘 모르겠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의 반대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님이 반대해도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했고(51.4%), 재고해 보겠다는 청소년이 35.9%로 그 다음이었으며, 전적으로 부모님 의사에 따르겠다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머물렀다(2.1%).

응답항목을 각각 “결혼강행형”(1), “결혼재고형”(2), “부모순종형”(3)으로 명명하고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 15] “부모님이 배우자를 반대할 때…”



부모순종형의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지만, 결혼강행형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32.1%→ 51.4%), 결혼재고형은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여년 전만 해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청소년이 과반수였지만, 이제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려는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교급·지역 및 계열의 네 변인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결혼강행형, 여자는 결혼재고형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교급별로는 결혼강행형의 비율은 고교생이 월등하게 높은 한편, 결혼재고형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광역시, 계층별로는 상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강행형의 비율이 낮고 결혼재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결혼강행형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남자(39.6%→63.7%), 고교생(32.9%→54.7%)의 증가폭이 매우 현저하였다.

<표 III- 18> “부모님이 배우자를 반대할 때…”

(단위: %)

		2004 년		1993 년	
		결혼강행형	결혼재고형	결혼강행형	결혼재고형
성별 ¹⁾	남자	63.7	22.8	39.6	43.7
	여자	39.5	48.6	24.6	58.1
교급 ²⁾	중학생	48.0	35.5	31.2	48.3
	고교생	54.7	36.3	32.9	53.6
지역 ³⁾	서울	52.0	37.0	32.7	49.8
	광역시	46.7	40.7	33.9	52.9
	시군부	53.7	32.9	31.0	50.5
계층 ⁴⁾	하	57.0	28.2	32.3	49.6
	중	53.8	33.7	33.6	49.9
	상	45.3	44.0	27.5	56.6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64.38^{***}$, 2) $\chi^2=46.69^{***}$, 3) $\chi^2=7.71$, 4) $\chi^2=20.11^{**}$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라.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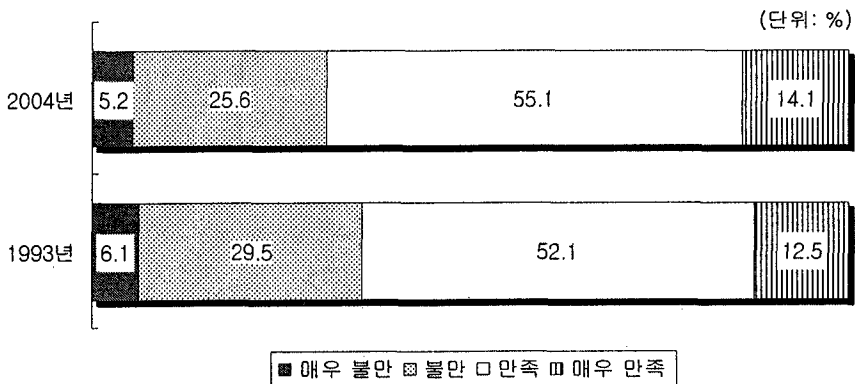
Q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하여 가장 많았고(55.1%), 이어서 “불만이다”(25.6%), “매우 만족한다”(14.1%)의 순이었으며 “매우 불만이다”의 응답률이 5.2%로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매우 만족”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이 약 7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9.2%). 2000년의 조사에서는 만족 응답률이 64.5%로서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4년 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16]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모든 변인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71.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여자(67.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교급별 만족 응답률은 중학생이 고교생에 비해 1할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4.3%, 64.1%).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보다 만족 응답률이 높았고(69.4%, 52.8%), 지역별로는 서울·시군부에 비해 광역시 청소년들의 만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계층별 하위집단의 차이는 특히 현저하였는데, 상위집단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서, 상층의 79.5%, 중간층의 7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하층의 만족 응답률은 44.4%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집단 중에서 하층 청소년들만이 유일하게 만족보다는 불만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표 III- 19>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2004		2000	
		불만	만족	불만	만족
성별 ¹⁾	남자	28.6	71.4	33.5	66.5
	여자	32.8	67.1	37.7	62.3
교급 ²⁾	중학생	25.7	74.3	28.4	71.6
	고교생	35.9	64.1	43.1	56.9
계열 ³⁾	인문고	30.6	69.4	40.6	59.5
	실업고	47.3	52.8	46.9	53.1
계층 ⁴⁾	하	55.6	44.4	55.6	44.4
	중	27.9	72.1	32.3	67.6
	상	20.5	79.5	28.3	71.8

통계(2004년 원자료): 1) $\chi^2=9.24^*$, 2) $\chi^2=53.87^{***}$, 3) $\chi^2=52.34^{***}$, 4) $\chi^2=298.71^{***}$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지역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만족 응답률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지역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군부

의 만족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정체상태인 광역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계층 변인에서도 상위계층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상층의 만족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계층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었다.

가정생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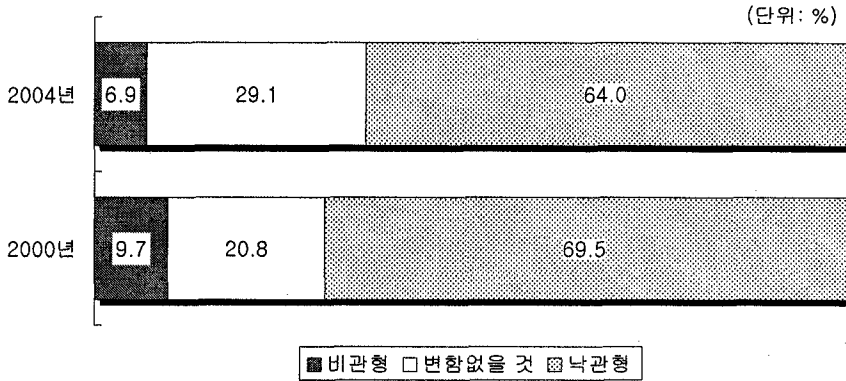
Q 앞으로 2~3년 뒤 당신의 가정생활은 현재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 없을 것이다
4. 좋아질 것이다
5. 훨씬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리라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4.8%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금과 다름 없을 것이다”(29.1%), “훨씬 좋아질 것이다”(19.2%), “나빠질 것이다”(5.2%)의 순이었으며, “훨씬 나빠질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에 머물렀다(1.7%).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이하 “낙관형”)하는 청소년이 64.0%로서 비관적으로 전망(이하 “비관형”)하는 청소년(6.9%)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지금과 다름 없을 것이다”와 “좋아질 것이다”의 응답률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낙관형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69.5%→ 64.0%). 앞서 가정생활 만족도의 조사결과를 고려해 보면 4년 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증가했지만, 앞으로의 가정생활 전망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17] 가정생활 전망



가정생활 전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교급·지역 및 계층의 네 변인에서 하위집단의 응답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 20> 가정생활 전망

(단위: %)

		2004 년		2000 년	
		비관형	낙관형	비관형	낙관형
성별 ¹⁾	남자	8.1	62.0	11.9	66.8
	여자	5.8	65.8	7.6	72.1
교급 ²⁾	중학생	6.6	67.7	9.4	72.1
	고교생	7.3	60.3	10.2	66.8
지역 ³⁾	서울	6.7	62.8	10.9	64.2
	광역시	8.9	63.7	9.9	68.1
	시군부	5.9	64.5	9.1	72.9
계층 ⁴⁾	하	11.0	58.5	14.1	63.9
	중	6.4	63.1	8.2	70.8
	상	5.1	66.8	9.4	70.6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12.81^*$, 2) $\chi^2=27.76^{***}$, 3) $\chi^2=15.98^*$, 4) $\chi^2=38.09^{***}$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낙관형의 비율이 다소 많은 편이었고 (65.8% : 62.0%), 교급별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중학생이 고교생에 비해 7%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7.7% : 60.3%). 지역별로는 낙관형의 비율이 시군부가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았으나 세 지역간의 차이는 매우 근소한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낙관형의 비율이 상층이 66.8%에 달하는 반면, 하층은 58.5%에 머물러 생활수준별로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계층별 응답결과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세 집단간의 낙관형 응답률의 차이가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생활

가. 학교성적 관련

학교성적 평가

Q 학교성적은 대략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매우 못 하는 편
2. 중간보다 못 하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잘 하는 편
5. 매우 잘하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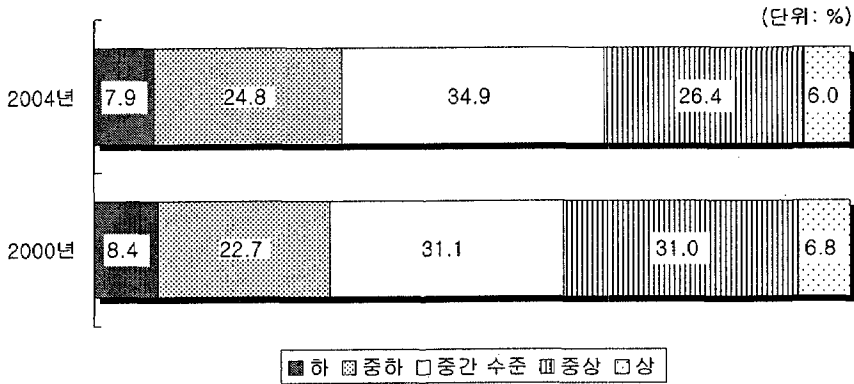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학교성적을 단계별 5점 척도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중간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4.9%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간보다 잘 하는 편”(26.4%), “중간보다 못 하는 편”(24.8%), “매우 못 하는 편”(7.9%)의 순이었고 “매우 잘하는 편”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6.0%). 전체적으로 자신이 공부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2.4%로서 못 하는 편이라는 응답률(32.7%)과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었다¹⁷.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잘 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감소한 반면 (37.8%→ 32.4%), 못 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은 소폭으로 증가하여(31.1%→

¹⁷ 국제비교 조사결과를 검토해 보면, 학교성적에 대한 응답분포에 있어서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중간층이 가장 많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응답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1993년의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비교조사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자기성적에 대한 응답결과가 실제와 유사한 정규분포를 나타냈음에 비해, 중국과 미국은 하위권에 비해 상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내었다(이종원, 1993: 9-10). 1990년 한·미·일 3개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응답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日本靑少年研究所, 1991: 45).

32.7%) 지난 4년간 청소년들의 자기성적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 18] 자신의 학교성적 평가



자기성적 평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지역·계층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상위권의 응답률은 가장 높은 한편, 하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적어서 자기성적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는 상층과 다른 두 집단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였는데 상층의 44.6%가 상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하층의 상위권 응답률은 모두 3할에도 못미쳤다.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자신의 성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실업계 고교생을 제외한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자기성적에 대한 평가가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2000년에는 광역시·시군부의 응답분포가 서울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며, 계층별로는 상층과 중·하층간의 격차가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21> 자신의 학교성적 평가

(단위: %)

		2004 년		2000 년	
		하위권	상위권	하위권	상위권
지역 ¹⁾	서울	25.5	34.8	30.3	37.4
	광역시	35.8	31.1	30.5	40.6
	시군부	34.0	32.0	32.0	36.1
계층 ²⁾	하	45.6	24.3	43.2	28.1
	중	33.9	28.8	31.4	35.7
	상	21.3	44.6	19.4	50.7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6.13^{**}$, 2) $\chi^2=162.87^{***}$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좋은 성적의 요인

Q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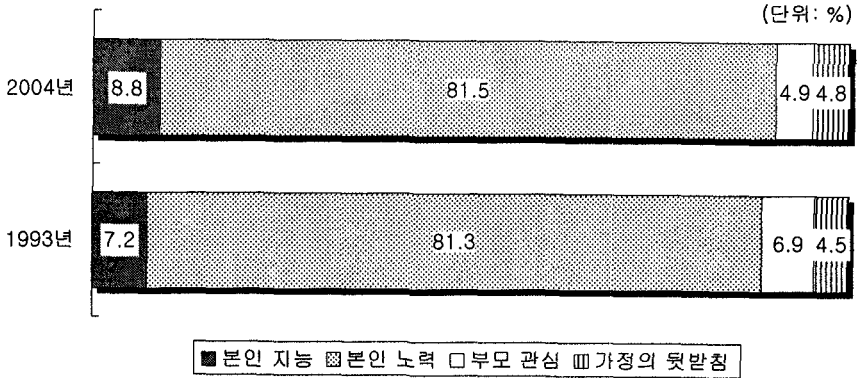
1. 본인의 타고난 지능
2. 본인 후천적 노력
3.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4.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얻으려면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네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대다수가 “본인의 후천적 노력”이라고 응답하였고 (81.5%), 다음으로 “본인의 타고난 지능”의 응답률이 8.8%에 머물렀고,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했다(4.9%, 4.8%). 대체로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정의 배경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학교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의 응답률이 다소 감소하였고(6.9%→ 4.9%), “본인의 타고난 지능”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약간 증가하였을 뿐(7.2%→ 8.8%) 항목별 응답률의 추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III- 19]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요인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교급·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II- 22>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요인

(단위: %)

		본인 지능	본인 노력	부모 관심	가정의 뒷받침
성별 ¹⁾	남자	9.1	83.1	4.6	3.2
	여자	8.4	80.0	5.2	6.4
교급 ²⁾	중학생	8.2	82.2	6.7	3.0
	고교생	9.3	80.9	3.1	6.6
계층 ³⁾	하	7.4	78.1	5.1	9.3
	중	9.5	81.7	4.5	4.3
	상	7.5	84.2	5.0	3.3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0.49^{***}$, 2) $\chi^2=47.54^{***}$, 3) $\chi^2=35.93^{***}$

성별로는 남자는 본인의 지능이나 노력, 여자는 부모·가정 배경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급별로는 부모·가정 배경에 대한 응답결과가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중학생은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교생은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을 보다 중시하였다. 계층별로는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본인의 지능·노력의 응답률은 낮은 반면,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9.3%에 달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나. 교사·학교친구 관계

교사와의 대화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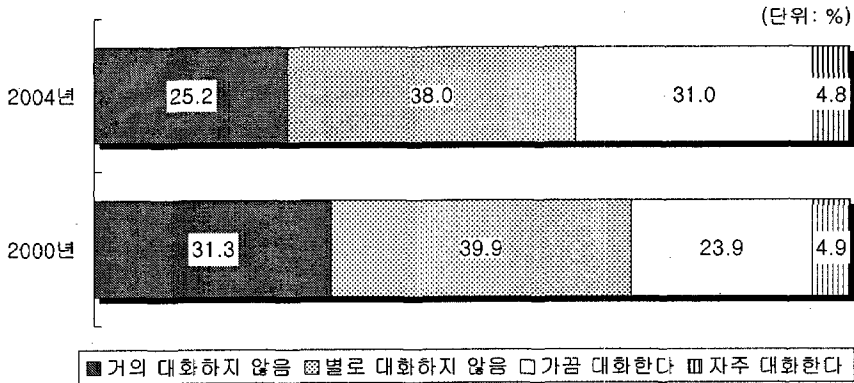
Q 학과수업 시간 이외에 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학과수업 이외의 자신이 학교선생님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와 “가끔 대화한다”의 응답률이 3할을 상회하였고(38.0%, 31.0%), 1/4 남짓한 청소년이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주 대화한다”는 청소년은 5.8%에 머물러 가장 소수였다.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하는 청소년이 4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36.8%), 학교에서 교사와의 대화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끔 대화한다”의 응답률이 크게 상승한 반면(23.9%→ 31.0%),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감소하여(31.3%) 전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가끔 또는 자주)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8%→ 36.8%)

[그림 III-20] 교사와의 대화빈도



교사와의 대화빈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III-23>과 같다. 교급·계열·지역의 세 변인에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급별로는 대화한다(자주 또는 가끔)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이 38.7%로서 고교생(35.1%)보다 높았으며,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인문계에 비해 교사와의 대화빈도가 월등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시군부가 34.5%에 머물러 서울·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각각 38.7%, 39.8%).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교사와의 대화빈도는 증가하였고, 특히 실업계 고교생의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27.4%→ 42.2%). 한편 2000년에는 지역별로 시군부 청소년의 대화빈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조사에는 서울·광역시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계층별로 상위집단일수록 교사와의 대화빈도가 높은 응답경향은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표 III- 23> 교사와의 대화빈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한다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한다
성별 ¹⁾	남자	63.6	36.5	72.8	27.2
	여자	62.8	37.2	69.6	30.5
교급 ²⁾	중학생	61.3	38.7	68.7	31.3
	고교생	65.0	35.1	73.8	26.2
계열 ³⁾	인문고	68.2	31.8	74.6	25.5
	실업고	57.8	42.2	72.7	27.4
지역 ⁴⁾	서울	61.3	38.7	72.9	27.1
	광역시	60.2	39.8	74.5	25.5
	시군부	65.5	34.5	68.2	31.8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4.68$, 2) $\chi^2=11.37^*$, 3) $\chi^2=18.04^{***}$, 4) $\chi^2=13.42^*$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교사의 학생 이해도

Q 학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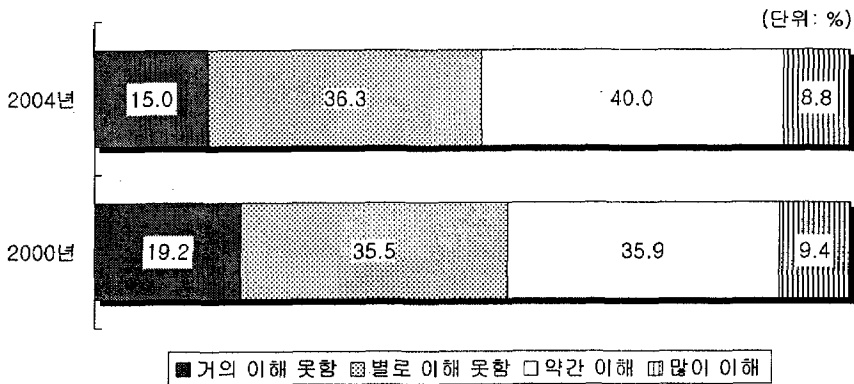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약간 이해하신다
4. 많이 이해하신다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 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이해하신다”와 “별로 이해하지 못 하신다”의 응답률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각각 40.0%, 36.3%),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의 응답률이 “많아 이해하신다”의 두 배 수준에 달하였다(각각, 15.0%, 8.8%). 전체적으로 이해하신다(약간 또는 많이)

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8.8%로서 과반수에 못 미쳤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의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19.2%→ 15.0%), “약간 이해하신다”의 응답률은 증가하여(35.9%→ 40.0%) 교사의 학생 이해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21] 교사의 학생 이해도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있다(약간 또는 많이)고 응답한 청소년이 남자가 51.4%로서 여자(46.2%)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에 비해 교사의 이해정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계층별로는 하층 청소년의 43.0%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다른 두 집단의 긍정응답률은 5할대에 이르러 계층별 평가는 하층과 중·상층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여자의 긍정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39.7%→ 46.2%) 여전히 남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중·고교생은 모두 이해하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계층별로는 2000년 조사에서는 하층과 중·상층의 차이가 현저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상층과 중·하층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II- 24> 교사의 학생 이해도

(단위: %)

		2004		2000	
		이해하지 못하신다	이해 하신다	이해하지 못하신다	이해 하신다
성별 ¹⁾	남자	48.6	51.4	49.3	50.7
	여자	53.8	46.2	60.3	39.7
교급 ²⁾	중학생	48.1	51.9	52.5	47.5
	고교생	54.3	45.7	56.9	43.1
계층 ³⁾	하	56.9	43.0	55.8	44.3
	중	50.3	49.7	56.2	43.8
	상	49.5	50.5	52.1	47.9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8.70^{***}$, 2) $\chi^2=34.28^{***}$, 3) $\chi^2=14.76^*$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교사와의 대립경험

Q 지난 1년 동안 학교 선생님과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반항을 하거나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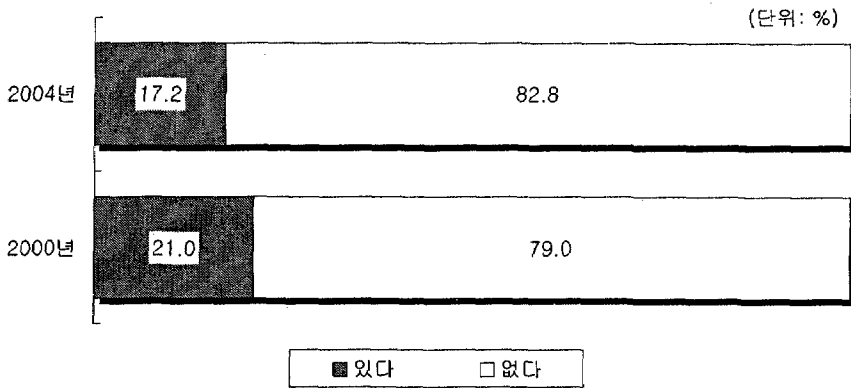
지난 1년간 교사와 대립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립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5에 다소 못미치는 17.2%로서 2000년(21.0%)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교사와의 대립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 차이는 성·고교계열·계층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 중 교사와 대립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8.9%로서 남자(15.4%)보다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의 22.8%가 대립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인문계 고교생(15.7%)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 청소년의 22.9%가 교사와 대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상층은 모두 2할

미만에 머물러(16.6%, 15.1%)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자,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의 대립경험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계층별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하층과 상층의 응답분포가 유사하였음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하층의 대립경험 응답률이 상층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II- 22] 교사와의 대립경험



<표 III- 25> 교사와의 대립경험

(단위: %)

		2004		2000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¹⁾	남자	15.4	84.6	19.9	80.1
	여자	18.9	81.1	22.0	78.0
계열 ²⁾	인문고	15.7	84.3	20.4	79.6
	실업고	22.8	77.2	24.2	75.8
계층 ³⁾	하	22.9	77.1	22.3	77.7
	중	16.6	83.4	19.9	80.1
	상	15.1	84.9	22.3	77.7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7.61^{**}$, 2) $\chi^2=12.87^{***}$, 3) $\chi^2=1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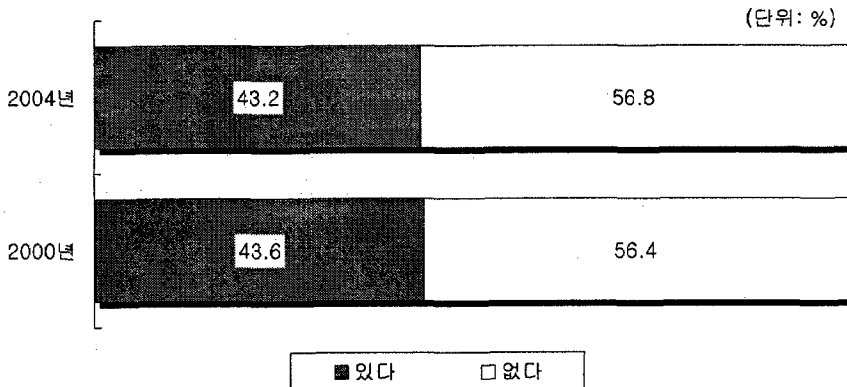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Q 학교의 선생님 중에서 자신이 어른이 되면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학교선생님 중에서 앞으로 자신이 닮고싶은 분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3.2%로서 4년 전의 조사결과(43.6%)와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림 III- 23]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문계 고교생의 45.0%가 닮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업계 고교생(35.8%)의 응답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밖에 교급별로는 중학생, 지역별로는 시군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47.8%로서 여자(39.4%)보다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43.8% : 42.6%). 계열별로 응답경향은 이번 조사와 동일하였고,

지역별로는 4년 전에는 있다는 응답률이 서울(50.1%)이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각각 44.4%, 40.1%)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 26>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단위: %)

		2004 년		2000 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¹⁾	남자	43.8	56.2	47.8	52.2
	여자	42.6	57.4	39.4	60.6
교급 ²⁾	중학생	44.2	55.8	42.3	57.7
	고교생	42.1	57.9	44.9	55.1
계열 ³⁾	인문고	45.0	55.0	48.7	51.3
	실업고	35.8	64.2	39.3	60.7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0.48$, 2) $\chi^2=1.55$, 3) $\chi^2=12.97^{***}$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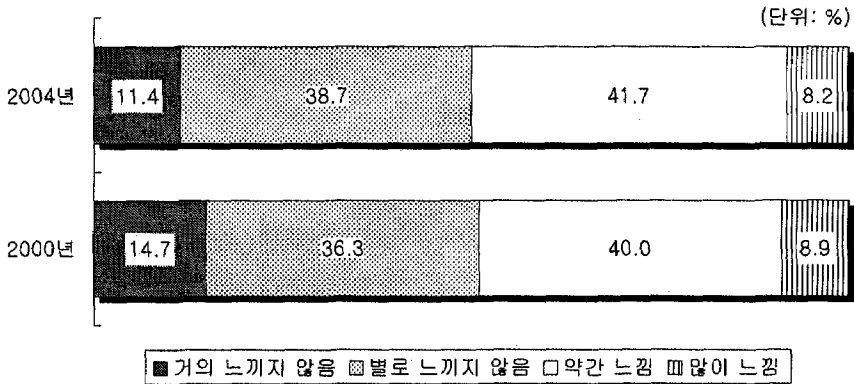
Q 평소 학급친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

1.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2.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3. 약간 느끼고 있다
4. 많이 느끼고 있다

평소에 학급친구들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에 의거하여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느끼고 있다”와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할 안팎으로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각각 41.7%, 38.7%), 약 1할이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2%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중·고교생의 약 절반 가량(49.9%)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급친구들에 대해 경쟁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도

경쟁의식을 느낀다고 응답(약간 또는 많이)한 청소년이 49.0%로서 이번 조사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III- 24]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계층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51.1%가 경쟁의식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남자(48.5%)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으며, 계열별로는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인문계가 55.4%에 달하여 실업계(36.2%)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인문계 고교생의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수능·대입시험을 앞둔 학교의 특수한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계층별로는 경쟁의식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상층과 중간층이 모두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각각 53.8%, 50.9%) 하층은 42.4%에 머물러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자,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계층별 응답결과에서 있어서 세 집단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하층이 중간층보다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더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하층과 중·상층의 응답경향이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표 III- 27>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단위: %)

		2004 년		2000 년	
		느끼지 않고 있다	느끼고 있다	느끼지 않고 있다	느끼고 있다
성별 ¹⁾	남자	51.5	48.5	52.3	47.7
	여자	48.8	51.1	49.6	50.4
계열 ²⁾	인문고	44.6	55.4	47.6	52.4
	실업고	63.9	36.2	53.5	46.6
계층 ³⁾	하	57.6	42.4	49.7	50.3
	중	49.1	50.9	53.5	46.5
	상	46.3	53.8	46.5	53.6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13.22^{**}$, 2) $\chi^2=57.92^{**}$, 3) $\chi^2=25.40^{***}$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부모님의 학교방문 경험

Q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님이 당신의 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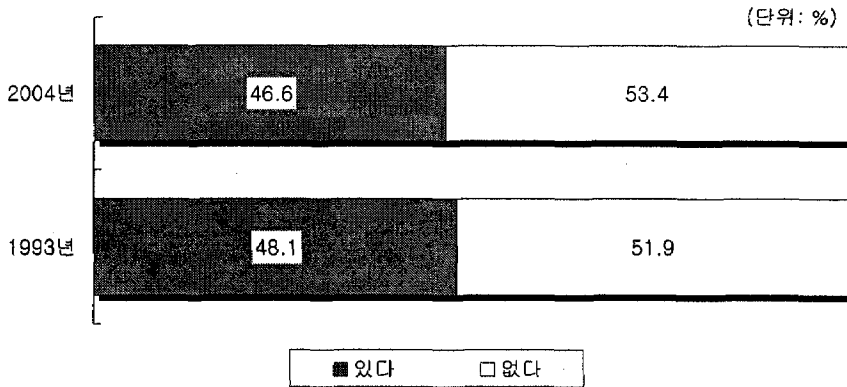
1. 있다
2. 없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님이 자기 학교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46.6%로서 10여년 전인 1993년의 응답률(48.1%)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교방문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나머지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부모의 학교 방문 경험 비율이 고교생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고(각각 48.4%, 44.8%), 계열별로는 인문계의 51.0%가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업계(31.2%)보다 2할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학부모 방문 경험 응답률이 54.6%에 달하는 반면, 광역시

와 시군부는 모두 4할대에 머물렀다(각각 43.6%, 45.1%). 계층별 하위집단의 차이는 특히 현격하였는데, 부모의 학교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상층이 62.2%로서 가장 높았고, 하층은 그 1/2 수준에 불과하였다(32.7%). 부모의 자녀 학교 방문이 주로 서울지역,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25] 부모님의 학교방문 경험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의 두 변인에서 이번 조사와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993년에는 부모가 학교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51.9%로서 여자(44.3%)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3년과 비교하여 고교생, 특히 인문계 고교생 부모의 학교방문 경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이 주목되는데, 아마도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별로는 부모의 학교방문 경험 응답률이 시군부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서울·광역시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표 III- 28> 부모님의 학교방문 경험

(단위: %)

		2004 년		1993 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교급 ¹⁾	중학생	48.4	51.6	42.5	57.5
	고교생	44.8	55.2	53.8	46.2
계열 ²⁾	인문고	51.0	49.0	63.8	36.2
	실업고	31.2	68.8	35.9	64.1
지역 ³⁾	서울	54.6	45.4	48.4	51.6
	광역시	43.6	56.4	38.9	61.1
	시군부	45.1	54.9	52.3	47.7
계층 ⁴⁾	하	32.7	67.3	35.8	64.2
	중	42.5	57.5	49.4	50.6
	상	62.2	37.8	62.9	37.1

통계: 1) $\chi^2=4.59^*$, 2) $\chi^2=59.83^{***}$, 3) $\chi^2=23.31^{***}$, 4) $\chi^2=157.89^{***}$

다.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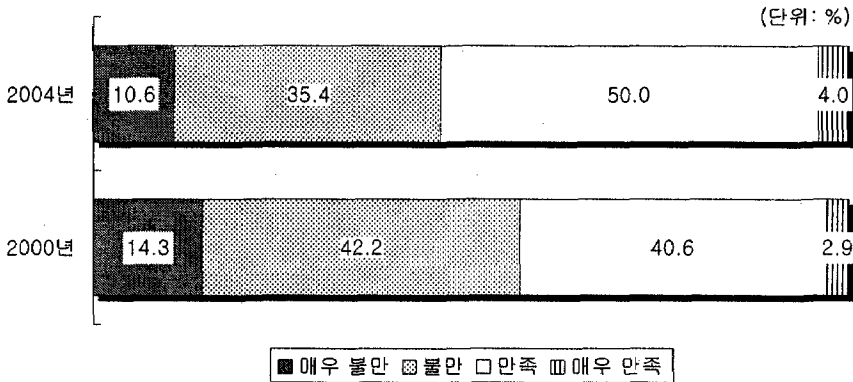
Q 현재 자신의 학교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0.0%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만이다”(35.4%), “매우 불만이다”(10.6%)의 순이었으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4.0%). 전체적으

로 현재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54.0%로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¹⁸.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43.5%에서 54.0%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26]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남자가 56.7%로서 여자(51.6%)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만족 응답률이 중학생은 6월에 달한 반면, 고교생은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만족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60.1%), 다음으로 시군부(54.9%), 광역시(48.0%)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의 만족 응답률이 4할 남짓한 수준인 반면(43.8%), 중·상층은 모두 과반수를 상회하였다(각각 54.8%, 58.7%).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만족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성·교급·계층별 하위집단의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2000년에는 만족 응답률이

¹⁸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로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정희욱 외(1997), 윤철경 외(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靑少年対策本部(1999) 등이 있다. “보론”의 <표 V-7> 을 참조할 것.

세 집단 모두 43%대의 동일한 수준이었음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청소년들의 만족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다른 두 지역과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III- 29>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불만	만족	불만	만족
성별 ¹⁾	남자	43.4	56.7	54.6	45.5
	여자	48.5	51.6	58.3	41.7
교급 ²⁾	중학생	39.1	60.9	49.7	50.3
	고교생	52.7	47.2	63.3	36.7
지역 ³⁾	서울	39.9	60.1	56.5	43.5
	광역시	52.1	48.0	56.6	43.4
	시군부	45.0	54.9	56.2	43.8
계층 ⁴⁾	하	56.3	43.8	61.5	38.4
	중	45.2	54.8	57.7	42.3
	상	41.3	58.7	52.3	47.7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9.21^{***}$, 2) $\chi^2=71.11^{***}$, 3) $\chi^2=26.30^{***}$, 4) $\chi^2=43.40^{***}$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학교생활 전망

Q 앞으로 1~2년 뒤 당신의 학교생활은 현재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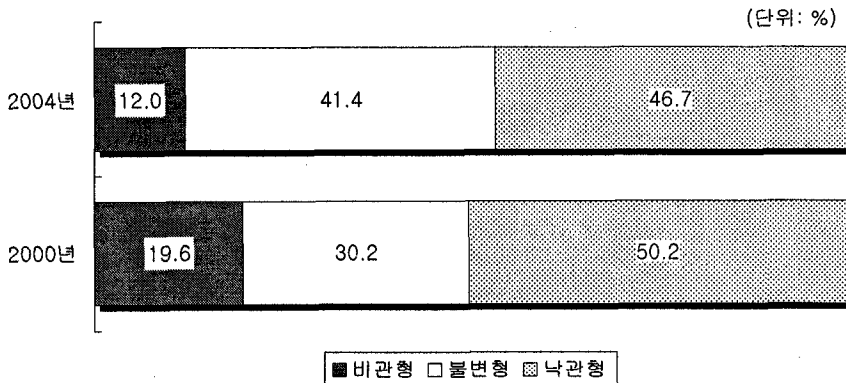
1.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 없을 것이다
4. 좋아질 것이다
5. 훨씬 좋아질 것이다

자신의 학교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리라 예상하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지금과 다름 없을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1.4%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좋아질 것이다”(35.2%), “훨씬 좋아질 것이다”(11.5%), “나빠질 것이다”(8.0%)의 순이었으며, “훨씬 나빠질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0%에 머물렀다.

청소년들의 응답유형을 각각 “비관형”(1, 2), “불변형”(3), “낙관형”(4, 5)으로 구분하면, 낙관형이 46.7%로서 비관형의 비율(12.0%)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낙관형과 비관형의 청소년이 모두 감소한 한편 불변형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III-27] 학교생활 전망



학교생활의 전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계열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계층별로는 낙관형의 비율이 상층이 48.3%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층(46.8%), 하층(43.2%)의 순으로서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계층별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열별로는 2000년에는 인문계 고교생의 낙관형 비율이 50.0%로서 실업계(42.0%)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사에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0> 학교생활 전망

(단위: %)

		2004 년		2000 년	
		비관형	낙관형	비관형	낙관형
성별 ¹⁾	남자	13.5	45.5	23.9	47.7
	여자	10.4	47.7	15.1	52.9
교급 ²⁾	중학생	12.0	49.7	18.4	53.6
	고교생	11.9	43.5	20.8	46.8
계열 ³⁾	인문고	11.4	43.3	20.6	50.0
	실업고	13.1	44.2	21.2	42.0
계층 ⁴⁾	하	13.4	43.1	21.1	46.5
	중	11.1	46.8	20.1	50.6
	상	11.9	48.3	17.3	52.9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15.84^{**}$, 2) $\chi^2=26.54^{***}$, 3) $\chi^2=1.97$, 4) $\chi^2=19.23^{*}$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라. 진로의식

고졸 후 진로계획

Q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의 진로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1.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2. 가능하다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3. 가능하다면 취업할 생각이다
4. 반드시 취업할 생각이다
5.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의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반드시” 진학하겠다는 청소년이 50.1%, “가능하다면” 진학하려는 청소년이 31.8%로서, 두 항목의 응답률을 합산하면 전체의 81.9%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취업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1할 남짓한 수준으로 “가능하다면” 취업하려는 청소년이 6.4%, “반드시” 취업하겠다는 청소년

년이 3.6%에 머물렀다. 이밖에 자신의 진로를 아직 결정 못한 청소년은 8.0%였다.

1993년·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률은 1993년의 56.3%에서 200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45.4%)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가능하다면” 진학하겠다는 응답률을 포함하면, 대학진학 의사를 가진 청소년은 세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8할에 달하여 큰 변화가 없지만 진학의사의 강도의 측면에서는 약화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의사를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5%→9.0%→10.0%).

<표 III- 31>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

(단위: %)

	반드시 진학	가능하면 진학	가능하면 취업	반드시 취업	미결정
2004 년	50.1	31.8	6.4	3.6	8.0
2000 년	45.4	39.2	6.2	2.8	6.4
1993 년	56.3	26.5	7.5*		9.7

주 : “진학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임(1993년에는 4 점 척도로 조사)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표 III-32>와 같다.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54.9%로서 남자(45.2%)보다 1할 정도 많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수준이었다(54.9% : 45.2%).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지만, 실업계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진학하겠다”는 응답률(41.9%)을 합산하면 전체의 6할 이상(65.9%)이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반드시 진학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상층이 68.1%에 달하여 중간층(47.1%)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하층(32.1%)의 두 배를 상회하여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1993년·2000년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

면, 대학 진학의사를 가진 청소년의 감소폭이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 희망자의 비율이 1998년의 19.4%에서 23.4%(2000년), 24.0%(2004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가 취업을 준비하는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는 지난 세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상층의 진학 희망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간층, 하층의 순으로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32>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계획

(단위: %)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겠다		
		2004 년	2000 년	1993 년
성별	남자	45.2	45.7	54.1
	여자	54.9	45.2	58.4
교급	중학생	47.1	45.7	55.8
	고교생	53.1	45.1	56.8
계열	인문고	66.4	59.6	78.0
	실업고	24.0	23.4	19.4
계층	하	32.1	30.8	38.6
	중	47.1	43.4	58.7
	상	68.1	63.1	76.5

직장 선택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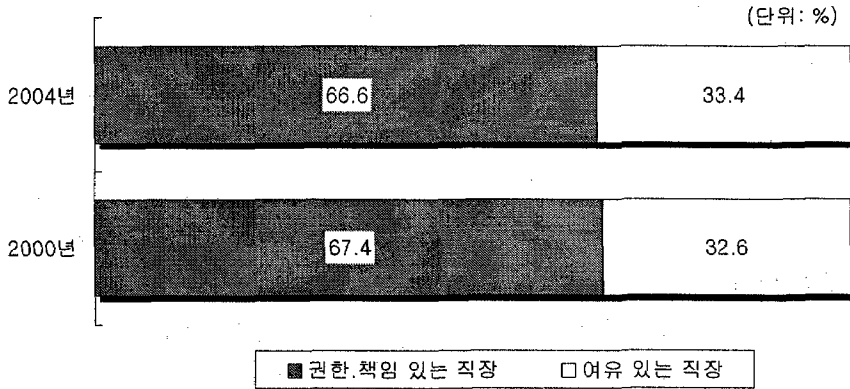
Q 다음 두가지 직장 중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 일은 고되고 바쁘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
2. 책임과 권한은 없으나, 일이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은 직장

직장 선택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권한과 책임, 시간적 여유를 기준으로 두가지 유형의 직장을 제시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시간적 여유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직장을 선택하겠다는 청소년이 다수였고,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 28] 자신이 원하는 직장유형



직장선택의 요인에 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권한·책임 있는 직장의 응답률이 6할을 상회하여 다수였지만, 성별로는 여자,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여유 있는 직장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III- 33> 자신이 원하는 직장유형

(단위: %)

		2004 년		2000 년	
		권한·책임 있는 직장	여유있는 직장	권한·책임 있는 직장	여유있는 직장
성별 ¹⁾	남자	63.2	36.8	63.1	36.9
	여자	69.8	30.2	71.9	28.1
교급 ²⁾	중학생	68.5	31.5	70.4	29.6
	고교생	64.6	35.4	64.4	35.6
계층 ³⁾	하	61.9	38.1	66.8	33.2
	중	66.9	33.1	66.0	34.0
	상	69.5	30.5	71.6	28.4

통계: 1) $\chi^2=16.93^{***}$, 2) $\chi^2=5.92^*$, 3) $\chi^2=9.61^{**}$

계층별로는 여유 있는 직장을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이 하층이 38.1%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층(33.1%), 상층(30.5%)의 순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도 하위집단별 응답률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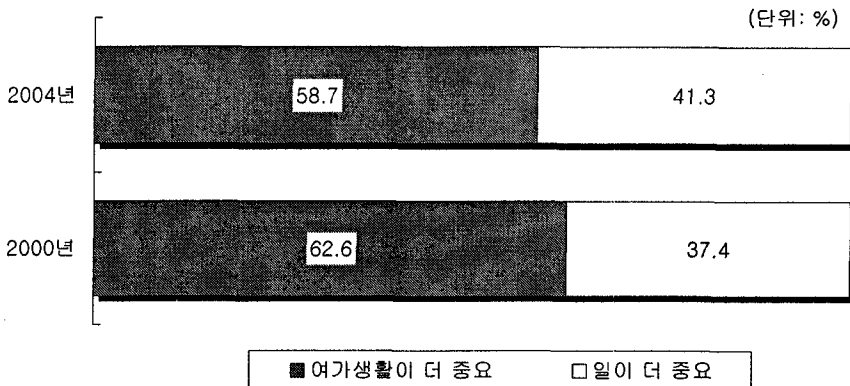
일과 여가생활

Q 일과 여가생활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쪽과 더 가깝습니까 ?

1. 일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
2. 여가생활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가생활과 일 중 어느쪽을 중시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일에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58.7%로서 여가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청소년(41.3%)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여가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7.4%→41.3%).

[그림 III- 29] 일과 여가생활



일과 여가생활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 변인에서만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문계 고교생의 61.8%가 여가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

답하여 실업계 고교생의 응답률(56.5%)을 상회하였다. 이밖에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여가생활을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성별로는 남자,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여가생활을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는 양 집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 34> 일과 여가생활

(단위: %)

		2004 년		2000 년	
		여가생활이 더 중요	일이 더 중요	여가생활이 더 중요	일이 더 중요
성별 ¹⁾	남자	59.3	40.7	64.6	35.4
	여자	58.1	41.9	60.6	39.4
교급 ²⁾	중학생	57.3	42.7	58.6	41.4
	고교생	60.1	39.9	66.8	33.2
계열 ³⁾	인문고	61.8	38.2	67.6	32.4
	실업고	56.5	43.5	65.6	34.4

통계: 1) $\chi^2=0.49$, 2) $\chi^2=2.87$, 3) $\chi^2=4.34^*$

아르바이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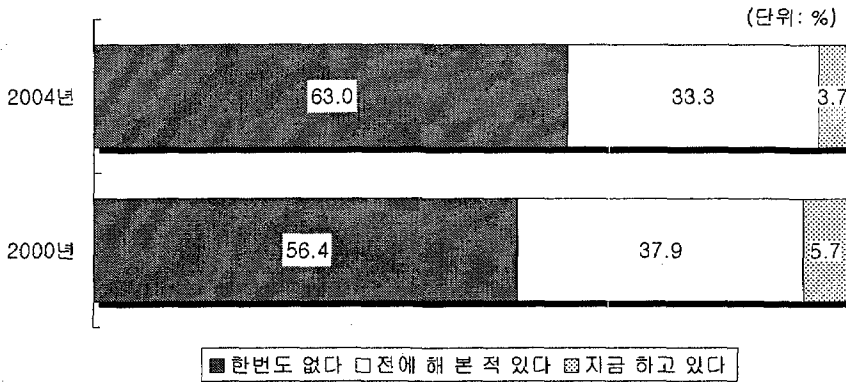
Q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한번도 없다
2. 전에 해 본 적이 있다
3. 지금 하고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혀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63.0%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에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할 남짓한 수준이었으며(33.7%),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3.7%에 불과했다. 2000년의 조사결과

와 비교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43.6%→37.0%).

[그림 III-30]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표 III-35>와 같다. 교급·계열·계층의 세 변인에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자(현재 하고 있는 사람 포함)가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여(45.5%), 중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자 비율(28.5%)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10대 초·중반의 연령층인 중학생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3할 정도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65.2%에 달하여 무경험자가 소수였는데 직업교육 위주의 교과과정 특성상 인문계 고교생보다는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하층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47.6%에 달하는 반면 상층은 28.1%에 머물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자,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 남자의 4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7.5%로 크게 감소하여 여자의 경험자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계열별로

는 인문계 고교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실업계 고교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표 III- 35>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2004 년		2000 년	
		무경험자	경험자	무경험자	경험자
성별 ¹⁾	남자	62.6	37.5	52.2	47.7
	여자	63.4	36.6	60.8	39.2
교급 ²⁾	중학생	71.5	28.5	62.7	37.3
	고교생	54.4	45.5	49.9	50.0
계열 ³⁾	인문고	63.4	36.6	57.5	42.5
	실업고	34.9	65.2	38.8	61.3
계층 ⁴⁾	하	52.4	47.6	45.8	54.2
	중	61.7	38.3	56.3	43.7
	상	71.9	28.1	64.6	35.3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3.76$, 2) $\chi^2=120.94^{***}$, 3) $\chi^2=157.32^{***}$, 4) $\chi^2=74.93^{***}$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3. 사회·국가관

가. 지역사회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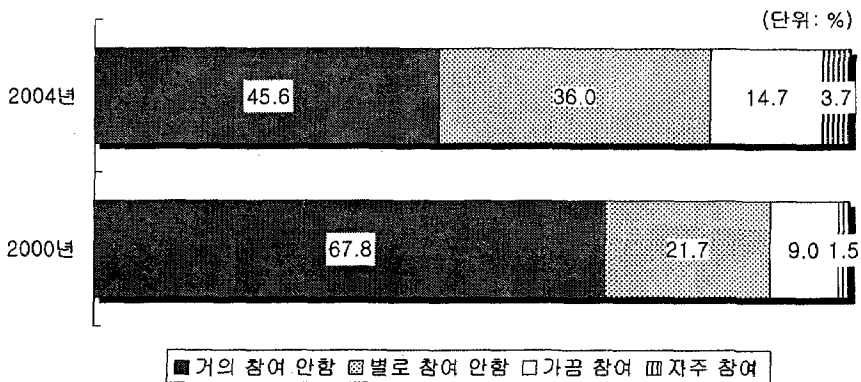
동네행사 참여빈도

Q 동네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이나 행사에 어느 정도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까?

1.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별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3. 가끔 참여하고 있다
4. 자주 참여하고 있다

자신이 동네 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5.6%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별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36.0%), “가끔 참여하고 있다”(14.7%)의 순이었으며, “자주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였다(3.7%).

[그림 III- 31] 동네행사 참여빈도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가끔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증가하였다. 그 결과 동네행사에 참여(가끔 또는 자주)하는 청소년이 2000년의 10.5%에 18.4%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전체의 8할 이상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동네행사 참여정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교급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끔 또는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이 24.6%로서 고교생(12.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밖에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계층별로는 하층이 중·상층보다 동네행사 참여도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동네행사 참여도가 높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 구분 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36> 동네행사 참여빈도

(단위: %)

		2004		2000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성별 ¹⁾	남자	80.3	19.7	86.4	13.5
	여자	82.8	17.2	92.6	7.4
교급 ²⁾	중학생	75.3	24.6	86.0	14.0
	고교생	87.7	12.2	93.1	6.9
지역 ³⁾	서울	81.4	18.6	91.4	8.7
	광역시	83.1	16.9	90.9	9.1
	시군부	80.9	19.1	87.6	12.4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4.19$, 2) $\chi^2=144.42^{***}$, 3) $\chi^2=3.55$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남자의 13.5%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7.4%)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동네행사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고교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중학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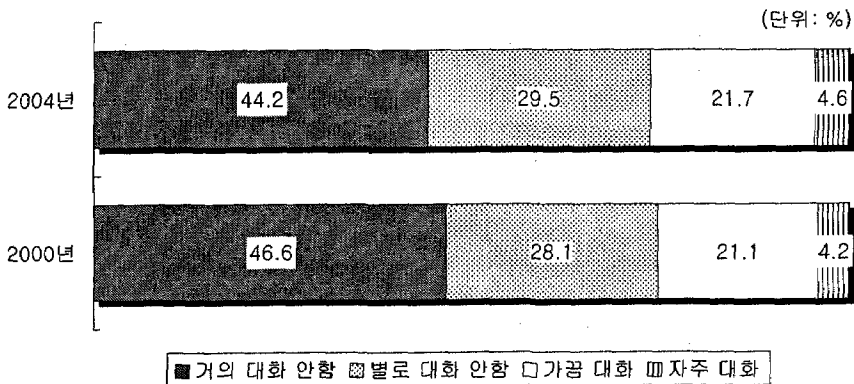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

Q 동네에서 이웃어른들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동네에서의 이웃어른들과의 대화빈도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4.2%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29.5%), “가끔 대화한다”(21.7%)의 순이었으며, “자주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6%에 머물렀다. 이웃어른과 가끔 또는 자주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은 전체의 1/4 남짓하여 (26.3%) 청소년들의 지역사회내의 인간관계가 매우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32]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이웃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의 비율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25.3%→ 26.3%) 전체적인 응답분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교급·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28.2%가 대화한다(가끔 또는 자주)고 응답하여 남자(24.3%)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중학생이 31.6%로서 고교생(21.0%)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더 높은 것은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계층별로는 2000년에는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하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상층은 대화빈도가 증가한 반면 하층은 오히려 감소하여 4년 전과는 대조적인 응답결과가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I- 37>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한다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한다
성별 ¹⁾	남자	75.7	24.3	77.0	23.0
	여자	71.7	28.2	72.5	27.6
교급 ²⁾	중학생	68.3	31.6	71.3	28.7
	고교생	79.0	21.0	78.2	21.7
계층 ³⁾	하	79.4	20.7	71.0	29.0
	중	73.4	26.7	75.9	24.1
	상	71.4	28.6	76.1	23.9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10.51^*$, 2) $\chi^2=81.22^{***}$, 3) $\chi^2=16.70^*$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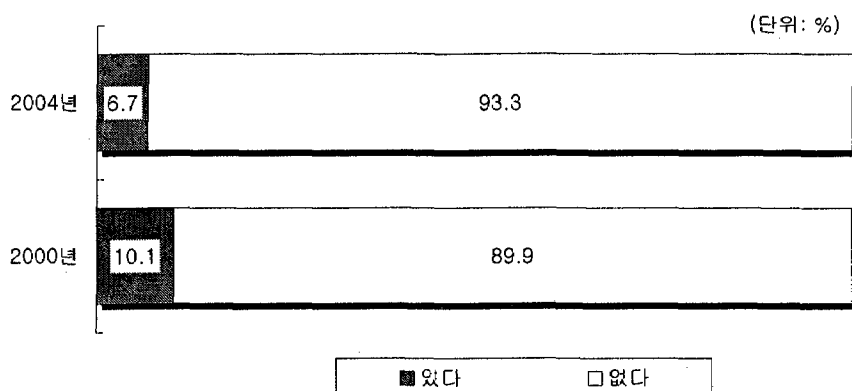
역할모델로서의 동네어른

Q 동네 이웃어른 중에 자신이 앞으로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동네 어른 중에서 자신이 앞으로 닮고픈 분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93.3%), 이것은 앞의 조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청소년들의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매우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년 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웃어른 중에 자신의 역할모델이 있다는 응답률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10.1%→6.7%).

[그림 III-33] 역할모델로서의 동네어른



같은 질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지역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웃어른 중에 자신의 역할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8.0% : 5.6%),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7% : 4.8%). 지역별로는 있다는 응답률이 서울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밖에 계층별로는 상층,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의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교급별로는 고교생 중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크게 감소하여(9.0%→ 4.8%) 중학생과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2000년에는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광역시와 시군부가 서울에 비해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은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반면 다른 두 지역은 크게 감소하여 대조적인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III- 38> 역할모델로서의 동네어른

(단위: %)

		2004 년		2000 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¹⁾	남자	8.0	92.0	11.2	88.8
	여자	5.6	94.4	9.0	91.0
교급 ²⁾	중학생	8.7	91.3	11.1	88.9
	고교생	4.8	95.2	9.0	91.0
계열 ³⁾	인문고	5.3	94.7	8.3	91.7
	실업고	3.8	96.2	10.1	89.9
지역 ⁴⁾	서울	9.5	90.5	8.0	92.0
	광역시	5.8	94.2	11.2	88.8
	시군부	6.2	93.8	10.2	89.8

통계: 1) $\chi^2=7.74^{**}$, 2) $\chi^2=20.81^{***}$, 3) $\chi^2=1.65$, 4) $\chi^2=10.64^{**}$

지역사회 영주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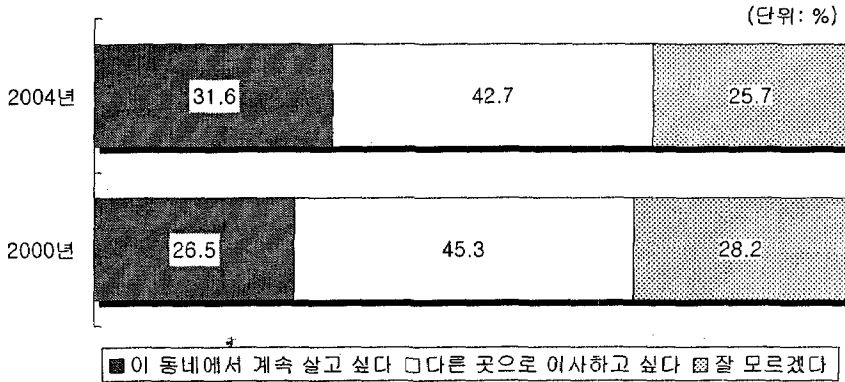
Q 앞으로도 지금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2.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3. 잘 모르겠다

청소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청소년은 31.6%로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소년(42.7%)보다 훨씬 적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지역사회 영주의사를 가진 청소년이 26.5%에서 31.6%로 소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34] 지역사회 영주의사



지역사회 영주의사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모든 변인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III-39>). 자기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38.1% : 25.4%),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34.6% : 28.6%),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0.7% : 24.1%). 지역별로는 서울은 영주의사를 가진 청소년이 더 많은 반면, 다른 두 지역은 이주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영주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많은 한편 이주의사가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계열의 세 변인에서는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영주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은 영주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28.1%→ 39.8%) 다른 지역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서울과 지방간 생활환경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층별로도 상층 청소년들의 영주의사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중·하층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대조를 이루었다.

<표 III- 39> 지역사회 영주의사

(단위: %)

		2004 년		2000 년	
		계속 살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	계속 살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
성별 ¹⁾	남자	38.1	34.9	32.6	39.5
	여자	25.4	50.1	20.2	51.2
지역 ²⁾	서울	39.8	36.5	28.1	47.1
	광역시	29.3	45.3	27.8	45.7
	시군부	29.6	43.7	24.9	44.2
계층 ³⁾	하	22.9	53.6	22.3	52.6
	중	31.7	41.8	26.5	43.8
	상	36.9	37.7	30.0	43.3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92.65^{***}$, 2) $\chi^2=28.70^{***}$, 3) $\chi^2=46.42^{***}$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지역사회 선호도

Q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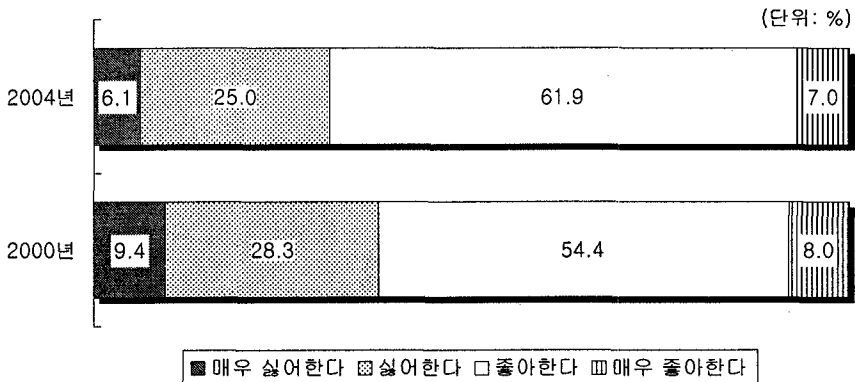
1. 매우 싫어한다
2. 싫어한다
3. 좋아한다
4. 매우 좋아한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선호도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하여 “좋아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할을 점하여 가장 다수였고(61.9%), 1/4 정도가 “싫어한다”고 응답하였으며(25.0%), “매우 좋아한다”와 “매우 싫어한다”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7.0%, 6.1%). 전체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청소년이 68.9%로서 싫어하는 청소년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¹⁹.

¹⁹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지만,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62.4%에서 68.9%로 증가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이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35] 지역사회 선호도



지역사회 선호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는 남자, 교급별로는 중학생,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계층별 응답결과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여, 상층의 2/3 정도가 좋아한다고 응답한 반면(75.2%), 하층은 54.6%에 머물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계열 및 계층별 하위집단의 응답률 분포는 이번조사와 변함이 없었으나 지역 변인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2000년 조사에서는 자기 동네에 호감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시군부가 대도시 지역(서울·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선호도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 내각부에서 2003년 5개국 청소년(18~24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41.5%로서 미국(57.3%), 독일(57.1%), 스웨덴(53.7%)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일본은 40.6%)이다(內閣府, 2004: 44-45).

나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과 시군부가 호감도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 40> 지역사회 선호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성별 ¹⁾	남자	28.3	71.6	33.8	66.2
	여자	33.8	66.2	41.6	58.4
교급 ²⁾	중학생	29.6	70.4	35.5	64.5
	고교생	32.6	67.4	40.0	60.0
지역 ³⁾	서울	29.8	70.2	39.9	60.2
	광역시	34.2	65.7	38.2	61.9
	시군부	29.9	70.1	36.3	63.7
계층 ⁴⁾	하	45.4	54.6	51.9	48.0
	중	29.2	70.8	35.4	64.7
	상	24.8	75.2	32.6	67.4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31.51^{***}$, 2) $\chi^2=38.02^{***}$, 3) $\chi^2=11.60$, 4) $\chi^2=89.05^{***}$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지역사회 전망

Q 앞으로 2~3년 뒤에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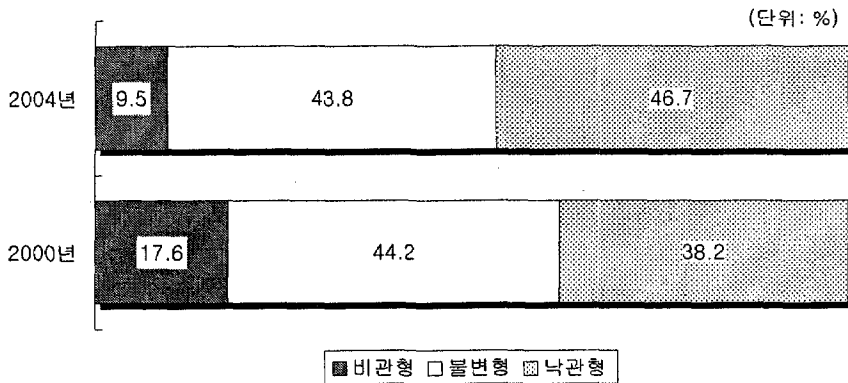
1.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 없을 것이다
4. 좋아질 것이다
5. 훨씬 좋아질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단계별 5점 척도를 통하여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금과 다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3.8%로서 다수였고, 이어서 “좋아질 것이다”(33.0%), “훨씬 좋아질 것이다”(13.7%), “나빠질 것이다”(6.8%)의 순이었으며 “훨씬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였다(2.7%).

응답항목을 “비관형”(1, 2), “불변형”(3), “낙관형”(4, 5)으로 재구성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면, 낙관형이 46.9%로서 절반에 가까웠고 비관형의 응답률은 1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9.5%).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비관형은 17.6%에서 9.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낙관형은 상승하여, 지역사회의 전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36] 지역사회 전망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지역사회 전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의 48.7%가 자기 동네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남자의 낙관형 응답률(44.6%)을 상회하였다. 이밖에 교급별로는 중학생, 지역별로는 서울, 계층별로는 상층의 낙관형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낙관형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여자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에 비해 낙관형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2000년 조사에서는 시군부의 낙관형 비율이 40.5%로서 서울·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광역시의 낙관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오히려 시군부보다 높아진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II- 41> 지역사회 전망

(단위: %)

		2004 년		2000 년	
		비관형	낙관형	비관형	낙관형
성별 ¹⁾	남자	11.6	44.6	20.2	38.5
	여자	7.4	48.7	15.1	37.8
교급 ²⁾	중학생	10.2	48.6	17.5	43.5
	고교생	8.9	44.9	17.9	32.7
지역 ³⁾	서울	9.4	49.8	18.0	39.2
	광역시	10.2	47.1	17.6	34.1
	시군부	9.2	45.3	17.6	40.5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2.25^{***}$, 2) $\chi^2=8.67$, 3) $\chi^2=9.37$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나. 사회현실 인식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

Q 우리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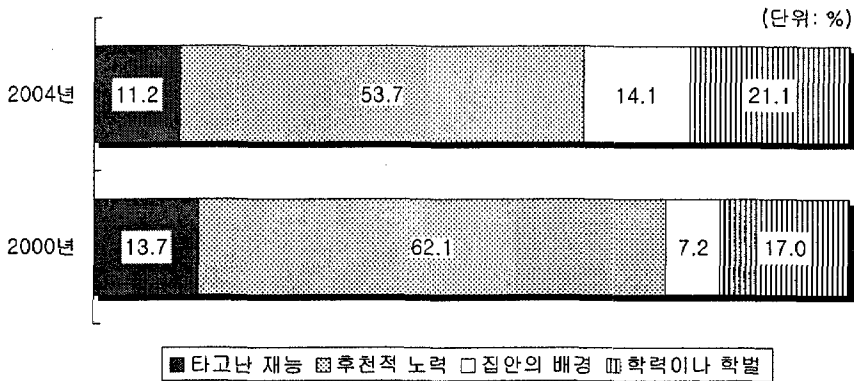
1. 개인의 타고난 재능
2. 개인의 후천적 노력
3. 집안의 배경
4. 학력이나 학벌

우리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두 4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후천적 노력”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3.7%에 달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력

이나 학벌”(21.1%), “집안의 배경”(14.1%)의 순이었으며,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1.2%로서 가장 적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개인의 재능이나 후천적 노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지적한 청소년은 감소한 반면, “집안의 배경”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학력이나 학벌”의 응답률도 소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집안이나 학벌과 같은 배경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III- 37]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사회적 성공의 요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III-42>). 먼저 성별로는 남자는 개인적 요인(재능·노력), 여자는 배경적 요인(집안배경과 학력·학벌)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급별로는 학력·학벌이라고 응답한 고교생이 26.4%에 달하여 중학생의 응답률(15.7%)과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계층별 응답결과에서는 하층은 집안배경, 중간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 상층은 학력·학벌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 집단이 처해 있는 배경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인인식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 집안배경이나 학력·학벌과 같은 배경적 요인의

응답률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변인 중에서 특히 계층별 응답결과의 변화양상이 주목되는데, 하층의 경우에는 집안배경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1993년의 7.3%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0.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층은 11.6%).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성공이 개인의 자질과는 무관한 배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내부에서도 점차 계층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 42>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단위: %)

		2004 년			1993 년		
		재능 노력	집안 배경	학력 학벌	재능 노력	집안 배경	학력 학벌
성별 ¹⁾	남자	68.7	11.8	19.6	77.6	7.1	15.3
	여자	61.3	16.3	22.5	73.9	7.3	18.8
교급 ²⁾	중학생	77.0	7.3	15.7	83.3	4.3	12.4
	고교생	52.7	20.8	26.4	68.2	10.1	21.7
계열 ³⁾	인문고	48.5	21.5	30.0	65.3	10.1	24.7
	실업고	62.1	19.4	18.5	73.3	10.3	16.4
계층 ⁴⁾	하	61.0	20.3	18.7	78.8	7.3	13.9
	중	66.7	13.1	20.1	74.1	7.7	18.1
	상	63.7	11.6	24.6	75.2	6.1	18.7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6.25^{***}$, 2) $\chi^2=245.74^{***}$, 3) $\chi^2=34.98^{***}$, 4) $\chi^2=33.62^{***}$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사회현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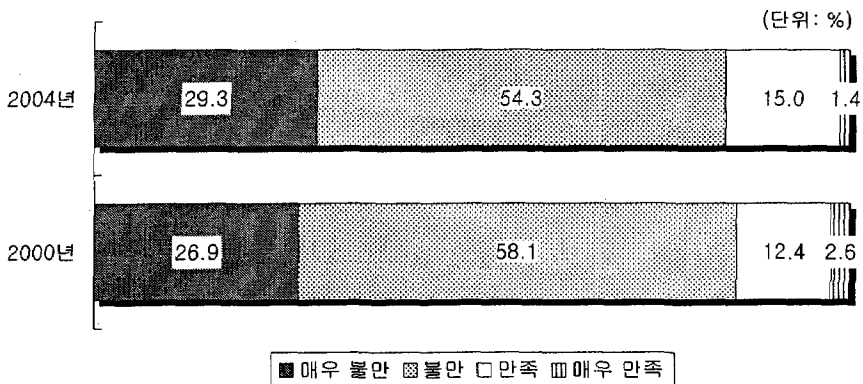
Q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불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4.3%로서 과반수를 넘었고, 이어서 “매우 불만이다”(29.3%), “만족한다”(15.0%)의 순이었으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4%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83.6%가 사회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만족을 표시한 청소년은 16.4%에 머물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각 항목별 응답률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유사하였지만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5.0%→ 83.6%).

[그림 III- 38] 사회현실 만족도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의 응답결과는 모든 변인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교생,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보다는 인문계 고교생이 사회현실에 대하여 불만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서울·광역시)가 시군부에 비해 불만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계층별로는 불만 응답률이 하층이 91.0%에 달하여 8할 안팎의 중·상층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 변인별 하위집단의 응답률 분포는 이번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 43> 사회현실 만족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불만	만족	불만	만족
성별 ¹⁾	남자	80.0	20.0	83.7	16.3
	여자	87.0	13.0	86.3	13.7
교급 ²⁾	중학생	75.1	24.9	80.7	19.3
	고교생	92.0	8.1	89.4	10.6
지역 ³⁾	서울	85.6	14.4	88.6	11.4
	광역시	85.8	14.2	87.0	13.0
	시군부	81.5	18.4	82.0	18.0
계층 ⁴⁾	하	91.0	9.0	89.3	10.7
	중	81.6	18.4	84.3	15.7
	상	84.5	15.5	85.1	14.9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68.83^{***}$, 2) $\chi^2=210.12^{***}$, 3) $\chi^2=17.67^{**}$, 4) $\chi^2=53.13^{***}$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사회변화 전망

Q 앞으로 2~3년 뒤에 우리사회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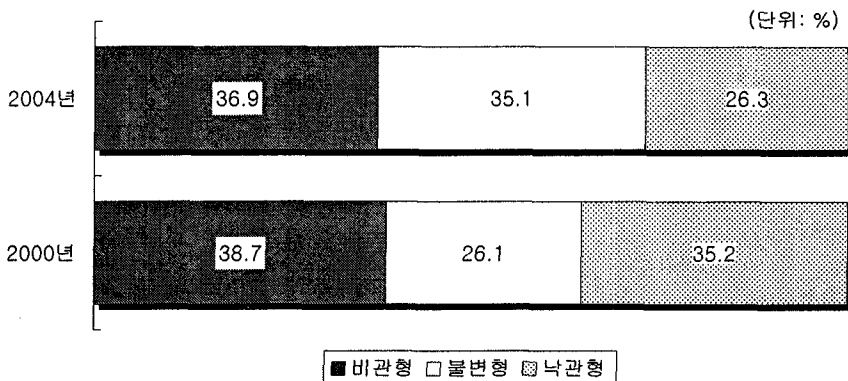
1.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 없을 것이다
4. 좋아질 것이다
5. 훨씬 좋아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단계별 5점 척도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5.1%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나빠질 것이다”(27.4%), “좋아질 것이다”(20.7%), “훨씬 나빠질 것이다”(11.2%)의 순이었으며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6%로서 가장 적었다.

응답항목을 각각 “비관형”(1, 2), “불변형”(3), “낙관형”(4, 5)으로 재분류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면, 비관형이 38.6%로서 낙관형(26.3%)의 비율을 상회하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비관형의 비율은 이번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불변형이 큰 폭으로 감소한 한편 낙관형도 감소추세를 나타내어(35.2%→ 26.3%), 전체적으로 사회변화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시각이 좀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39] 사회변화 전망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사회변화 전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낙관형의 비율은 남녀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비관형은 남자가 41.5%로서 여자(35.9%)보다 많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은 비관형과 낙관형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반면(34.9% : 33.9%), 고교생은 비관형이 다수를 차지하여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시군부 청소년들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사회변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으며, 계층별로는 비관형의 비율이 하층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사회변화 전망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사회현실 만족도 문항과 유사한 응답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사회현실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변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낙관형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교생(교급)과 상층(계층)의 감소폭(각각 31.1%→18.6%, 39.4%→26.9%)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 44> 사회변화 전망

(단위: %)

		2004 년		2000 년	
		비관형	낙관형	비관형	낙관형
성별 ¹⁾	남자	41.5	26.6	39.8	34.2
	여자	35.9	25.9	37.5	36.3
교급 ²⁾	중학생	34.9	33.9	38.2	39.1
	고교생	42.4	18.6	39.2	31.1
지역 ³⁾	서울	38.5	25.8	41.3	35.6
	광역시	41.9	22.2	42.2	30.5
	시군부	36.9	28.7	35.0	38.2
계층 ⁴⁾	하	43.3	19.6	44.0	26.7
	중	38.3	27.3	37.5	35.6
	상	37.2	26.9	36.8	39.4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43.56^{***}$, 2) $\chi^2=126.04^{***}$, 3) $\chi^2=24.77^{**}$, 4) $\chi^2=23.71^{**}$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다. 국가에 대한 인식

국가와 자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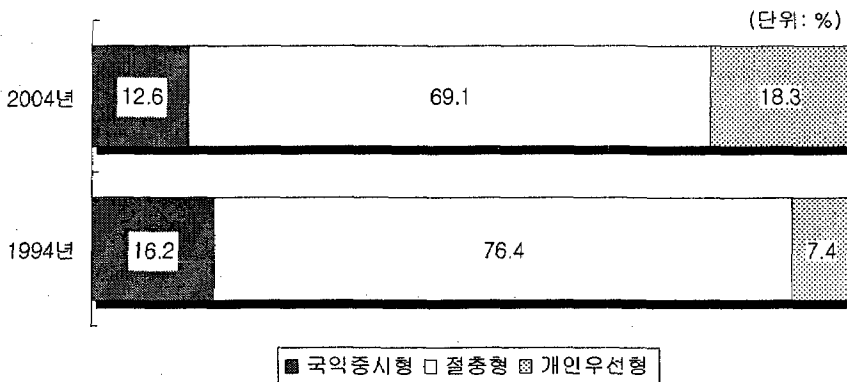
Q 국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태도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

1.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
2.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를 위해 공헌하겠다
3. 국가의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 이익과 개인 이익의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각기 상이한 세 가지 유형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를 위해 공헌하겠다는 청소년이 69.1%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12.6%)보다는 개인 이익이 중요하다는 응답률(18.3%)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응답항목을 “국익중시형”(1), “절충형”(2), “개인우선형”(3)으로 명명하고 1994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 40] 국가와 자신의 관계



국익중시형은 소폭으로 감소한 한편(16.2%→ 12.6%) 개인우선형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7.4%→ 18.3%), 추상적인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주의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절충형의 비율이 크게 감소(76.4%→ 69.1%)한 것은 사회·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표현이 보다 직설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국익중시형의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많은 한편(16.1% : 9.2%) 여자는 절충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급별로는 국익우선형의 비율이 중학생이 고교생의 세 배 수준에 달하였다(18.6% : 6.6%).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인문계에 비해 개인우선형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7.5% : 18.8%), 계층별로는 하층은 개인우선형, 상층은 절충형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III- 45>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

(단위: %)

		국익중시형	절충형	개인우선형
성별 ¹⁾	남자	16.1	64.6	19.3
	여자	9.2	73.4	17.3
교급 ²⁾	중학생	18.6	66.4	15.0
	고교생	6.6	71.8	21.6
계열 ³⁾	인문고	6.8	74.4	18.8
	실업고	6.2	66.2	27.5
계층 ⁴⁾	하	10.8	67.5	21.7
	중	13.4	68.9	17.6
	상	11.1	72.0	17.0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43.62^{***}$, 2) $\chi^2=121.81^{***}$, 3) $\chi^2=16.74^{***}$, 4) $\chi^2=10.19^*$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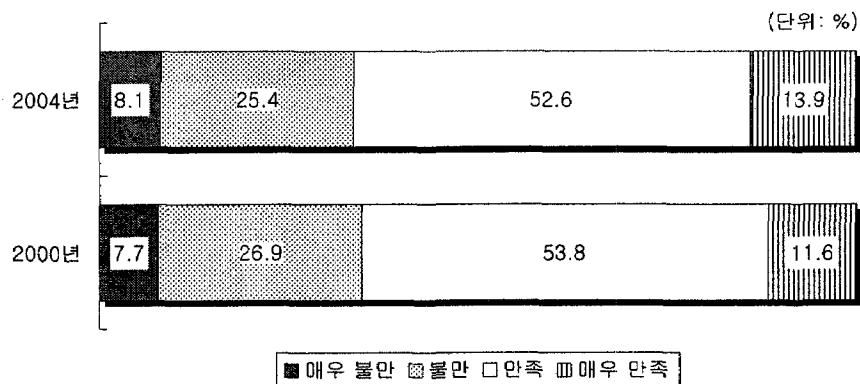
Q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는지 단계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절반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52.6%), 다음으로 “불만이다”(25.4%), “매우 만족한다”(13.9%)의 순이었고 “매우 불만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1%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6.5%로서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33.5%)의 두 배 이상에 달하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한국으로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소폭으로 증가(65.4%→ 66.5%)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41]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 응답률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만족 응답률이 75.9%에 달하는 반면 고교생은 57.1%에 머물러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인문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고, 계층별로는 만족 응답률이 중간층이 가장 높고(68.3%) 다음으로 상층(65.0%), 하층의 순이었다(61.8%).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자의 만족 응답률이 정체상태인 반면 남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4년 전에는 중·고교생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의 만족도는 1할 이상 증가한 반면 고교생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2000년 조사에서는 서울의 만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다른 두 지역과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의 만족 응답률은 감소하고 상층은 증가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III- 46>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불만	만족	불만	만족
성별 ¹⁾	남자	32.2	67.8	34.5	65.5
	여자	34.8	65.3	34.7	65.3
교급 ²⁾	중학생	24.1	75.9	35.1	64.9
	고교생	42.8	57.1	34.1	65.9
계층 ³⁾	하	38.2	61.8	33.5	66.5
	중	31.7	68.3	32.1	67.9
	상	35.0	65.0	40.3	59.7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69.39^{***}$, 2) $\chi^2=189.39^{***}$, 3) $\chi^2=19.04^{**}$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라. 통일관

바람직한 통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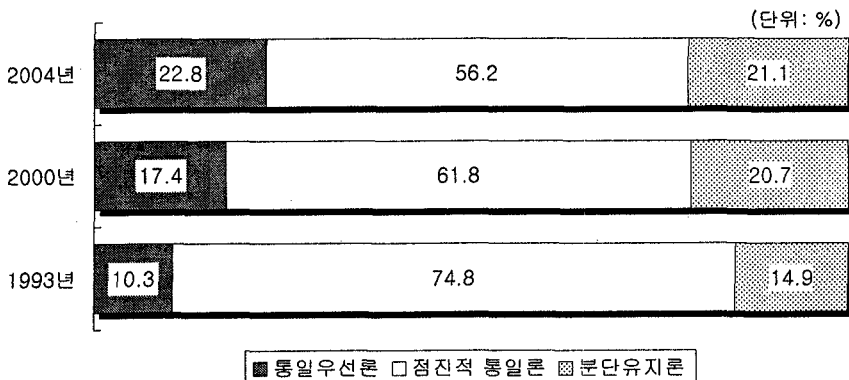
Q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것과 가장 가깝습니까 ?

1.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2.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세가지 유형의 통일관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의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여 다수였으며(56.2%),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와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의 응답률은 2할대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각각 22.8%, 21.1%).

각 응답항목을 “통일우선론”(1), “점진적 통일론”(2), “분단유지론”(3)으로 명명하고 1993년·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 42] 통일관



주: 1993년에는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중에서 “잘 모르겠다”(3.3%)는 제외함

통일우선론은 지난 10여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10.3%→ 17.4%→ 22.8%) 분단유지론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14.9%→ 20.7%→ 21.1%), 점진적 통일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이 중간적인 입장(점진적 통일론)은 점차 약화되면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입장(통일우선론과 분단유지론)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점진적 통일론이 과반수를 점하였지만 통일우선론과 분단유지론의 비율에서 각 변인별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II- 47> 통일관

(단위: %)

		2004 년			1993 년		
		통일 우선론	점진적 통일론	분단 유지론	통일 우선론	점진적 통일론	분단 유지론
성별	남자	28.9	53.3	17.8	14.3	73.9	11.7
	여자	16.8	58.9	24.2	6.3	75.7	18.0
교급	중학생	26.2	53.0	20.8	12.5	71.1	16.4
	고교생	19.4	59.3	21.3	8.1	78.5	13.4
계열	인문고	18.8	62.3	18.9	8.0	79.9	12.2
	실업고	20.7	52.7	26.6	8.2	76.1	15.6
지역	서울	25.4	54.2	20.4	9.6	73.0	17.4
	광역시	22.3	55.9	21.8	8.9	76.1	15.0
	시군부	22.0	57.1	20.9	11.3	75.1	13.6
계층	하	23.3	55.7	21.0	10.6	77.0	12.4
	중	23.7	54.4	21.9	10.6	75.3	14.2
	상	21.0	59.5	19.5	9.7	70.1	20.2

성별로는 남자는 통일우선론이 분단유지론보다 다수인 반면 여자는 분단유지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통일우선론 응답률이 26.2%로서 고교생(19.4%)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통일우선론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분단유지론 응답률은 실업계가 월등

하게 많았으며 인문계는 점진적 통일론이 6할을 상회하였다. 이밖에 서울(지역), 중·하층(계층)의 통일우선론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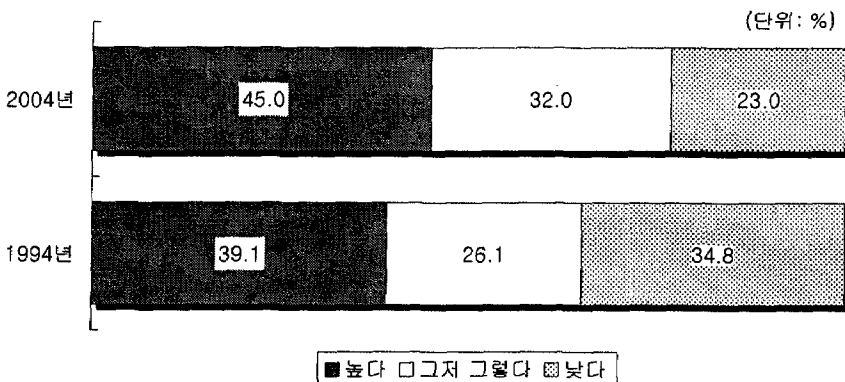
북한 무력침공 가능성 평가

Q 북한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높다
2. 비교적 높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낮다
5. 매우 낮다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단계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4.6%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그저 그렇다”(32.0%), “대체로 낮다”(14.6%), “매우 높다”(10.4%)의 순이었고 “매우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5%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5.0%로서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23.1%)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그림 III- 43]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1994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높다는 응답률은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39.1%→ 45.0%) 낮다는 응답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4.8%→ 23.1%). 9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되어 온 지속적인 남북한간 교류·협력 분위 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북한의 위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높다는 응답률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남자가 28.3%로서 여자(18.1%)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교급별로는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교생 이 중학생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고(46.1% : 43.7%),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아니었다.

1994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고 교생보다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표 III- 48>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

(단위: %)

		2004 년		1994 년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성별 ¹⁾	남자	46.9	28.3	38.3	36.9
	여자	43.0	18.1	40.0	32.7
교급 ²⁾	중학생	43.7	22.8	41.9	29.5
	고교생	46.1	23.3	36.4	40.2
계층 ³⁾	하	50.0	21.2	39.0	32.1
	중	45.4	22.8	39.5	33.9
	상	42.3	23.9	38.2	39.2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140.19^{***}$, 2) $\chi^2=14.23^{**}$, 3) $\chi^2=11.55$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통일의 예상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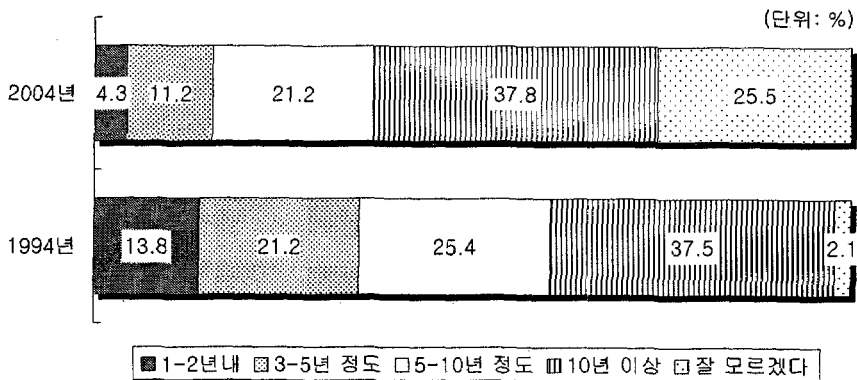
Q 언제쯤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

1. 1~2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2. 3~5년 정도 걸릴 것이다
3. 5~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4.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5. 잘 모르겠다

통일의 예상시기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7.8%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10년 정도”(21.2%), “3~5년 정도”(11.2%)의 순이었고 “1~2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머물렀다(4.3%).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도 1/4에 달하였다(25.5%).

같은 질문문항에 대한 1994 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2.1%에서 25.5%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2년 이내”와 “3~5년 정도”의 단기간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44] 통일의 예상시기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여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남자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교급별로는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의 응답률이 중학생은 28.6%에 머문 반면 고교생은 46.9%에 달하여 연령층이 높은 집단일수록 통일을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문계가 통일의 시기를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표 III- 49> 통일의 예상시기

(단위: %)

		1~2년 내	3~5년 정도	5~10년 정도	10년 이상	잘 모름
성별 ¹⁾	남자	5.4	12.7	20.6	39.8	21.5
	여자	3.2	9.7	21.9	35.8	29.4
교급 ²⁾	중학생	7.1	15.9	20.6	28.6	27.8
	고교생	1.5	6.5	21.9	46.9	23.3
계열 ³⁾	인문고	1.0	5.4	23.6	50.7	19.3
	실업고	2.6	8.8	18.1	38.6	31.9

통계: 1) $\chi^2=41.89^{***}$, 2) $\chi^2=216.20^{***}$, 3) $\chi^2=54.84^{***}$

4. 교우관계 · 생활 일반

가. 교우관계

동성 · 이성 친구 유무

Q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친구(들)은 동성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동성: 자신이 남자인 경우 남자친구, 이성: 자신이 남자인 경우 여자친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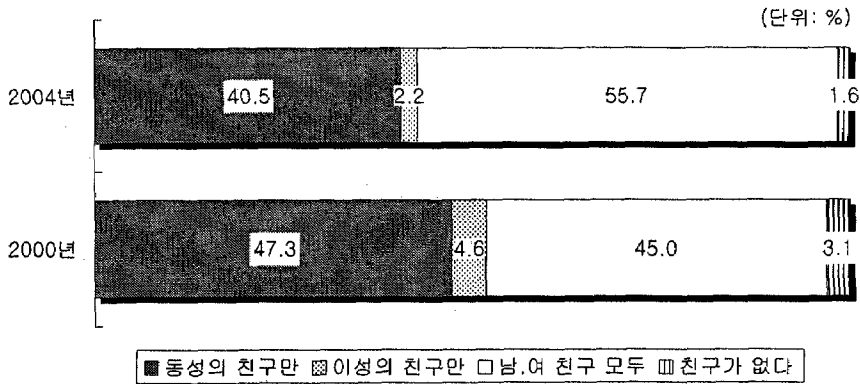
1. 동성의 친구만 있다
2. 이성의 친구만 있다
3. 남자 · 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
4.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친구가 동성인지 아니면 이성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남자 · 여자 친구가 모두 있는 청소년이 55.7%로서 다수였고, 동성 친구만 있는 경우가 40.5%에 달하는 반면 이성 친구만 있는 청소년은 극소수(2.2%)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동성 친구만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감소한 반면(47.3%→ 40.5%), 남자 · 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는 응답률은 크게 증가하였다(45.0%→ 55.7%). 서구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동성에만 편중된 것이 특징적이다²⁰. 아직도 이성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지만,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구분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²⁰ 2003년 일본 내각부에서 시행한 국제비교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성 친구만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18~24세)의 비율이 한국은 39.0%에 달하여 미국(13.9%), 스웨덴(24.2%), 독일(7.6%)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內閣府, 2004: 97).

[그림 III-45] 동성·이성 친구 유무



동성·이성 친구 유무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표 III-50>과 같다. 성별로는 동성 친구만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남자가 46.3%로서 여자(34.8%)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고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61.4% : 49.8%).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에 비해 이성 친구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에 비해 시군부 청소년들의 교우관계가 동성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는 청소년이 많은 반면 동성 친구만 있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동성 친구만 있다는 응답률은 줄어들고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는 응답률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년 전에는 서울·광역시 청소년들이 동성 친구만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 50> 동성·이성 친구 유무

(단위: %)

		2004 년		2000 년	
		동성의 친구만	남자, 여자 친구 모두	동성의 친구만	남자, 여자 친구 모두
성별 ¹⁾	남자	46.3	49.8	51.5	40.0
	여자	34.8	61.4	43.0	50.2
계열 ²⁾	인문고	41.8	55.6	48.9	44.9
	실업고	34.0	59.9	41.1	51.1
지역 ³⁾	서울	38.0	58.7	49.7	43.5
	광역시	38.2	57.2	48.4	43.8
	시군부	42.6	53.7	45.5	46.5
계층 ⁴⁾	하	41.7	52.4	45.2	46.2
	중	41.2	55.5	48.5	44.0
	상	39.1	58.2	47.1	46.4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69.39^{***}$, 2) $\chi^2=19.41^{***}$, 3) $\chi^2=13.99^*$, 4) $\chi^2=16.72^*$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학교친구와 동네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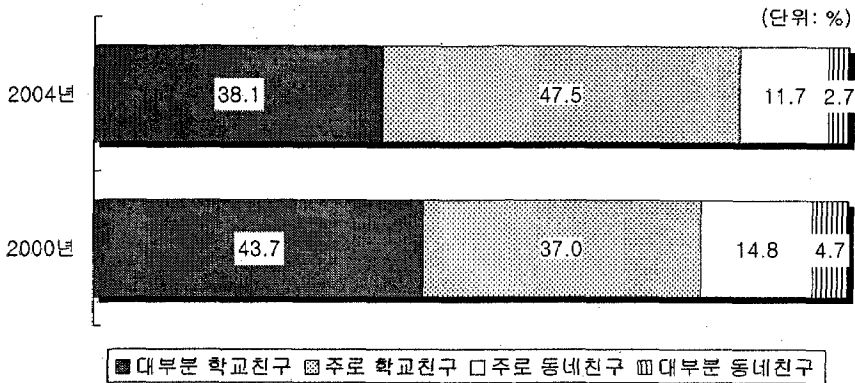
Q 친구를 학교친구(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와 동네친구(동네에 알게 된 친구)로 구분할 때, 당신은 주로 어느 쪽 친구와 어울리십니까?

1. 대부분 학교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2. 학교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3. 동네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4. 대부분 동네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친구를 학교친구와 동네친구로 구분할 때 주로 어느쪽과 어울리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학교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가 47.5%였고 “대부분 학교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는 응답도 38.1%로서 학교친구의 응답률이 85.6%에 달하는 반면, 주로 동네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은 14.4%에 머물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동네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은 감소하였고, 학교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이 80.7%에서 85.6%로 소폭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학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동네친구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그 자리를 학교친구가 대체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 46] 자주 어울리는 친구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모든 변인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우관계에 있어서 학교친구 편중현상은 성별로는 여자,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보다 심한 수준이었다. 계열별로는 주로 학교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이 인문계가 87.0%로서 실업계(77.2%)보다 1할 정도 높았는데, 입시준비로 인하여 인문계 고교생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별로는 도시화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동네친구의 비중이 높으리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주로 학교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이 시군부가 대도시(서울·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중·하층과 비교하여 상층 청소년들이 학교친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지역별 하위집단의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계열별로는 4년 전에는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에 비해 학교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2000년 조사에서는 계층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중·하층과 비교하여 상층 청소년의 학교친구 편중현상이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 51> 자주 어울리는 친구

(단위: %)

		2004 년		2000 년	
		학교친구	동네친구	학교친구	동네친구
성별 ¹⁾	남자	82.3	17.7	75.6	24.4
	여자	88.8	11.2	85.4	14.6
교급 ²⁾	중학생	87.3	12.7	84.6	15.5
	고교생	83.9	16.1	76.3	23.8
지역 ³⁾	서울	82.3	17.6	78.3	21.7
	광역시	83.3	16.7	77.5	22.5
	시군부	88.1	11.9	83.4	16.6
계층 ⁴⁾	하	84.2	15.8	80.4	19.7
	중	84.5	15.5	80.3	19.7
	상	88.9	11.2	81.7	18.3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31.86^{***}$, 2) $\chi^2=8.60^*$, 3) $\chi^2=34.38^{***}$, 4) $\chi^2=16.89^*$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

Q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과 어느 정도 자주 어울려 시간을 보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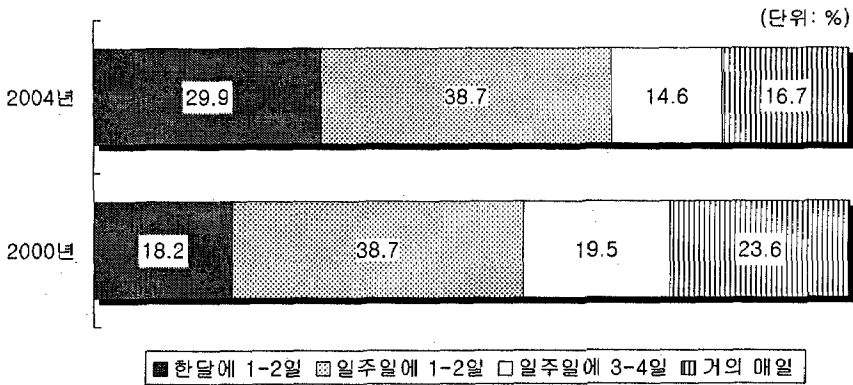
1. 한달에 1~2일 정도
2. 일주일에 1~2일 정도
3. 일주일에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일주일에 1~2일 정도”가 38.7%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한달에 1~2일 정도”(29.9%), “거의 매일”(16.7%)의 순이

었으며 “일주일에 3~4일 정도”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4.5%로 가장 적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3~4일 정도”의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 “한달에 1~2일 정도”의 응답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 47]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



친구와의 접촉빈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거의 매일” 만났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인문계가 7.3%에 불과하여 실업계 응답률(24.8%)의 1/3에도 못미치는데, 대입준비를 위한 여가시간의 부족이 그 주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서울(지역), 중·하층(계층) 청소년들의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중학생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00년 조사에서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한달에 1~2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시·시군부는 크게 증가한 반면 서울은 소폭 증가에 머물러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표 III- 52>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한달에 1~2 일	일주일에 1~4 일	거의 매일	한달 1~2 일	일주일에 1~4 일	거의 매일
성별 ¹⁾	남자	25.9	56.5	17.5	15.6	57.6	26.8
	여자	33.8	50.3	15.9	20.8	58.8	20.3
교급 ²⁾	중학생	25.4	53.9	20.6	19.9	58.4	21.6
	고교생	34.4	52.8	12.8	16.4	58.0	25.7
지역 ³⁾	서울	22.4	62.8	14.8	17.6	61.4	21.0
	광역시	32.3	51.8	16.0	19.8	55.8	24.3
	시군부	31.6	50.5	17.9	17.4	58.4	24.3
계층 ⁴⁾	하	29.0	50.9	20.1	16.4	54.8	28.7
	중	28.5	52.8	18.6	16.9	57.2	25.9
	상	33.7	54.9	11.4	21.5	62.7	15.8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5.33^{***}$, 2) $\chi^2=81.40^{***}$, 3) $\chi^2=41.13^{***}$, 4) $\chi^2=36.59^{***}$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친구의 자기이해도

Q 친구들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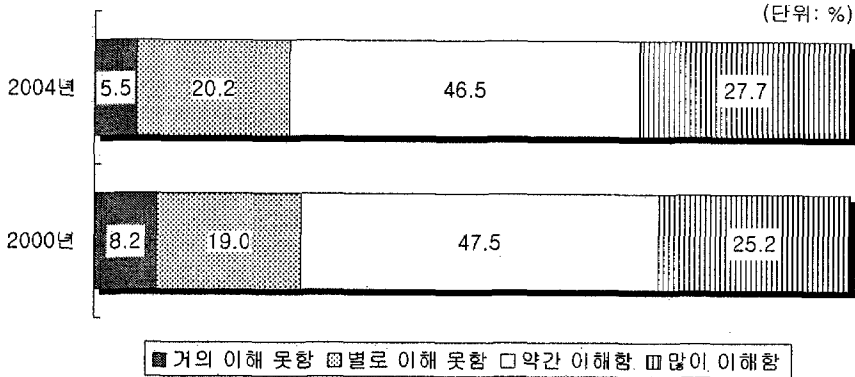
1.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3. 약간 이해하고 있다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친구들이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약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6.5%로서 다수였고, 이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27.7%),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20.2%)의 순이었으며,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5%에 머물러 가장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약간 또는 많이)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74.2%에 달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

를(25.7%)의 세 배 수준에 달하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친구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소폭으로 증가(72.7%→74.2%)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48] 친구들의 자기이해도



친구들의 자기이해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표 III-53>과 같다.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성별로는 여자(77.8%)가 남자(70.6%)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76.9%)이 중학생(71.6%)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79.1%)가 실업계(7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상층의 80%가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하층은 68.2%에 머물렀다.

2000년 조사에서도 성·교급·계열별 하위집단의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은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소폭으로 감소하였고 중간층은 거의 변함이 없는 한편 상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계층별 응답결과의 변화양상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표 III- 53> 친구들의 자기 이해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고 있다
성별 ¹⁾	남자	29.4	70.6	28.7	71.3
	여자	22.3	77.8	25.8	74.2
교급 ²⁾	중학생	28.4	71.6	28.4	71.6
	고교생	23.1	76.9	26.1	73.9
계열 ³⁾	인문고	20.8	79.1	23.8	76.2
	실업고	28.0	72.0	29.4	70.6
계층 ⁴⁾	하	31.9	68.2	29.5	70.5
	중	26.9	73.2	26.9	73.1
	상	20.0	80.0	25.2	74.8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31.74^{**}$, 2) $\chi^2=17.52^{**}$, 3) $\chi^2=13.84^{**}$, 4) $\chi^2=39.89^{***}$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교우관계 만족도

Q 현재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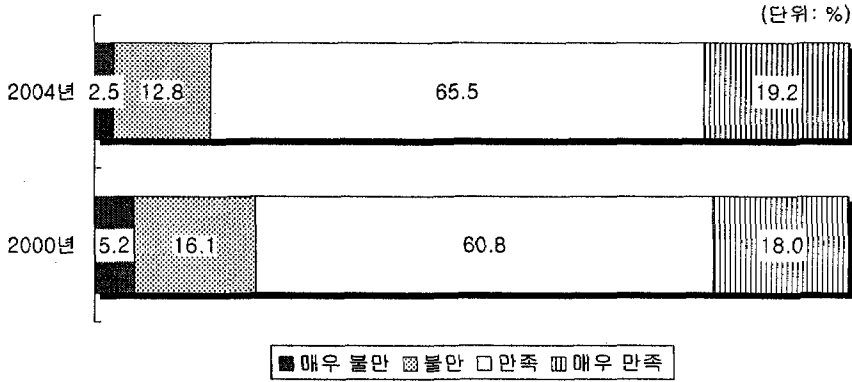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현재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단계별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5.5%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만족한다”(19.2%), “불만이다”(12.8%)의 순이었고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였다(2.5%).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만족 응답률이 78.8%에서 84.7%로 증가한 반면 불만 응답률은 감소하여 지난 4년간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만족도

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49] 교우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전체 만족 응답률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매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은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 54> 교우관계 만족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불만	만족	불만	만족
성별 ¹⁾	남자	13.9	86.1	19.7	80.3
	여자	16.7	83.3	22.8	77.2
교급 ²⁾	중학생	15.6	84.4	21.5	78.6
	고교생	15.1	84.9	21.0	79.0
계열 ³⁾	인문고	13.4	86.6	20.4	79.6
	실업고	18.9	81.1	21.9	78.1
계층 ⁴⁾	하	20.6	79.4	24.0	76.1
	중	15.6	84.3	19.9	80.0
	상	11.4	88.5	21.0	79.0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6.74$, 2) $\chi^2=15.48^{**}$, 3) $\chi^2=10.47^*$, 4) $\chi^2=34.14^{***}$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에 비해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더 많았고, 계층별로는 만족 응답률이 상층이 가장 높고 하층이 가장 낮았다. 앞서 친구의 자기이해도와 마찬가지로 친구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도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4년 전에는 계열·계층 변인의 하위집단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인문계(계열) 및 상층(계층) 청소년의 만족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다른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나. 여가생활

한달 평균 용돈

Q 당신의 한달 평균 용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약 ()만 ()천원

청소년들의 한달 평균 용돈이 얼마인지를 천원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한달 용돈은 평균 42,906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36,639원, 1993년에는 22,450원이었다.

한달 용돈의 평균값을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표 III-55>와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용돈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화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용돈 액수가 증가하여 서울과 시군부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의 용돈액수가 중·하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 55> 한달 평균 용돈

(단위: 원)

		2004 년	2000 년	1993 년
전체		42,906	36,639	22,450
성별 ¹⁾	남자	41,374	39,420	21,886
	여자	44,361	33,778	23,019
교급 ²⁾	중학생	30,704	29,952	15,568
	고교생	55,245	43,472	29,367
계열 ³⁾	인문고	50,330	43,698	29,068
	실업고	66,496	43,118	29,906
지역 ⁴⁾	서울	48,751	38,009	29,267
	광역시	43,779	38,885	21,424
	시군부	40,215	34,403	19,586

통계: 1) F=4.49*, 2) F=334.35***, 3) F=41.45***, 4) F=10.87***

클럽 · 동아리활동 경험

Q 학교의 정규 클럽활동 이외에 교내 또는 교외의 클럽이나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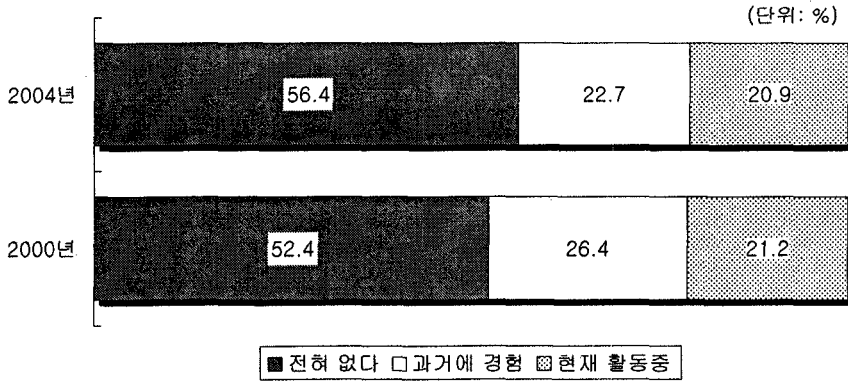
1. 전혀 없다
2.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다
3. 현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 교과과정 이외의 클럽이나 동아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과반수가 클럽 · 동아리 활동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56.4%),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2.7%,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5 수준이었다(20.9%).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이번 조사와 거의 동일하였지만, 활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공부 이외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클럽 · 동아리활동

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 50] 클럽·동아리활동 경험



청소년들의 클럽·동아리 활동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교급·계열·계층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II- 56> 클럽·동아리 활동 경험

(단위: %)

		2004 년		2000 년	
		전혀 없다	현재 활동	전혀 없다	현재 활동
성별 ¹⁾	남자	58.4	20.5	53.3	19.9
	여자	54.5	21.2	51.5	22.5
교급 ²⁾	중학생	65.4	11.4	57.1	16.2
	고교생	47.4	30.3	47.5	26.3
계열 ³⁾	인문고	45.2	34.6	43.7	29.6
	실업고	52.2	21.1	53.2	21.4
계층 ⁴⁾	하	56.8	21.9	55.2	21.1
	중	58.6	19.6	55.1	19.8
	상	52.5	22.3	44.2	25.0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6.47^*$, 2) $\chi^2=199.54^{***}$, 3) $\chi^2=33.58^{***}$, 4) $\chi^2=10.49^*$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성별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남자가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활동경험자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의 34.6%가 현재 활동 중이라고 응답하여 실업계보다 1할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현재 활동중인 청소년의 비율은 세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활동경험자는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활동경험자가 증가하였으나 남자의 증가폭이 더 큰 수준이었다. 교급별·계열별 하위집단의 응답 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고 계층별로는 세 집단 모두 활동경험자가 감소하였고 상층과 중·하층간의 경험자 비율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휴일날 소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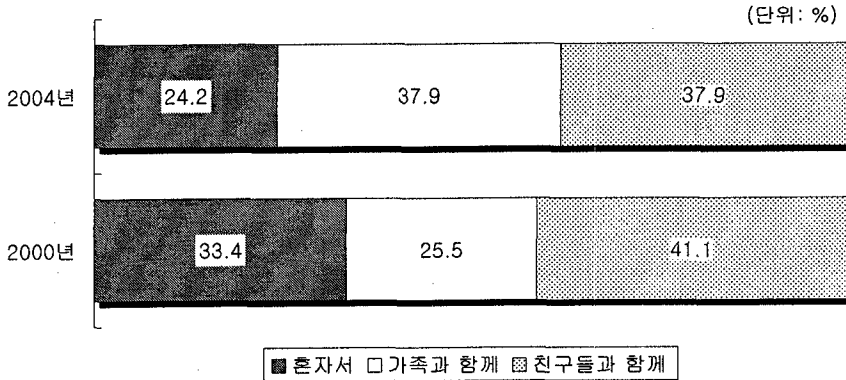
Q 공휴일 등 쉬는 날에 주로 누구와 함께, 어디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2. 가족과 어울려 집에서 지낸다
3. 혼자 외출을 한다
4. 가족과 함께 외출을 한다
5.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쉬는 날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여가를 보내는지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가 37.9%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어울려 집에서 지낸다”(28.2%),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20.9%), “가족과 함께 외출을 한다”(9.7%)의 순이었으며 “혼자 외출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였다(3.3%). 동반자를 기준으로 응답항목을 재분류하면, 휴일을 “혼자서”(응답항목 1,3) 보내는 청소년이 24.2%, “가족과 함께”(2, 4) 보내는 청소년이 37.9%,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청소년이 37.9%임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휴일을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청소년은 감소한 반면,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25.5%→37.9%).

[그림 III- 51] 휴일날 여가시간 동반자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표 III-57>과 같다. 성별로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청소년의 비율은 남녀가 비슷하였지만 남자는 혼자서, 여자는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은 가족과 함께, 고교생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혼자서 보낸다는 응답률은 감소하는 한편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률은 증가하였다. 상층의 경우에는 혼자서 보내는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청소년의 절반에도 못미쳤지만(18.2% : 45.2%) 하층은 반대로 혼자서 보낸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혼자서 보낸다는 응답률은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성별·교급별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결과와 다름이 없었는데, 특히 고교생의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률의 증가폭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었다(18.4%→30.2%). 계층별로는 4년 전의 조사에서는 혼자서 보낸다는 응답률이 세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상층의 응답률이 중·하층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III- 57> 휴일날 여가시간 동반자

(단위: %)

		2004 년			2000 년		
		혼자서	가족과	친구와	혼자서	가족과	친구와
성별 ¹⁾	남자	27.4	34.5	38.1	38.1	20.0	42.0
	여자	21.1	41.2	37.7	28.6	31.1	40.3
교급 ²⁾	중학생	23.9	45.7	30.4	32.7	32.4	35.0
	고교생	24.5	30.2	45.3	34.1	18.4	47.5
계층 ³⁾	하	31.9	28.8	39.3	35.0	19.0	46.0
	중	24.9	36.7	38.4	33.8	24.1	42.1
	상	18.2	45.2	36.6	31.8	32.7	35.5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33.14^{***}$, 2) $\chi^2=135.36^{***}$, 3) $\chi^2=73.47^{***}$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취미·여가생활 장애요인

Q 취미·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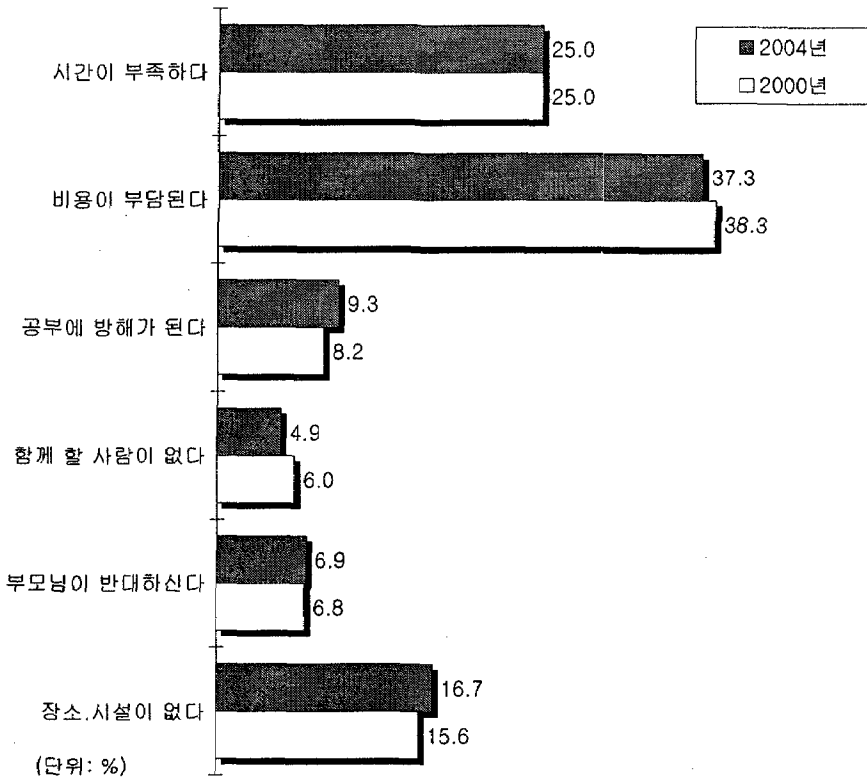
1. 시간이 부족하다
2. 비용이 부담된다
3. 공부에 방해가 된다
4. 함께 할 사람이 없다
5.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6. 적당한 장소·시설이 없다

취미·여가생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두 6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비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7.3%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시간이 부족하다”(25.0%), “적당한 장소·시설이 없다”(16.7%), “공부에 방해가 된다”(9.3%)의

순이었으며 “함께 할 사람이 없다”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4.9%). 비용과 시간 부족이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가장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항목별 응답률의 분포와 순위는 이번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52] 취미·여가생활 장애요인



여가생활의 장애요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표 III-58>과 같다. 남자·중학생은 “함께 할 사람이 없다”의 응답률이 여자·고교생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여자·고교생은 남자·중학생에 비해 “비용이 부담된다”의 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시간 부족과 공부 방해를 지적한 비율이 인문계가 실업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대학입시 준비 부담이 그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계층별로는 중·상층은 시간 부족의 응답률이 하층보다 높은 한편, 하층은 비용 부담의 응답률이 51.9%에 달하여 4할 미만의 응답률을 나타낸 중·상층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표 III- 58> 취미·여가생활 장애요인

(단위: %)

		시간 부족	비용 부담	공부 방해	동반자 없다	부모 반대	장소 시설
성별	남자	25.7	35.3	10.0	6.0	7.2	15.8
	여자	24.3	39.2	8.6	3.8	6.6	17.5
교급	중학생	25.3	31.9	9.0	7.0	8.7	18.1
	고교생	24.7	42.6	9.6	2.8	5.1	15.2
계열	인문고	29.5	36.0	12.3	1.8	5.7	14.7
	실업고	14.3	57.0	3.7	4.9	3.8	16.3
계층	하	14.9	51.9	5.5	7.4	5.1	15.2
	중	25.0	38.1	8.2	4.9	5.5	18.2
	상	30.7	27.7	13.4	2.7	10.0	15.5

여가생활 만족도

Q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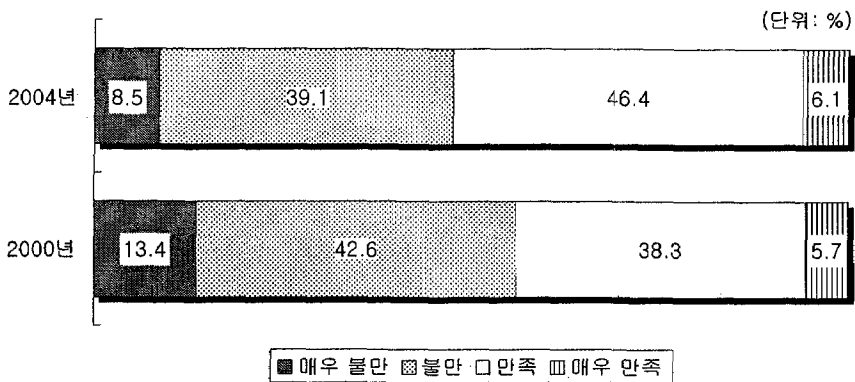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단계별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6.4%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만이다”(39.1%), “매우 불만이다”(8.5%)의 순이었고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1%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현재 자신의 여

가생활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이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었다(52.5% : 47.6%).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만족 응답률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44.0% -> 52.5%) 불만의 응답률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어(56.0% -> 47.6%), 지난 4년간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 53]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계열·계층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각각 여자, 고교생에 비해 만족 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의 53.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불만 응답률이 6월에 달하는 인문계 고교생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군부 청소년의 만족 응답률이 광역시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별로는 중·상층의 만족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 하층은 불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더 많았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만족 응답률이 증가하였고, 성·교급·계열별 응답률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계층별로는 4년 전의 조사에서는 중간층의 만족 응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상층의 만족 응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 59>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불만	만족	불만	만족
성별 ¹⁾	남자	42.4	57.6	51.3	48.7
	여자	52.6	47.5	60.7	39.3
교급 ²⁾	중학생	39.2	60.8	50.7	49.3
	고교생	55.9	44.1	61.5	38.5
계열 ³⁾	인문고	60.0	39.9	64.0	36.1
	실업고	46.9	53.1	57.9	42.2
계층 ⁴⁾	하	51.8	48.2	62.6	37.3
	중	47.2	52.7	52.9	47.1
	상	47.2	52.9	58.5	41.6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45.28^{***}$, 2) $\chi^2=114.23^{***}$, 3) $\chi^2=39.06^{***}$, 4) $\chi^2=15.97^*$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해외여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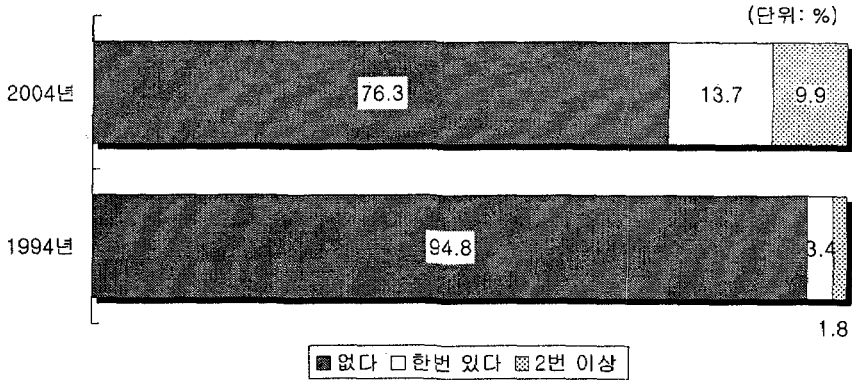
Q 해외(외국) 여행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면 몇번이나 됩니까 ?

1. 한번도 없다
2. 한번 있다
3. 2~3회 있다
4. 4회 이상 있다

청소년들의 해외여행 경험빈도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76.3%였고, 한번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3.7%, 2~3 회 경험자가 6.7%, 4회 이상 다녀 온 청소년이 3.2%였다.

1994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해외여행 경험자가 5.2%에서 23.6%로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54] 해외여행 경험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해외여행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지역·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II- 60> 해외여행 경험

(단위: %)

		2004 년			1994 년	
		없다	한번	2 회 이상	없다	있다
성별 ¹⁾	남자	76.1	14.5	9.4	94.4	5.6
	여자	76.6	12.9	10.5	95.1	4.9
계열 ²⁾	인문고	70.9	16.6	12.5	93.4	6.6
	실업고	86.3	9.1	4.6	98.1	1.8
지역 ³⁾	서울	59.2	19.6	21.2	90.5	9.4
	광역시	77.2	15.5	7.2	95.3	4.8
	시군부	82.6	10.3	7.1	97.0	2.9
계층 ⁴⁾	하	89.2	8.2	2.7	98.4	1.6
	중	83.2	11.5	5.3	96.9	3.0
	상	58.3	20.3	21.4	89.1	11.0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6.20$, 2) $\chi^2=50.13^{***}$, 3) $\chi^2=185.73^{***}$, 4) $\chi^2=324.67^{***}$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특히 지역·계층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서울은 40.8%에 달하는 반면, 광역시와 시군부는 2할 안팎에 머물렀다(22.7%, 17.4%).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외여행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층은 41.7%에 달하였고, 중간층은 16.8%, 하층은 10.9%였다. 특히 상층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해외여행 경험이 한번 있는 청소년과 2회 이상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1994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해외여행 경험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각 변인별 하위집단의 응답률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다. 생활시간·건강

Q 다음은 일상적인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날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잠을 자는 시간
- 2) TV를 보는 시간
- 3) 집·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 4) 여가시간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일날의 평균 수면시간, TV시청시간, 학교밖(집·학원)에서의 공부시간, 여가시간을 분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면시간

청소년들의 평일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분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의 조사에서는 7시간 20분이었는데 4년 동안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19분 정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교급·계열·지역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수면시간이 7시간 35분으로서 고교생(6시간 27분)보다 1시간 이상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6시간 11분)와 실업계(7시간 2분)의 차이가 매우 현격한 수준이었다. 이밖에 성별로는 수면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계층별로는 중간층의 수면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수면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교생의 수면시간은 7시간에서 6시간 27분으로 33분이나 단축되어 4분 단축에 그친 중학생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고교계열별로도 인문계의 수면시간 감소폭이 실업계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4년 전에는 여자의 수면시간이 다소 긴 편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남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61> 하루 평균 수면시간(평일날)

		2004 년		2000 년
		시간	표준편차	시간
전체		7:01	86.00	7:20
성별 ¹⁾	남자	7:00	87.49	7:15
	여자	7:02	84.54	7:24
교급 ²⁾	중학생	7:35	75.93	7:39
	고교생	6:27	82.09	7:00
계열 ³⁾	인문고	6:11	67.45	6:44
	실업고	7:02	98.92	7:24

통계: 1) F=0.43, 2) F=630.25***, 3) F=154.14***

TV시청시간

청소년들의 평일날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은 2시간 3분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의 조사에서는 2시간 50분이었는데,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TV시청시간이 47분 정도 단축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빈도·시간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

된다²¹.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평균 TV시청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와 실업계의 차이가 1시간 정도로서 매우 현저하였다. 계층별로는 중간층과 하층의 시청시간이 동일하였고 상층은 이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하루 평균 TV시청시간(평일날)

		2004 년		2000 년
		시간	표준편차	시간
전체		2:03	88.61	2:50
성별 ¹⁾	남자	1:53	83.86	2:38
	여자	2:13	91.87	3:02
교급 ²⁾	중학생	2:24	88.11	2:51
	고교생	1:43	84.29	2:49
계열 ³⁾	인문고	1:25	70.84	2:35
	실업고	2:23	97.28	3:16
계층 ⁴⁾	하	2:07	91.25	3:05
	중	2:07	90.07	2:54
	상	1:51	79.79	2:30

통계: 1) F=48.157***, 2) F=195.98***, 3) F=193.20***, 4) F=12.73***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하위집단별 TV시청시간의 분포는 이번

²¹ TV시청시간과 인터넷 이용빈도·시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TV와 인터넷은 정보매체로서 서로 경합하는 관계에 있고 점차 새로운 매체로서의 인터넷이 TV·방송의 영향력을 대체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컨대, 1997년 통계청 조사에서 청소년(15~19세)들의 70%가 자신의 주된 정보입수원이 TV·방송이라고 응답했지만(통계청, 1997), 2003년 조사(이종원·이경상·김종길, 2003: 123)에서는 인터넷의 응답률이 69.0%에 달하여 TV·라디오(18.5%), 신문/잡지(3.5%)의 응답률을 압도하였다.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모든 하위집단에서 TV시청시간이 지난 4년간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특히 교급별로는 고교생, 고교계열별로는 인문계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학교밖에서의 공부시간

청소년들이 평일날 집·학원 등 학교밖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11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2시간 27분이었는데 4년 동안 16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학교밖에서의 공부시간만을 조사한 것으로서 학교에서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III- 63> 하루 평균 학교밖에서의 공부시간(평일날)

		2004 년		2000 년
		시간	표준편차	시간
전체		2:11	103.86	2:27
성별 ¹⁾	남자	2:13	104.90	2:25
	여자	2:09	102.83	2:28
교급 ²⁾	중학생	2:47	105.68	2:47
	고교생	1:35	88.53	2:00
계열 ³⁾	인문고	1:53	82.00	2:12
	실업고	0:56	89.70	1:38
지역 ⁴⁾	서울	2:58	118.26	2:28
	광역시	1:57	100.00	2:26
	시군부	2:00	94.22	2:26
계층 ⁵⁾	하	1:25	92.88	1:59
	중	2:07	100.20	2:20
	상	2:45	104.18	2:56

통계: 1) F=1.17, 2) F=471.35***, 3) F=170.69***, 4) F=96.40***, 5) F=120.49***

평일날 집·학원에서의 공부시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위의 표

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의 공부시간이 여자보다 다소 긴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공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교생의 학교 체재시간(수업시간·자율학습시간 등)이 중학생보다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계열별로는 대입을 앞둔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의 두 배 이상에 달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시간 58분으로서 2시간 이하의 다른 두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입시준비 학원 및 그룹과외가 서울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층별 하위집단의 공부시간은 상위계층일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상층이 하층에 비해 2배 이상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교급, 계열별 하위집단의 공부시간 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으나 지역 변인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2000년 조사에서는 서울과 다른 지역의 공부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다른 두 지역은 감소하여 뚜렷한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계층별로는 하층과 상층의 차이가 4년전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청소년들이 평일날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2시간 52분으로서 2000년 조사결과(2시간 54분)와 거의 다름이 없었다.

평일날 여가시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표 III-64>와 같다. 성별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고, 교급별로는 중학생, 고교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인문계에 비해 여가시간이 길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의 여가시간이 가장 길고, 다음이 중간층이며 상층이 가장 짧았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의 여가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며, 계층별 여가시간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표 III- 64>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날)

		2004 년		2000 년
		시간	표준편차	시간
전체		2:52	99.594	2:54
성별 ¹⁾	남자	2:52	100.680	3:05
	여자	2:52	98.553	2:42
교급 ²⁾	중학생	3:04	96.628	2:49
	고교생	2:38	101.017	2:59
계열 ³⁾	인문고	2:09	84.801	2:56
	실업고	3:50	101.690	3:04
계층 ⁴⁾	하	3:10	112.291	3:03
	중	2:51	97.341	2:55
	상	2:39	93.329	2:42

통계: 1) F=0.01, 2) F=52.94***, 3) F=376.41***, 4) F=16.26***

아침결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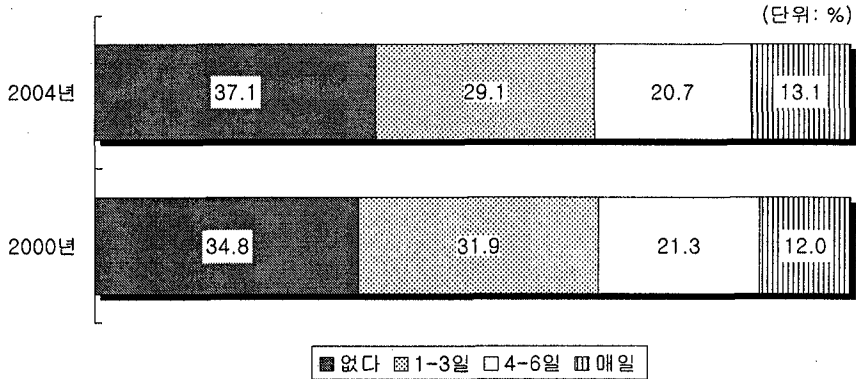
Q 일주일 중 아침식사를 거르는 날(우유·주스 등만을 마시는 것도 포함)은
대략 며칠 정도나 됩니까?

..... () 일

일주일에 아침식사를 거르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아침식사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 청소년은 37.1%로서 전체 청소년의 6할 이상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도 1할을 상회하였다(13.1%).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아침을 거르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매일 거르는 청소년의 비율도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아침결식일의 전체 평균을 산출해 본 결과 2000년의 2.53일에서 2004년에는 2.55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55] 일주일 중 아침결식 일수



청소년들의 아침결식일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계열별로는 실업계보다 인문계 청소년들의 결식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의 결식일 평균이 2.21일임에 비해 하층은 3.04일에 달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 65> 일주일 중 아침결식 일수

		2004 년		2000 년	
		평균(일)	표준편차	평균(일)	표준편차
전체		2.55	2.61	2.53	2.54
성별 ¹⁾	남자	2.38	2.59	2.15	2.48
	여자	2.71	2.63	2.91	2.56
교급 ²⁾	중학생	2.22	2.49	2.28	2.46
	고교생	2.87	2.69	2.78	2.60
계열 ³⁾	인문고	2.47	2.56	2.45	2.56
	실업고	3.75	2.76	3.28	2.59
계층 ⁴⁾	하	3.04	2.77	2.94	2.60
	중	2.58	2.63	2.52	2.53
	상	2.21	2.46	2.28	2.49

통계: 1) F=14.47***, 2) F=54.87***, 3) F=82.29***, 4) F=19.60***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남자(성별), 고교생(교급), 중·하층(계층)은 결식일이 증가한 반면, 여자, 중학생, 상층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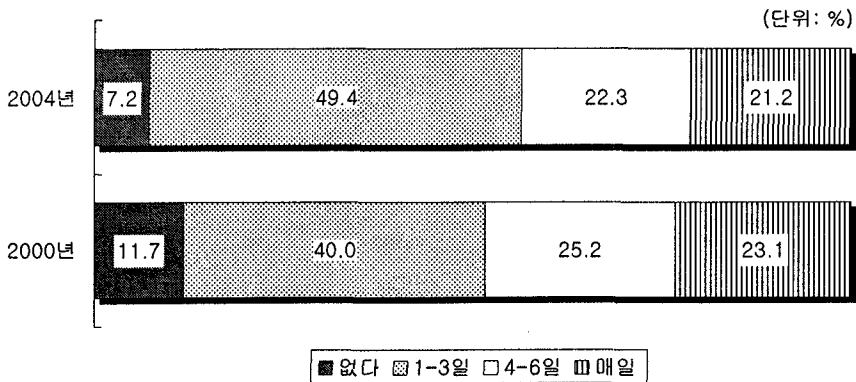
Q 일주일 중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날이 대략 며칠 정도나 됩니까 ?

..... () 일

일주일에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매일 가족과 함께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5 수준에 머물렀고(21.2%),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2%였다.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매일 또는 4일 이상 같이 하는 청소년은 감소한 반면, 하루에서 3일 이내로 같이 하는 청소년은 증가하였다.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2000년의 3.67일이었는데, 2004년에는 3.54일로서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일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56] 일주일 중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일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일수는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자(성별), 고교생(교급)의 평균값(일)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정체상태에 있는 남자, 증가추세에 있는 중학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계층별 하위집단의 평균값 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표 III- 66> 일주일 중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일

		2004 년		2000 년	
		평균(일)	표준편차	평균(일)	표준편차
전체		3.54	2.36	3.67	2.47
성별 ¹⁾	남자	3.71	2.38	3.71	2.52
	여자	3.38	2.32	3.64	2.42
교급 ²⁾	중학생	4.26	2.34	4.09	2.52
	고교생	2.83	2.15	3.24	2.34
계층 ³⁾	하	3.22	2.39	3.51	2.45
	중	3.58	2.38	3.69	2.49
	상	3.64	2.30	3.86	2.41

통계: 1) F=16.79***, 2) F=353.27***, 3) F=6.46**

건강상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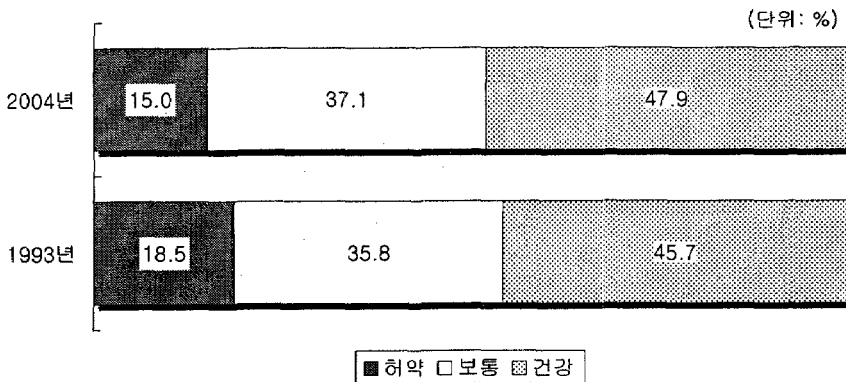
Q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허약하다
2. 허약한 편이다
3. 보통수준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단계별 5점 척도를 통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7.1%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건강한 편이다”(32.1%), “매우 건강하다”(15.8%), “허약한 편이다”(13.5%)의 순이었고 “매우 허약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에 머물렀다(1.5%).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이 47.1%로서 허약하다는 응답률(15.0%)의 세 배 이상에 달하였다.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건강하다는 응답률은 증가한 한편(45.7% → 47.1%) 허약하다는 응답률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어(18.5% → 15.0%),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11년 전에 비해 소폭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57] 자기 건강상태 평가



자신의 건강상태 평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다수인 반면, 여자는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교급별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중학생이, 보통수준 또는 허약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고교생이 더 많았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일수록 건강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상층의 50.4%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하층은 40.8%에 머물러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 변인별 응답률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단, 여자의 경우 1993년의 조사에서는 건강하다는 응답률이 보통 수준의 응답률보다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 67> 자기 건강상태 평가

(단위: %)

		2004 년			1993 년		
		허약	보통	건강	허약	보통	건강
성별 ¹⁾	남자	15.7	33.2	51.1	19.7	31.9	48.5
	여자	14.4	40.9	44.7	17.5	39.7	42.9
교급 ²⁾	중학생	12.3	34.8	52.8	18.2	33.0	48.8
	고교생	17.7	39.4	43.0	19.0	38.6	42.4
계층 ³⁾	하	19.8	39.4	40.8	19.2	39.1	41.7
	중	14.1	36.6	49.3	18.2	37.0	44.9
	상	13.2	36.4	50.4	18.7	27.3	54.1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33.04^{***}$, 2) $\chi^2=46.56^{***}$, 3) $\chi^2=22.18^{**}$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라. 컴퓨터 · 인터넷이용

컴퓨터 유무 · 주된 이용자

Q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컴퓨터는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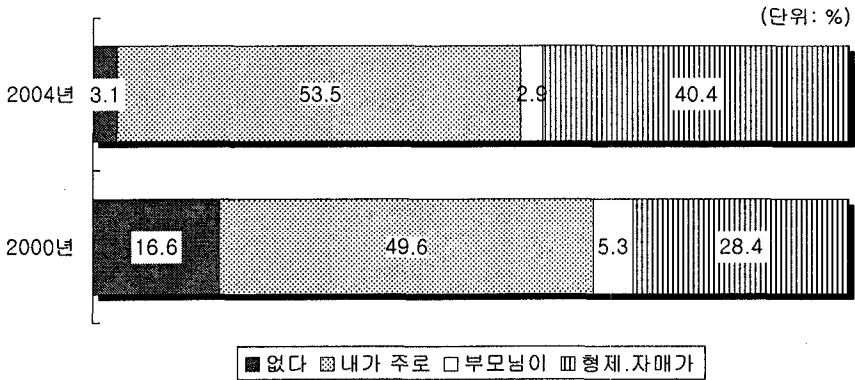
1. 컴퓨터가 있고, 내가 주로 사용한다
2. 컴퓨터가 있고, 부모님이 주로 사용한다
3. 컴퓨터가 있고, 형제 · 자매가 주로 사용한다

현재 자기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있다면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컴퓨터가 없는 가정은 3.1%에 불과하였고, 컴퓨터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로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53.5%, 형제 · 자매가 주된 사용자인 경우가 40.4%였으며 부모님이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였다(2.9%).

2000년의 조사에서는 컴퓨터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6.6%로서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컴퓨터 보유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83.4%→ 96.9%).

[그림 III- 58] 컴퓨터 유무 및 주된 이용자



각 변인별 하위집단의 컴퓨터 보유율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교급별로는 각 하위집단별로 컴퓨터 보유율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의 보유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나 세 집단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III- 68>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

(단위: %)

		2004 년	2000 년
성별	남자	96.3	85.2
	여자	97.4	81.5
교급	중학생	96.3	86.0
	고교생	97.5	80.5
계층	하	94.1	68.7
	중	96.9	84.3
	상	98.8	93.5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컴퓨터 보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년 전에는 계층간 보유율의 차이가 매우 현격한 수준이었는데, 하층의 보유율이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68.7%→ 94.1%) 이제는 중·상층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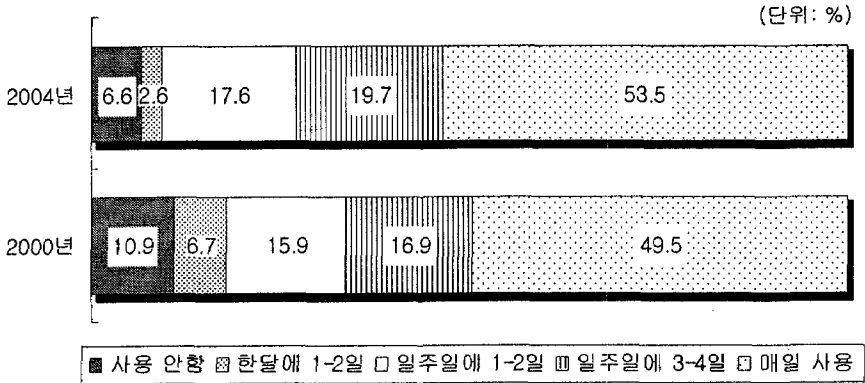
Q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까 ?

1.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한달에 1~2일 정도
3. 일주일에 1~2일 정도
4. 일주일에 3~4일 정도
5.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빈도를 단계별 5점 척도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반수의 청소년이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53.5%), 다음으로 “일주일에 3~4일”(19.7%), “일주일에 1~2일”(17.6%) 순이었고 “한달에 1~2일”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각각 2.6%, 6.6%).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증가한 반면(49.5%→ 53.5%),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감소하여(10.0%→ 6.6%)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59] 컴퓨터 이용빈도



컴퓨터 이용빈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에 비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은 편이었다. 계열별로는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실업계가 70.1%에 달하여 인문계(43.9%)와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계층별로는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하층이 가장 많았고(59.2%), 다음이 중간층이었으며(54.3%), 상층이 가장 적었다(49.1%).

<표 III- 69> 컴퓨터 이용빈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이용안함	매일이용	이용안함	매일사용
성별 ¹⁾	남자	5.5	58.3	11.1	53.4
	여자	7.6	48.9	10.8	45.4
교급 ²⁾	중학생	8.5	54.9	9.9	51.7
	고교생	4.6	52.1	12.0	47.1
계열 ³⁾	인문고	4.4	43.9	11.8	50.8
	실업고	5.2	70.1	12.3	41.6
계층 ⁴⁾	하	6.8	59.2	18.6	38.7
	중	7.0	54.3	10.5	50.7
	상	5.2	49.1	5.9	55.5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36.30^{***}$, 2) $\chi^2=58.84^{***}$, 3) $\chi^2=128.55^{***}$, 4) $\chi^2=30.07^{***}$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인터넷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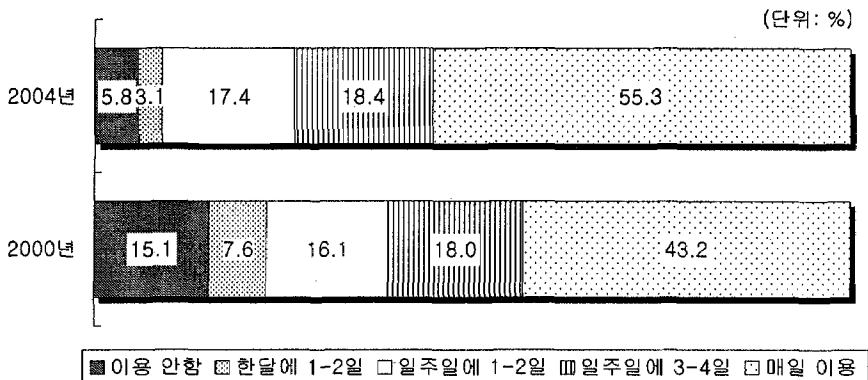
Q 인터넷을 어느 정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까 ?

1.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2. 한달에 1~2일 정도
3. 일주일에 1~2일 정도
4. 일주일에 3~4일 정도
5. 거의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인터넷의 이용빈도를 단계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55.3%로서 다수였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3~4일 정도”(18.4%), “일주일에 1~2일 정도”(17.4%)의 순이었으며 “한달에 1~2일” 또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할에도 못미쳤다(각각 3.1%, 5.8%).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1할 이상 증가한 반면(43.2%→ 55.3%), 거의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15.1%→ 5.8%).

[그림 III- 60]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이용빈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각 변인별 응답률의 분포는 컴퓨터 이용빈도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빈도를 나타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이용빈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자의 이용빈도 증가폭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률 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4년 전에는 도시화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용빈도가 증가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2000년 조사에서는 상층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고 하층이 가장 낮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하층의 이용빈도가 중·상층보다 높았는데, 이와 같은 계층별 이용빈도의 역전 현상은 컴퓨터 이용빈도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표 III- 70> 인터넷 이용빈도

(단위: %)

		2004 년		2000 년	
		이용 안함	매일 이용	이용 안함	매일 이용
성별 ¹⁾	남자	5.9	59.3	16.4	44.9
	여자	5.6	51.5	13.8	41.4
교급 ²⁾	중학생	7.4	57.0	15.8	44.7
	고교생	4.1	53.6	14.4	41.6
계열 ³⁾	인문고	3.5	45.6	12.4	44.7
	실업고	5.5	71.1	17.5	36.8
계층 ⁴⁾	하	7.0	59.0	21.2	32.5
	중	6.1	56.0	15.7	44.2
	상	4.1	52.3	9.3	49.9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7.02^{***}$, 2) $\chi^2=42.64^{***}$, 3) $\chi^2=131.04^{***}$, 4) $\chi^2=27.01^{**}$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컴퓨터 · 인터넷의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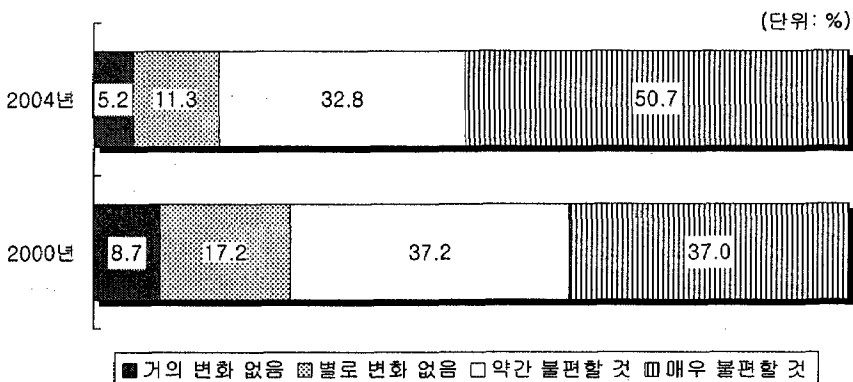
Q 컴퓨터 · 인터넷이 없다면 당신의 생활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2.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약간 불편할 것이다
4. 매우 불편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컴퓨터 · 인터넷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 인터넷이 없으면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리라 예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과반수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50.7%), “약간 불편할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할에 달하여(32.8%), 전체 청소년의 83.5%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에 “별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청소년은 1할에 머물렀고(11.3%),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였다(5.2%).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의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37.0%→ 50.7%),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25.9%→ 16.5%). 컴퓨터 ·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가 갈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61] “컴퓨터 · 인터넷이 없다면...”



같은 질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계열 및 계층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불편할 것으로 예상한 청소년이 더 많았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컴퓨터·인터넷 이용빈도가 높은 집단인 중학생(교급), 실업계(계열), 하층(계층) 청소년들이 고교생·인문계·상층 청소년들에 비해 컴퓨터·인터넷이 없으면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컴퓨터(인터넷)의 이용빈도와 이용자가 느끼는 컴퓨터(인터넷)의 효용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세 집단(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하층)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필요 이상의 인터넷 이용, 즉 인터넷 중독현상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 71>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단위: %)

		2004 년			2000 년		
		변화 없을 것	약간 불편	매우 불편	변화 없을 것	약간 불편	매우 불편
성별 ¹⁾	남자	16.2	30.3	53.5	25.6	34.0	40.4
	여자	16.8	35.2	48.0	26.2	40.4	33.4
교급 ²⁾	중학생	18.6	32.6	48.8	24.5	33.6	41.9
	고교생	14.4	33.0	52.6	27.4	40.8	31.8
계열 ³⁾	인문고	13.3	31.9	54.8	24.4	40.1	35.5
	실업고	16.7	35.3	48.0	31.8	41.9	26.3
계층 ⁴⁾	하	19.4	30.4	50.2	31.2	37.2	31.7
	중	17.3	33.7	49.0	27.7	35.6	36.6
	상	12.2	32.9	55.0	17.3	39.7	43.0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11.51^{**}$, 2) $\chi^2=27.72^{***}$, 3) $\chi^2=8.62^{*}$, 4) $\chi^2=26.75^{***}$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 및 계층별 하위집단의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교급별 응답결과에 있어서는 4년 전 조사에서는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중학생이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항목에 대한 고교생의 응답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고민거리·행복감

고민·걱정거리

Q 현재 당신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가장 심각한 것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경제적인 문제 | 2. 진로문제 |
| 3. 공부·학업문제 | 4. 이성·성관련 문제 |
| 5. 자신의 성격 | 6. 친구와의 관계 |
| 7. 건강문제 | 8. 자신의 외모 |
| 9. 종교·인생관 문제 | 10. 가정·가족 문제 |
| 11.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 |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두 10가지의 응답항목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공부·학업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36.6%로서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진로문제”(24.9%), “경제적인 문제”(13.7%), “이성·성관련 문제”(4.7%)의 순이었고,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6%에 불과하였다.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공부·학업문제”의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28.8%→ 36.6%), “진로문제”의 응답률이 감소(33.1%→ 24.9%)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응답경향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그림 III-62] 주된 고민거리

(단위: %)

	2004 년	2000 년
경제적인 문제	13.7	14.5
진로문제	24.9	33.1
공부 · 학업문제	36.6	28.8
이성 · 성관련 문제	4.7	6.5
자신의 성격	2.8	3.2
친구와의 관계	3.5	2.7
건강문제	1.4	1.0
자신의 외모	3.7	2.7
종교 · 인생관 문제	0.6	0.6
가정 · 가족 문제	3.4	2.2
고민 · 걱정거리가 없다	4.6	4.7

고민 · 걱정거리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III-72>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이성문제”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고 고민 · 걱정거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남자가 많았다. 교급별로는 걱정거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중학생이 더 많았고 이밖에 고교생은 “경제문제”와 “진로문제”, 중학생은 “공부 · 학업문제”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열별로는 “경제문제”의 응답률은 실업계가, “공부 · 학업문제”의 응답률은 인문계가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경제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하위집단으로 내려갈수록 증가하여, 고민거리와 가정의 생활수준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부 · 학업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은 상위계층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표 III- 72> 주된 고민거리

(단위: %)

		경제 문제	진로 문제	공부 학업	이성 문제	없다
성별 ¹⁾	남자	13.9	24.1	35.8	6.3	5.6
	여자	13.5	25.7	37.3	3.2	3.6
교급 ²⁾	중학생	11.6	18.2	39.0	5.5	7.0
	고교생	15.9	31.4	34.2	4.0	2.3
계열 ³⁾	인문고	9.6	30.7	44.5	3.7	1.4
	실업고	29.4	33.1	11.8	4.6	4.0
계층 ⁴⁾	하	26.7	24.4	24.7	4.7	2.7
	중	13.5	26.1	36.5	4.8	4.6
	상	6.0	23.8	44.8	4.5	5.1

통계(원자료): 1) $\chi^2=50.49^{***}$, 2) $\chi^2=148.59^{***}$, 3) $\chi^2=245.08^{***}$, 4) $\chi^2=181.70^{***}$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고민 상담 상대

Q 당신은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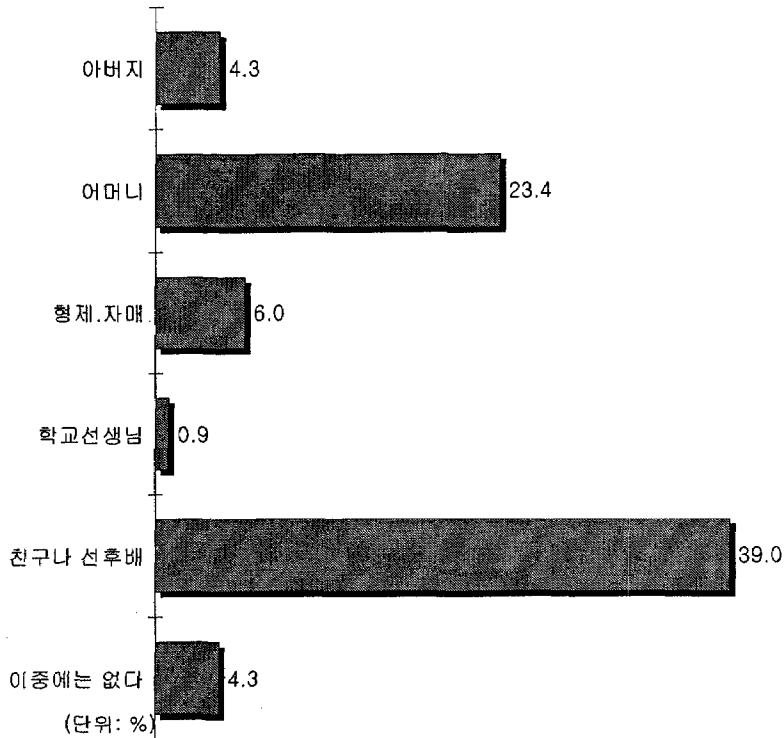
- | | |
|-------------------|------------|
| 1. 아버지 | 2. 어머니 |
| 3. 형제·자매 | 4. 학교선생님 |
| 5. 친구나 선·후배 | 6. 이중에는 없다 |
| 7.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 | |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친구나 선·후배”(39.0%), “어머니”(23.4%)의 응답률이 1할을 상회하였을 뿐 나머지 항목의 응답률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부모보다는 친구와 상의하는 청소년이 더 많은 점이 특징적이고²², 어머니와 비교하여

²²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자신의 고민거리를 부모와 상담하는 청소년이 친구와 상담하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보론”의 <표 V-24>를 참조할 것.

아버지의 응답률(4.3%)이 현저하게 낮은 점이 주목된다. 이밖에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전체의 1/5을 상회하였다(22.2%).

[그림 III-63] 고민거리 상담 상대



고민 상담상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표 III-73>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는 상담상대가 없다는 청소년이 여자보다 많았고, 여자는 친구나 선·후배의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 중에서는 남자는 부친과, 여자는 모친과 상의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은 부모와, 고교생은 친구와 상의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와 상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III-73> 고민거리 상담 상대

(단위: %)

		아버지	어머니	친구나 선·후배	없다
성별 ¹⁾	남자	6.3	22.7	30.0	28.5
	여자	2.3	24.1	47.7	16.1
교급 ²⁾	중학생	5.3	24.6	34.7	23.9
	고교생	3.3	22.2	43.2	20.5
계열 ³⁾	인문고	3.5	23.9	41.4	20.8
	실업고	2.7	18.5	47.1	19.8
계층 ⁴⁾	하	1.8	16.0	45.6	24.6
	중	4.2	23.9	37.7	22.0
	상	5.7	26.5	37.9	20.5

통계(원자료): 1) $\chi^2=175.04^{***}$, 2) $\chi^2=33.09^{***}$, 3) $\chi^2=12.35$, 4) $\chi^2=49.57^{***}$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부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전체적인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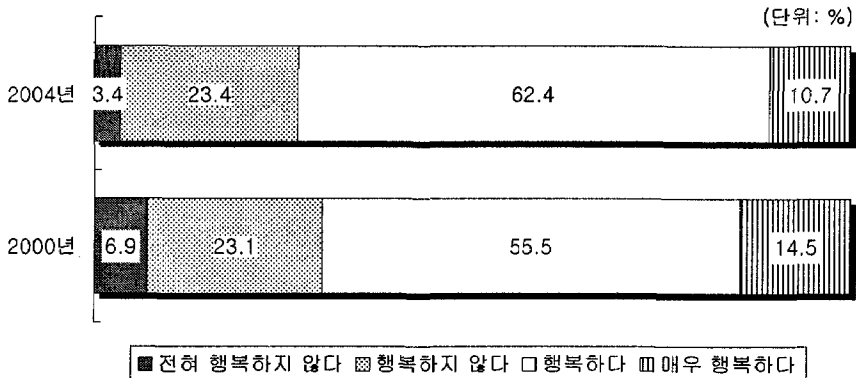
Q 현재의 자신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1. 전혀 행복하지 않다
2. 행복하지 않다
3. 행복하다
4. 매우 행복하다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행복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2.4%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행복하지 않다”(23.4%), “매우 행복하다”(10.7%)의 순이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4%에 머물렀다. 청소년의 7할 이상(73.1%)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26.8%)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항목별 응답률의 분포는 이번 조사와 유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소폭으로 상승(70.0%→73.1%)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64] 전체적인 행복감



전체적인 행복감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74>와 같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1할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다른 두 지역보다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는 매우 현저하였는데, 상위계층일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증가하여 상층은 80.2%에 달하는 반면 하층은 6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58.3%).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교급별 응답분포는 이번 조사와 다름이 없고, 계열별로는 4년 전에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행복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인문계는 증가한 반면 실업계는 감소하여 양자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두 지역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시군부), 거의 변함이 없었다(광역시). 계층별로는 4년 전 조사에서는 하층과 중·상층간의 차이가 현격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상층의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중간층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서 세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해진 점이 특

장적이다.

<표 III- 74> 전체적인 행복감

(단위: %)

		2004 년		2000 년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
성별 ¹⁾	남자	26.7	73.2	31.3	68.6
	여자	26.9	73.0	28.7	71.3
교급 ²⁾	중학생	21.9	78.1	26.3	73.7
	고교생	31.7	68.3	33.9	66.1
계열 ³⁾	인문고	29.0	71.0	33.3	66.8
	실업고	37.7	62.2	34.9	65.2
계층 ⁴⁾	하	41.7	58.3	45.3	54.7
	중	25.7	74.2	26.1	74.0
	상	19.9	80.2	26.4	73.7

통계(2004 년 원자료): 1) $\chi^2=24.25^{***}$, 2) $\chi^2=101.50^{***}$, 3) $\chi^2=13.72^{**}$, 4) $\chi^2=102.67^{***}$

주: 응답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IV. 요약 및 논의

1. 조사결과 요약
2. 종합논의
3. 정책방향 제언

IV. 요약 및 논의

1. 조사결과 요약

가. 가정생활

1) 가정배경

조부모 동거여부 : 자기 집에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의 청소년은 17.5%였다. 1993년 조사에서는 25.0%에 달했는데 2000년에 17.2%로 감소하였고 그 뒤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친조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대부분이었고(13.8%) 외조부모를 모신 가정은 드물었지만(3.8%) 1993년과 비교하면 3세대 가정 중에서 모계존속과 동거하는 가정은 오히려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형제·자매 유무와 순위 : 집에 형제가 없는 “외동”은 7.6%로서 1993년(3.4%)보다는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0년(10.1%)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형제순위별로는 “첫째”가 가장 많았고(44.2%), “막내”가 다음이고(39.9%), “중간”(8.3%)이 가장 적었다. “외동”의 증가·“중간”의 감소현상은 핵가족화 현상의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외동”의 비율은 과거에는 서울(지역), 중·상층(계층)에서 높았지만, 이제는 지역·계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 :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서 23.9%가 못 산다고 평가하여 잘 산다는 응답률(16.0%)을 상회하였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17.9%→22.9%→23.9%), 잘 산다는 응답률은 감소추세에 있어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정형편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산다는 응답률은 서울(지역), 인문계(고교계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최종학력 : 부모세대의 학력은 해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부친이 대졸 이상인 가정이 38.1%로서 1993년(11.3%)의 세 배 수준에 달하였고, 모친인 대졸 이상인 경우도 24.8%로서 1993년(10.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주택의 형태 : 조사대상 청소년의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49.0%), 연립주택(20.1%)을 포함하면 전체의 69.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단독주택은 23.0%). 1993년·2000년과 비교하여 아파트에 사는 청소년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23.0%→ 41.5%→ 49.0%), 단독주택에 사는 청소년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55.8%→ 28.1%→ 23.0%).

2) 가족관계

부모와의 대화빈도 : 청소년들은 부친보다는 모친과 더 자주 대화한다. 부친과 대화(자주 또는 가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3.8%인 반면, 모친의 경우에는 91.0%에 달한다. 2000년과 비교하면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양친 모두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점차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인 듯하다.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중학생(교급), 인문계(고교계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간층보다, 중간층이 하층보다 더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이해도 : 부모가 자기를 이해(약간 또는 많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부친의 경우 64.2%, 모친은 76.9%로서 모친에 대해 보다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평가한 부모의 자녀 이해수준은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상당 수준 증가(“이해하고 있다”의 응답률: 부친 46.8%→ 64.2%, 모친 61.5%→ 76.9%)하였다. 부모의 자녀 이해도 평가에서는 계층별 차이가 두드러져서 상위계층 청소년들일수록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립경험 : 지난 1년간 모친과 대립(의견충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8.9%로서 부친과 대립한 적이 있는 청소년(37.9%)보다 많았다. 청소년들이 모친과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의 빈도

도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2000년과 비교하면 부친과의 대립경험 응답률은 크게 감소하였고(45.9%→ 37.9%), 모친과 대립경험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다(49.9%→ 48.9%). 여자보다는 남자,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이 부모와 더 자주 의견대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 전체 청소년의 절반 정도(50.9%)가 앞으로 자기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하여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조금 증가하였다(45.5%→ 50.9%). 하위집단별로는 중학생(교급)·인문계(고교 계열)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계층별로는 중·상층은 과반수가 부모를 닮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하층은 3할 수준에 머물러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친·외가 접촉빈도 : 친·외가 중 어느쪽과 자주 접촉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친가쪽(40.3%)이 외가쪽(36.6%)보다 많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고, 양쪽 모두 같다는 응답률도 23.2%에 달하였다. 부계·가부장제적 가족제도하에서도 접촉빈도의 측면에서는 친·외가의 구분이 거의 해소되고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과 비교하여 외가쪽의 응답률은 약간 감소한 반면(39.1%→ 36.6%), 모두 같다는 응답률은 증가하였다(20.2%→ 23.2%). 성별 차이가 뚜렷하여 남자는 친가와, 여자는 외가와 더 자주 접촉하고 있으며, 서울은 광역시·시군부와는 달리 외가쪽의 응답률이 친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3) 가족의식

부모님 부양의사 : 연로한 부모님 부양방식에 대하여 적극적 부양형(“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이 60.9%로 다수였고, 경제적 부양형(“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이 36.3%로 그 다음이었으며 부모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에 의존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2.9%)였다. 2000년과 비교하면 적극적 부양형은 증가하고(56.2%→ 60.9%), 사회보장 의존형은 감소하여(4.3%→ 2.9%), 핵가족화·도시화가 진전되는 사회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부모님 부양의사는 큰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노후계획 : 자신의 노후계획에 대해서는 완전독립형(“자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가겠다”)이 가장 많았고(36.7%), 다음이 동거 비의존형(“동거하되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이었으며(21.6%), 동거하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겠다는 동거 의존형은 소수였다(10.0%). 1993년의 조사와 비교하여 완전독립형이 큰 폭으로 감소(46.5%→ 36.7%)한 점이 두드러지는데, 홀로 사는 노년가구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로는 남자(성별), 고교생(교급), 상층(계층)의 완전독립형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성 귀속의식 :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성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남자”와 “여자”의 응답률이 동일한 수준이었고(각각 28.0%, 28.8%),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는 청소년이 35.4%로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1993년과 비교하면 “남자”의 응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44.9%→ 28.0%), 어느쪽이든 무방하다는 응답률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어(23.6%→ 35.4%)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직장생활 : 결혼 후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남자의 89.5%가 찬성하였고, 여자의 경우에도 결혼 후에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94.0%에 달하였다. 이중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더라도 허용(여자는 계속)하겠다는 응답률이 1993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남자 18.4%→ 31.0%, 여자 21.1%→ 30.8%)하여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관 :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부모가 반대할 경우,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청소년이 51.4%로 다수였고, 재고해 보겠다는 35.9%였으며, 부모님 의사대로 하겠다는 청소년은 극소수였다(2.1%).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결혼강행형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32.1%→ 51.4%), 재고하겠다는 응답률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50.9%→ 35.9%). 남자는 결혼강행형, 여자는 결혼재고형이 다수를 차지하여 성별로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가정생활 만족도 :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69.2%로

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2000년에 비해서도 소폭으로 상승하였다(64.5%→69.2%). 성별로는 남자,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만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계층별로는 상층의 8할 정도(7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하층은 4할대(44.4%)에 머물렀다.

가정생활 전망 : 앞으로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낙관하는 청소년이 64.0%로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6.9%)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2000년의 조사와 비교하면 낙관형과 비관형이 모두 감소한 반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하위집단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상층이 중·하층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나. 학교생활

1) 학교성적

학교성적 평가 :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하여 중간수준이라는 응답이 34.9%로서 가장 많았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과 못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하였다(32.4%, 32.7%). 2000년과 비교하면 잘 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감소추세를 나타내어(37.8%→32.4%), 청소년들의 자기 성적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로는 서울(지역), 상층(계층)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성적을 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좋은 성적의 요인 :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대다수가 “본인의 후천적 노력”이라고 응답하였고(81.5%), 다음으로 “본인의 타고난 지능”의 응답률이 8.8%에 머물렀고,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했다(4.9%, 4.8%). 하층(계층)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하층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2) 교사·학교친구 관계

교사와의 대화빈도 : 평소에 교사와 대화(자주 또는 가끔)를 나누는 청소년은 36.8%에 머물러 소수였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28.8%→ 36.8%).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보다, 또한 대도시(서울·광역시) 청소년들이 시군부 청소년들보다 교사와의 대화빈도가 많은 편이었다.

교사의 학생 이해도 :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약간 또는 많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8.8%로서 과반수에 못미쳤지만, 2000년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45.3%→ 48.8%). 교사의 학생 이해도에 대한 평가는 남자(성별), 중학생(교급), 중·상층(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사와의 대립경험 : 지난 1년간 교사에게 반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2%로서, 2000년(21.0%)에 비해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교사와 대립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여자가 남자보다,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보다, 하층이 중·상층보다 많았다.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 자신이 닮고싶은 교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2%로서 2000년의 조사결과(43.6%)와 변함이 없었다. 하위집단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실업계보다 높은 편이었다.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 청소년의 약 절반 가량이 평소에 학급친구와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49.9%), 그 비율은 4년 전(49.0%)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경쟁의식을 느끼는 청소년이 더 많았고,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보다, 계층별로는 중·상층이 하층보다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님의 학교방문 경험 : 지난 한해 동안 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6.6%로서 2000년의 조사결과(48.1%)와 비교하여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위집단별로는 인문계 고교생(고교계열),

서울(지역), 상층(계층) 학부모의 학교방문 경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3)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4.0%로서 불만을 가진 청소년보다 많았고,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43.5%→ 54.0%). 그러나 고교생은 중학생과는 달리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학교생활 전망 : 앞으로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46.7%로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12.0%)의 네 배 수준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변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반면, 낙관형과 비관형은 모두 감소하였다. 학교생활 전망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또한 상층이 중·하층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4) 진로인식

고졸 후 진로계획 :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청소년이 8할에 달하였고 그 비율은 1993년, 2000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반드시 진학하겠다는 청소년은 1993년과 비교하여 소폭으로 감소하였다(56.3%→ 50.1%). 취업의사를 가진 청소년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7.5%→ 9.0%→ 10.0%). 대학진학 의사는 여자가 남자보다, 상층이 중·하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실업계 고교생 중에서 대학진학 의사를 가진 청소년도 65.9%에 달하였다.

직장 선택 요인 :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유형으로서 “힘들더라도 권한·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을 “권한·책임은 없지만 여유있는 직장”보다 선호하였다(66.5% : 33.4%).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2000년 조

사결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일과 여가생활 : 일과 여가생활 중에서 여가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8.7%로서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률(41.3%)을 크게 상회하였지만,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37.4%→ 41.3%).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고교생보다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아르바이트 경험 : 전체 청소년의 37.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33.7%), 지금 하고 있다고 응답(3.7%)하여 2000년에 비해 경험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43.6%→ 37.0%). 실업계 고교생은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65.2%에 달하여 인문계(36.6%)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계층별로는 하층의 경험자 비율이 상층의 두 배에 달하였다.

다. 사회·국가관

1) 지역사회 생활

동네행사 참여빈도 : 지역사회(동네) 행사에 참여(자주 또는 가끔)하고 있는 청소년은 18.4%에 머물렀지만, 그 비율은 4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10.5%→ 18.4%). 고교생의 참여율은 중학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12.2% : 24.6%).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 : 평소에 이웃어른과 대화(자주 또는 가끔)를 나누는 청소년은 전체의 1/4수준에 불과하며(26.3%), 이 비율은 2000년 조사결과(25.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대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지방(광역시·시군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역할모델로서의 동네어른 : 이웃어른 중에 앞으로 닮고픈 분이 있다는 응답률은 6.7%에 머물렀고 2000년 조사결과(10.1%)와 비교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지역사회 영주의사 :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

한 청소년은 31.6%로서 이사가기를 원하는 청소년(42.7%)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2000년에 비해서는 지역사회 영주의사를 가진 청소년이 소폭으로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26.5%→ 31.6%). 영주의사를 가진 청소년은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중학생이 많았고, 서울은 지금 동네에서 계속 살겠다는 청소년이 다수임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부는 이사하려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역사회 선호도 :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8.9%로서 싫어하는 청소년(31.1%)보다 많았고, 4년 전에 비해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62.4%→ 68.9%). 하위집단별로는 남자(성별), 중학생(교급)의 지역사회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계층별로는 좋아한다는 응답률이 상층은 75.2%에 달하여 하층(54.6%)과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지역사회 전망 :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46.9%로서 다수였고, 2000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38.2%→ 46.7%). 남자보다는 여자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현실 인식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 : 우리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개인의 노력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53.7%), 다음으로 학력·학벌(21.1%), 집안 배경(14.1%), 개인의 재능(11.2%)의 순이었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개인적 요인(재능·노력)보다는 배경적 요인(집안배경·학력과 학벌)의 응답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집안이나 학벌과 같은 배경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현실 만족도 :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4%에 머물렀고, 그 비율은 2000년 조사결과(15.0%)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하위집단별로는 우리사회 현실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여자(성별), 고교생(교급), 서울(지역), 하층(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회변화 전망 : 우리사회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38.6%로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26.3%)보다 많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낙관형의 비율이 감소추세를 나타내어(35.2%→26.3%),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사회변화의 전망을 어둡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비관적 전망의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3) 국가에 대한 인식

국가와 자신의 관계 : 국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충형(“자신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를 위해 공헌하겠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69.1%), 국익중시형(“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보다는 개인우선형이 더 많았다(12.6%, 18.3%). 1994년의 조사에서는 국익중시형이 개인우선형보다 많았는데(16.2%, 7.4%)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역전되어 국가보다는 개인이익을 중시하는 변화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66.5%로서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33.5%)의 두 배에 달하였고, 그 비율은 2000년(65.4%)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는 남자(성별), 중학생(교급), 중간층(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4) 통일관

바람직한 통일방식 :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통일(“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을 원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하여(56.2%), 통일우선론(“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보다 많았고, 통일을 원치 않는 청소년도 전체의 1/5에 달하였다(21.1%). 1993년·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통일우선론과 분단유지론은 증가한 반

면 점진적 통일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위집단별로 는 남자는 통일우선론이 다수인 반면, 여자는 분단유지론자가 더 많아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 무력침공 가능성 평가 :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5.0%로서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23.1%)보다 많았다. 1994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높다는 응답률이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39.1%→ 45.0%), 남북한 화해·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인식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의 예상시기 :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10년 이상 지나야”(37.8%)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다수였고(37.8%), “3~5년”(11.2%), “1년 이내”(4.3%)의 응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994년과 비교하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2.1%→ 25.5%),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악화추세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라. 교우관계·생활 일반

1) 교우관계

동성·이성 친구 유무 : 가깝게 지내는 친구를 성별로 구분할 때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5.7%로서 동성친구만 있다는 응답률(40.5%)을 상회하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동성 친구만 있는 청소년은 감소한 반면(47.3%→ 40.5%),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는 청소년은 크게 증가하여(45.0%→ 55.7%), 교우관계에 있어 성적인 구분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친구와 동네친구 : 친구를 학교친구와 동네친구로 구분할 때, 주로 학교친구와 어울린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5.6%에 달하는 반면, 동네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은 14.4%에 머물렀다.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주로 학교친구와 어울린다는 청소년이 증가추세를 나타내어(80.7%→ 85.6%), 전통적인 “동네친구”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

에 있어서 학교친구의 편중현상은 여자(성별), 중학생(교급)이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대도시(서울·광역시)보다 오히려 시군부가 더욱 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 :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는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거의 매일”: 23.6%→ 16.7%, “일주일에 3~4일”: 19.5%→ 14.6%). 하위집단별로는 남자(성별), 중학생(교급), 서울(지역), 중·하층(계층) 청소년들의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친구의 자기이해도 : 친구들이 자기를 이해(약간 또는 많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4.2%로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25.7%)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2000년(72.7%)과 비교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하위집단별로는 여자(성별), 고교생(교급), 인문계(고교계열), 상층(계층)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우관계 만족도 : 현재 자신의 교우관계에 대하여 대다수의 청소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84.7%), 그 비율은 4년 전(78.8%)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계층별로는 상층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다.

2) 여가생활

한달 평균 용돈 : 청소년들의 한달 용돈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42,906원으로 조사되었다(2000년 36,639원, 1993년 22,450원). 하위집단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44,361원 : 41,374원), 고교생이 중학생보다(55,245원 : 30,704원),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 고교생보다(66,496원 : 50,330원) 용돈 액수가 많았다. 용돈 액수의 지역별로는 차이는 뚜렷하였지만(서울>광역시>시군부), 계층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클럽·동아리활동 경험 : 학교밖에서의 클럽·동아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2.7%,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이 20.9%로서 전체 청소년의 과

반수(56.4%)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활동경험이 있는 청소년(현재 활동 포함)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7.6%→ 43.6%),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클럽·동아리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럽·동아리 활동 경험자는 남자(성별), 고교생(교급), 상층(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휴일날 소일방식 : 휴일날을 친구와 함께 보내는 청소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청소년이 각각 37.9%였고, 혼자서 보내는 청소년은 24.2%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25.5%→ 37.9%),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낸다는 응답률은 감소하였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청소년의 비율은 여자(성별), 중학생(교급), 중·상층(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취미·여가생활 장애요인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취미·여가생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 부족(37.3%)이었으며, 이어서 시간 부족(25.0%), 장소·시설 문제(16.7%), 공부방해(9.3%)의 순이었다. 비용과 시간 부족이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가장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 만족도 :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청소년이 52.5%로서 절반을 넘었으며, 2000년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44.0%→ 52.5%)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로는 남자(성별), 중학생(교급)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인문계 고교생(고교계열)과 하층(계층)은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이 더 많아서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해외여행 경험 :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6%로서 1994년의 조사결과(5.2%)와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해외여행 경험자의 비율은 지역·계층간의 차이가 두드러져서 서울이 40.8%에 달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2할 안팎이었고, 상층이 41.7%임에 비해 하층은 10.9%에 머물렀다.

3) 생활시간 · 건강

수면시간 : 청소년들의 평일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분으로서, 2000년의 조사결과(7시간 20분)과 비교하여 19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수면시간이 7시간 35분으로서 고교생(6시간 27분)보다 1시간 이상 많았으며, 고교계열별로는 인문계(6시간 11분)와 실업계(7시간 2분)의 차이가 매우 현격한 수준이었다.

TV시청시간 : 청소년들의 평일날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은 2시간 3분으로서, 2000년(2시간 50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TV시청시간의 이와 같은 감소경향은 TV와 경합관계에 있는 인터넷 이용시간 · 빈도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집단별 TV시청시간은 여자가 남자보다(2시간 13분 : 1시간 53분)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2시간 24분 : 1시간 43분),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보다(2시간 23분 : 1시간 43분) 길었고,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 · 하층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 학원에서의 공부시간 : 청소년들이 평일날 집 · 학원 등 학교밖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 11분으로서, 2000년 조사결과(2시간 27분)와 비교하여 16분 정도 단축되었다. 하위집단별 공부시간은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길었는데(2시간 47분 : 1시간 35분),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고교생의 학교 체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계층별로는 상층이, 광역시 · 시군부, 중 · 하층과 비교하여 공부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시간 : 청소년들의 평일날 여가시간은 2시간 52분으로서 2000년의 조사결과(2시간 54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고교계열별로는 실업계, 계층별로는 하층의 여가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침결식일 : 청소년들이 아침을 거르는 일수는 일주일 평균 2.55일로서 2000년의 조사결과(2.53일)와 비교하여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하루도 거르지 않은 청소년은 37.1%였고, 일주일 내내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청소년이 13.1%에 달하였다. 하위집단별로는 여자(성별), 고교생(교급), 실업계(고교계

열), 하층(계층)의 결식일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일 : 청소년들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일수는 일주일 평균 3.54일로서 2000년(3.67일)과 비교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매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1/5 수준이었고(21.2%), 일주일 내내 혼자 식사하는 청소년은 7.2%였다. 하위집단별로는 남자(성별), 중학생(교급), 상층(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태 평가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7.1%로서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15.0%)의 세 배 이상에 달하였다(보통수준 37.1%). 199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건강하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반면 허약하다는 응답률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로는 남자(성별), 중학생(교급), 상층(계층)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건강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4) 컴퓨터 · 인터넷 이용

컴퓨터 유무 · 주된 이용자 :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6.9%로서 2000년의 조사결과(83.4%)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컴퓨터의 주된 이용자가 자신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3.5%로서 형제 · 자매(40.4%), 부모(2.9%)의 응답률보다 높았다.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은 성 · 교급 ·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고 계층별로도 1993년은 하층의 보유율이 매우 낮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중 · 상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

컴퓨터 이용빈도 :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빈도는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53.5%에 달하였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였다(6.6%).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는 남자(성별), 고교생(교급), 실업계(고교계열), 하층(계층)의 이용빈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빈도 : 인터넷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5.3%로서 2000년의 조사결과(43.2%)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2000년에는 15.3%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극소수(5.8%)에 머물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빈도는 남자(성별), 중학생(교급), 실업계(고교계열), 하층(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컴퓨터·인터넷의 효용성 : 컴퓨터·인터넷이 없으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0.7%로서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37.0%→ 50.7%). 하위집단별로는 컴퓨터·인터넷 이용빈도가 높은 집단인 중학생(교급), 실업계(계열), 하층(계층) 청소년들이 고교생·인문계·상층 청소년들에 비해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5) 고민거리·행복감

고민·걱정거리 : 청소년들이 주된 고민거리로는 “공부·학업문제”의 응답률이 36.6%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진로문제”(24.9%), “경제적인 문제”(13.7%), “이성·성관련 문제”(4.7%)의 순이었으며,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6%에 불과하였다.

고민 상담 상대 : 자신의 고민거리 상담상대로는 “친구나 선·후배”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39.0%), 다음이 “어머니”(23.4%)였고, “아버지”(4.3%), “학교선생님”(0.9%)의 응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는 청소년도 전체의 1/5을 상회하였다.

전체적인 행복감 :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73.1%로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26.8%)보다 많았고, 2000년 조사결과(70.0%)와 비교하여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는 중학생(교급), 인문계(고교계열),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 청소년의 8할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6할에 못미치는 하층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2. 종합논의

제1회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1990년대 말 IMF 경기위기 극복을 통한 사회적 안정의 회복,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인한 학업부담 완화 등의 제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제1회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조사대상이 된 모든 영역에 걸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영역별 만족 응답률의 변화 추이를 보면, 학교생활(43.5%→ 54.0%), 여가생활(44.0%→ 52.5%), 교우관계(78.8%→ 84.7%)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영역(가정생활, 지역사회, 사회현실,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생활 전반에 걸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이와 같이 높아진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차적으로 조사시점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회 조사가 수행된 2000년은 IMF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기였다. 당시는 1997년말부터 시작된 대량실업·정리해고 확산 등의 여파로 많은 가정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와 같은 외부환경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경제적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지만, IMF사태의 직접적인 충격으로부터는 거의 벗어난 상태이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안정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²³.

²³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은 사회성원들의 심리적 아노미를 유발

한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여가생활·교우관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생활영역은 모두 청소년들의 교육환경·학업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만한 여가생활·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교육개혁의 영향과 대학진학 기회의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의 학업부담은 점진적으로 경감되어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교육환경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와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향상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 중심의 소자녀가구는 지역·계층의 구분 없이 폭넓게 확산되어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 변화는 지속적인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점진적으로 해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족구성 변화의 기본 흐름은 부부가족(핵가족)²⁴의 증가와 소자녀가구의 확산이라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가족변화의 양상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993년에는 20.6%에 달하던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

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부적응과 심리적 갈등을 낳게 된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일본 청소년대책본부의 세계청년의식조사 결과를 참조할 것(靑少年對策本部, 1999).

²⁴ 엄밀한 의미에서 “부부가족”과 “핵가족”은 별개의 개념이다. 한국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서구사회와 같은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자녀(장남)가 장성하면 부모와 동거하면서 3세대 가족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핵가족”과는 구분되는 “부부가족”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두 개념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였다.

는 12.8%로 크게 감소하였고,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의 비율은 7.6%로서 1993년(3.4%)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였다²⁵. 특히 1993년의 조사에서는 서울지역의 외동 비율이 다른 지역(광역시·시군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음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자녀가구가 대도시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분가하여 한두명의 자녀만 둔 부부가족이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부부 중심의 소자녀가구의 일반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의 가족 및 친척관계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양상을 감지할 수 있다.

먼저 3세대 가정의 경우 청소년이 친조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은 1993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격감하였지만(1993년 23.5%→ 11.9%),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큰 변함이 없다(4.4%→ 3.8%). 결과적으로 지난 10여년간 3세대가구 중 청소년이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이 40.3%로서 다수이지만, 외가와외의 접촉빈도가 더 높은 청소년도 36.6%에 달하는 등(“친·외가 모두 같다”는 23.2%) 친가에 편중된 전통적인 친척관계에서 뚜렷한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핵가족화·소자녀가구의 증가현상이 외형적인 가족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친척관계를 점진적으로 해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서울(지역)·상층(계층) 청소년들의 외가와외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부계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의 해체현상은 가속화되어 갈 것으로 추정된다.

²⁵ 이 통계는 제한된 표본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므로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 행정통계와는 구분된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하여 이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세대와의 심리적 유대관계는 상당 수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핵가족화 추세와는 달리 부모와의 동거를 당연시하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2000년의 제1회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증가한 반면 부모와의 대립경험은 뚜렷한 감소경향(부친과의 대립경험 45.9%→37.9%)을 나타내었다. 4년전에 비해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증가하였고(부친 46.8%→64.2%, 모친 61.5%→76.9%), 앞으로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률도 증가경향(45.4%→50.9%)을 나타내었다. 이들 문항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유대관계는 상당 수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변화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부모님 부양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연로한 부모님 부양문제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부양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0.9%로서 제1회 조사의 결과(56.2%)와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경제적으로만 부양하거나 사회보장 제도에 의존하겠다는 응답률은 감소하였다. 한편, 자신의 노후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은퇴하면 자녀와 분가하여 완전해 독립해서 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2000년 46.5%→36.7%), 동거하며 자녀에 의존하겠다는 응답률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6.5%→10.0%).

현실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핵가족화 추세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부모님 부양의사가 의연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려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다. 가족 구성에 있어서 3세대 이상 가정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부모님과의 동

거를 당연시하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은 오히려 강화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모-자녀간 심리적 유대 및 부양의식의 강화현상은 가족변화와 관련된 사회 일반의 통념과는 위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최근 우리사회가 경험한 경제·사회적 위기(IMF사태 등) 상황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사회 구조적 변동에 따른 가족변화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구명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시장경제 체제의 성숙과 더불어 청소년층 내부에서도 점진적인 계층화현상²⁶이 진행되고 있다. 즉, 가정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은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사회성원들의 계층화현상을 촉진하게 된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인 산업화를 경험한 서구사회와는 달리 짧은 기간에 급속한 압축성장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계층의 형성은 상대적으로 더디었고, 이에 따라 계층의 개념은 사회과학 연구 특히 청소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 조사(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에서도 그동안 가정의 계층적 지위²⁷를 청소년 생활·의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분석의 도구로 활용해 왔지만, 이

²⁶ 본 보고서에서 “계층화현상”은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직업)에 의해 규정된 계층별 하위집단이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측면에서 서로 차별화되는 현상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²⁷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계층”(가정의 계층적 지위)을 부친의 최종학력과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의 두 변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중-하의 세 하위집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계층의 정의와 규정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제2절 나항(분석방법) 및 본문의 각주 5를 참조할 것.

전 조사(2000년의 제1회 조사 및 1993·1994년의 조사 포함)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조사문항에서 가정의 계층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생활환경, 생활양식 및 의식구조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층간 차이의 상징적인 예로서 주거형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상층 청소년의 68.7%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반면 아파트에 사는 하층 청소년은 그 절반에도 못미친다(31.6%, 중간층은 44.1%).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계층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낮고 자주 대립하며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상층 청소년의 다수는 자기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층은 하위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하루 공부시간도 상층이 하층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 1년간 부모가 학교를 방문한 경험은 상층이 7할 수준이지만 하층은 3할대에 불과하다. 사회적 성공의 요인으로서 상층은 학력·학벌, 중간층은 재능·노력, 하층은 집안배경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휴일날 상층 청소년은 주로 가족과 함께 있지만 하층은 혼자 보내는 경우가 더 많고, 해외여행 경험에 있는 청소년이 상층은 41.7%에 달하지만 하층은 10.9%에 머물고 있다(중간층은 16.8%).

청소년층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층화현상은 단순한 생활·의식의 차이를 넘어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들 수 있다. 우리사회의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이 못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매 조사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1993년: 17.9%, 2000년: 22.9%, 2004년: 23.9%). 또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상층은 80.2%에 달하는 반면, 하층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58.3%), 2000년과 비교하여 계층간 응답결과의 차이가 더욱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주거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 지역공동체(마을·동네)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와해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동네친구의 개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친구이자 경쟁자인 학교친구가 대체해 가는 등 질적인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유대감에 기초한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마을·동네)는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하여 단순한 생활·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기 동네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81.6%), 이웃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다(26.3%). 자기 동네에 본받을 만한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였고(6.7%), 다른 동네로 이사가기를 원하는 청소년(42.7%)이 현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청소년(31.6%)의 비율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공동체의 붕괴현상은 급격한 주거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3년·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단독주택에 사는 청소년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55.8%→28.1%→23.0%), 아파트 거주 청소년은 1993년의 23.0%에서 2004년의 49.0%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 청소년의 과반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했음에 비해 이제는 아파트에 사는 청소년이 절반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의 터전이 되는 주거환경 변화는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의 확산과 더불어 담 너머 함께 살며 여가와 놀이를 같이 하던 전통적인 “동네친구”의 개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학교친구”가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여가시간에 주로 학교친구와 어울린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5.6%로서 2000년(80.7%)과 비교하여 증가한 반면, 동네친구의 응답률은 14.4%에 머물렀다.

동네친구의 비중 약화는 교우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담없이 사귄 수 있는 동네친구에 비해 학교친구는 학업 활동의 경쟁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친구에 대하여 경쟁 의식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절반에 달하였고(49.9%), 제1회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어울리는 빈도도 감소추세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생활·여가패턴도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독현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이용은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4년간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은 83.4%에서 96.9%로 증가하였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7할을 상회하고 있으며(74.0%, 2000년은 61.0%), 전체의 절반 정도(55.3%)가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2000년은 43.2%).

이와 같은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는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제1회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TV시청시간, 수면시간은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각각 2시간 50분→2시간 3분, 7시간 20분→7시간 1분), 이것은 인터넷 이용시간·이용빈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된 시간대는 밤 8시에서 12시 사이로서 TV시청시간대와 중복이 되며, 또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새벽시간대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⁸.

²⁸ 2003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중·고·대학생)의 절반 가량(49.8%)이 밤 8시에서 12시 사이에 인터넷에 접속하고,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도 1할(10.3%)을 상회하고 있다(이

인터넷은 이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일부분으로서 과거의 TV·방송의 기능을 대체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수원으로 부각되고 있다²⁹. 전체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인터넷이 없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50.7%, 2000년에는 30.7%),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할에도 못 미치고 있다(16.5%, 2000년에는 26.0%).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컴퓨터·인터넷 이용빈도가 높은 집단인 중학생(교급), 실업계(고교계열), 하층(계층) 청소년들이 고교생·인문계·상층 청소년들에 비해 컴퓨터·인터넷이 없으면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컴퓨터(인터넷)의 이용빈도와 이용자가 느끼는 컴퓨터(인터넷)의 효용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세 집단(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하층)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필요 이상의 인터넷 이용, 즉 인터넷 중독현상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원·유승호, 2003: 71-73).

²⁹ 1997년 통계청 조사에서 청소년(15~19세)들의 70%가 자신의 주된 정보입수원이 TV·방송이라고 응답했지만(통계청, 1997), 2003년 조사(이종원·이경상·김종길, 2003: 123)에서는 인터넷의 응답률이 69.0%에 달하여 TV·라디오(18.5%), 신문/잡지(3.5%)의 응답률을 압도하였다.

3. 정책방향 제언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고려해야 몇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합리적·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되는 청소년층의 생활·의식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연구(가칭 “청소년기본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개별 연구자·기관 차원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많은 실태조사가 수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제한된 주제를 대상으로 한 학술적인 목적의 1회성 조사에 머물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어려웠다. “청소년 기본조사”는 행정통계나 개별 조사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적·기초적인 문항들로 조사표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반복조사함으로써 청소년 생활·의식의 변화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본조사”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중앙행정부처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관련 법령에 그 시행을 국가의 책무로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 중인 전국 단위의 청소년관련 기초조사(“한국청소년패널조사” “청소년개발지표사업” 등)와의 조사대상·영역 등의 조정작업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연계하에서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마을” “동네”로 지칭되어 온 지역사회는 이웃어른·또래집단(동네친구)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환경의 변화, 과중한 학업부담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지역사회는 단순한 생활·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로 변질되어 가

고 있다³⁰. 청소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내에서 일상적으로 이웃어른·동네친구 등 다양한 연령집단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간관계 능력을 계발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³¹.

셋째, 청소년층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층화현상에 주목하여 그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의 계층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의식구조의 차이는 점차 심화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³², 이것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심각한 계층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계층의 형성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문제시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세대의 계층적 지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차이와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촌지·찬조금·기부금 등)에 대한 근절 노력과 더불어 고교등급제·사교육비 문

³⁰ 제IV장 제2절의 “종합논의”를 참조할 것.

³¹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일정 규모의 아파트단지내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설치 의무화 : 현행 노인정 설치 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아파트내에 게임방, 독서실, 담화실 등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동네친구와 사귀고 이웃어른(노년세대)과 교류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2) 지역사회 청소년 정보봉사단 구성·운영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봉사단을 구성하여 이웃어른, 특히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컴퓨터·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세대간 대화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방학) 자기 마을·동네에 소재한 관공서·자영업체(주민자치센터, 은행, 슈퍼마켓, 전자제품대리점 등)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아르바이트의 기회를 제공한다.

³² 제IV장 제2절의 “종합논의”를 참조할 것.

제 등 계층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론: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청소년의 생활·의식 특성

1. 서론
2. 생활영역별 실태와 문제
3. 요약과 논의

보론: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청소년의 생활·의식 특성

1. 서 론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특성을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은 국내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이다. 한국 청소년들의 특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국제비교 조사만을 다루었고, 주관기관에서 펴낸 보고서와 자세한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청소년 생활·의식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가 드물고,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자료에만 편중되었다. 조사의 시기는 생활양식과 의식구조가 오랜 기간을 두고 변화하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의 자료라면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국 규모의 표집조사도 있고 각국별로 한 도시만을 표집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분석대상 연령층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기준(만 9~24세)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부터 만 24세까지로 한정하였다. 각 주제별로 입수가 가능한 연령층의 조사자료만을 제시하였는데, 분석의 과정에서 청소년 생활·의식은 연령층별 차이보다는 국가별 차이가 더욱 현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가정(가정생활·가족의식), 학교(학교생활·교육의식), 사회(사회·국가의식)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아관과 문제행동을 포함하였다.

2. 생활영역별 실태와 문제

가. 가정생활·가족의식

한국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1997년에 한국은 가정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동아시아 3개국 중 가장 낮았고, 2000년에는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미국·프랑스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표 V-1>). 이밖에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연령층을 대상으로 다른 조사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³³. 조사의 시기나 조사대상 연령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 일관되게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 가정생활 만족도 - “만족” 응답률: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중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1997	77.7	91.5	81.0	-	-
2000	50.5	-	40.4	84.3	64.1

자료: 1) 정희옥 외(1997); 중·고등학생, “대단히 만족”+“만족하는 편”의 응답률

2) 윤철경 외(2000); 중·고등학생, “만족”+“약간 만족”의 응답률의 응답률

한국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부모의 이해

³³ 1994년 초등학생(5학년) 대상 세계 5개 도시 비교조사에서 서울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 응답률은 67.5%로서 뉴욕(86.7%), 상해(79.7%), 런던(78.8%)에 이어서 네번째였고 동경(65.1%)이 가장 낮았다(Benesse教育研究所, 1994). 대학생연령층(18~24세)을 대상으로 한 1998년의 조사에서 가정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은 50.0%로서 조사대상 11개국 중 9번째였다(靑少年對策本部, 1999).

부족 때문이다. 18~2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정생활 불만의 주된 이유로 다른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집안의 갈등”이나 “낮은 수입”을 들었지만, 우리나라만 “부모의 이해 부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靑少年對策本部, 1999).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대간 의식의 차이가 크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처럼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국가일수록 세대간의 차이과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의 세대갈등의 양상은 1997년의 동아시아 3개국 중·고등학생 비교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표 V-2>). 한국은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부모가 자신에게 간섭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응답률은 중국의 배 이상이고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도 한국이 중국, 일본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동아시아 3개국 중 한국이 부모-자녀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심한 한편, 부모의 자녀지도 방식이 권위주의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이 부모에게 잘 반항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보다는 많지만 일본보다는 훨씬 낮다. 이 조사결과는 동아시아 3개국이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양상은 매우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모두 적지 않은 세대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갈등을 반항으로 표출하는 빈도가 높은 일본에 비해 보다 순종적인 한국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V-2> 부모-자녀관계: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중 국	일 본
부모님은 나에게 간섭을 많이 하신다	62.4	27.5	50.2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35.3	28.3	11.3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	37.5	7.8	54.0

자료: 정희옥 외(1997); 중·고등학생, “그렇다”의 응답률

원만한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잦은 대화가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대화빈도나 시간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가족과의 대화빈도에 대한 중·고등학생 대상의 조사결과(정희옥 외 2인)를 보면,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6.3%로서 일본(78.5%), 중국(58.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5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ベネッセ教育研究所, 1994)에서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원한다는 응답률이 한국(서울)은 74.8%에 달하여 일본(동경: 46.7%), 미국(뉴욕: 59.3%)보다 월등하게 높는데, 이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베푸는 애정과 관심은 결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관심은 주로 학업이나 교육문제에 편중되어 있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18~24세 대상)를 보면, 공부·일에 관하여 부모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 높은 편이지만, 자신의 친구·연인관계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靑少年對策本部, 1999).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공적인 생활영역(학교)에는 관심이 높지만, 사적인 일상생활(교우관계)에는 상대적으로 무지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자녀 이해도에 있어서 모친과 부친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도 한국 가정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은 가정내 자녀 지도를 모친이 전담하는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부권 중심의 권위주의적 가족관계는 아직도 한국의 가정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부모의 역할관계에 대한 초등학생(5학년) 대상 조사(ベネッセ教育研究所, 1994)에서 한국(서울)은 모친이 전업주부라는 응답률이 45%에 달하여 전업주부 비율이 미국(뉴욕)과 영국(런던)과 대등한 수준인 일본(동경)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자기 어머니가 “세상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하여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지만, 아버지가 그렇다는 응답률은 60%로서 중국(상해) 다음으로 높다. 반면, “자녀를 꾸짖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머니가 48%로서 아버지(16%)보다 훨씬 높고 다른나라에 비해 그 차이도 매우 현격하다. 한국 가정에서 자녀지도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어머니가 거의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가정에서 부친의 절대적인 위치는 모친 부재시 저녁식사를 누가 준비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서울)은 자녀가 담당하는 경우가 43%로서 부친이 담당하는 경우(13.3%)보다 월등히 많지만, 일본(동경)을 제외한 다른나라는 모두 부친이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의 남성은 아내가 없으면 저녁을 굶거나 초등학교 자녀가 차려주는 식사를 할만큼 가사활동을 멀리하고 있는 셈이다.

<표 V-3> 부모의 역할관계: 국제비교

(단위: %)

		서울	상해	동경	뉴욕	런던
모친이 전업주부		45.3	2.4	32.6	29.1	30.0
“세상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부 친	60.3	70.0	46.4	25.2	35.6
	모 친	7.5	13.3	17.2	17.7	25.4
“자녀를 꾸짖는다”	부 친	48.3	48.2	50.2	21.0	32.6
	모 친	16.6	32.0	16.5	17.2	24.9
모친의 귀가가 늦어질 때 저녁식사 준비	부친이	13.3	50.0	16.0	37.6	42.4
	자녀가	43.4	14.5	25.4	11.3	22.4

자료: 베넷세教育研究所(1994); 초등학교(5학년)

한국 가정에서 모친은 자녀지도와 가사활동에만 전념할 뿐 집안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배제된다. 양친 중 가정내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부친이라는 응답률(72%)이 모친 응답률(23%)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양친의 응답률이 비슷하거나, 모친이 응답률이 더 높은 서구국가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표 V-4>).

<표 V-4> 가족내 문제해결의 주도권: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부 친	72.3	67.7	42.0	45.8	56.8	36.3
모 친	23.4	22.0	47.8	44.3	38.2	41.1

자료: 靑少年對策本部(1999); 18~24 세

가정내 성별 역할의 고착화현상은 부모의 역할과 행동을 따라하게 마련인 자녀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교육, 매스컴 등을 통해 이념적으로는 성 차별 없는 평등한 양성관계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보고자란 부모의 역할을 무의식중에 내면화하게 된다. 1998년에 18~2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靑少年對策本部, 1999)에서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한국 청소년은 77%가 반대하여 일본(61.2%)보다 높고 독일(80.9%), 미국(80.3%) 등 서구 청소년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이상적인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와는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났다(<표 V-5>). 한국 남학생의 53%가 자신의 이상적인 배우자로서 전업주부를 선택하였고(맞벌이 할 여성은 17.8%), 여학생의 1/4 이상이 전업주부를 여자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5> 전업주부 선호도: 국제비교

	“전업주부”를 선택한 응답률 (단위: %)				
	서울	상해	동경	런던	뉴욕
여자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여자만 응답)	25.5	1.8	36.4	8.4	7.6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남자만 응답)	53.5	6.2	39.0	12.9	14.7

자료: 베ネッセ教育研究所(1994); 초등학교(5학년)

거의 유사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이와 같은 대조적인 응답결과가 나타나는 요인은 무엇일까? 조사대상 연령층과 조사문항의 표현방식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되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는 한국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에 관한 이중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즉, 관념상으로는 남녀구분 없는 서구적인 성역할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부모세대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자신의 배우자는 전업주부이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태

도를 낮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짐작된다.

가정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의식과 윤리가 의연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부모님 부양문제에 대한 조사결과(정희옥 외, 1997)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연로한 부모님을 자신이 모시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83.0%로서 중국(98.1%)보다는 낮았지만 일본(67.1%)보다는 훨씬 높았다.

1994년에 초등학생(5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모님 부양방식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서울)은 45.9%로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견지 못하는 부모님의 부양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서울)과 중국(상해) 청소년의 대다수가 자기집에서 시중을 들겠다고 응답하였고, 양로원에 모시겠다는 응답률은 극소수였다.

<표 V-6> 부모님 부양방식: 국제비교

(단위: %)

		서 울	상 해	동 경	뉴 욕	런 던
부모님집과의 거리	“같은 집”	45.9	36.1	22.7	4.9	4.9
	“가깝지 않아도 좋다”	4.5	1.0	15.3	22.8	29.1
견지 못하는 부모님 부양방법	“자기집에 모시고 시중든다”	76.2	84.0	54.1	33.8	28.0
	“양로원에 모신다”	0.4	0.9	24.1	19.2	25.8

자료: 베넷세教育研究所(1994); 초등학생(5학년)

나. 학교생활 · 교육관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본적인 생활공간의 하나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학력과 학벌이 중시되는 한국사회에서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규정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다른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1997년 동아시아 3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64%로서 중국·일본에 비해 10% 이상 적었다. 200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미국·프랑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8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교대상 11개국 중 자신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

<표 V-7> 학교생활 만족도 - “만족” 응답률: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중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중·고등학생	1997	64.7	77.1	78.4	-	-
	2000	41.0	-	32.1	73.8	58.7
대학생	1998	72.9	-	78.2	86.5	79.1

자료: 1) 정화옥 외(1997), “대단히 만족”+ “만족하는 편”의 응답률
 2) 윤철경 외(2000), “매우 만족”+ “만족”의 응답률
 3) 靑少年對策本部(1999), “만족”+ “약간 만족”의 응답률

부모세대도 입시준비 위주의 현행 학교교육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 학부모들은 현행 학교교육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개성을 무시하고 입시준비를 위한 학과공부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제도·환경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 학부모들도 현행 교육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표 V-8> 현행 교육의 문제점: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과도한 시험공부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활이 학과공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85.2	70.1	11.7
획일적인 교육으로 청소년의 청소년들의 개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52.6	57.1	36.7
학력에 따른 수입과 직업의 격차가 존재한다	46.0	36.9	17.5

자료: 靑少年對策本部(1996); 7~15 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 “그렇다”의 응답률

그러나 학교교육에 대한 한국 학부모의 태도는 양면적이다. 학교교육이 비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학력/학벌에 의해서 사회적 성공이 좌우되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한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부모에 의해 학교·공부시간 중심으로 편성되고 통제된다. 이것은 자녀의 등교문제와 관련한 부모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몸 상태가 않 좋은 자녀(초등학교 5학년)에 대해서 미국(뉴욕), 영국(런던)의 부모는 과반수 이상이 집에서 쉬라고 권하는 반면, 한국(서울) 부모의 대다수는 그래도 학교에 등교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 V-9> 몸상태가 않 좋을 때 등교에 대한 부모의 태도: 국제비교

	(단위 : %)				
	서 울	상 해	동 경	뉴 욕	런 던
“참고 학교에 가거라”	34.3	42.8	23.1	4.6	6.1
“될 수 있으면 학교에 가는 편이 좋다”	47.0	53.1	34.5	21.4	30.4
“쉬는 편이 좋다”	18.5	3.8	40.2	69.0	53.5
“꼭 집에서 쉬어라”	0.2	0.3	2.2	5.0	10.0

자료: 베네ッセ教育研究所(1990); 초등학교생(5 학년)

우리나라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이 다른나라에 비해 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귀가 후에도 청소년들은 학원수강, 개인학습 등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서울)의 초등학교 5학년생들의 하루 평균 공부시간은 2시간54분으로 비교대상 도시들 중 가장 긴 반면, TV시청시간은 1시간 41분으로 2시간이 넘는 서구 청소년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었다(ベネッセ教育研究所, 1990).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7~15세)의 공부시간 조사에서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31.5%에 달해 미국의 2배, 일본의 4배 이상에 달하였다(<표 V-10>).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귀가 후에도 매일 3시간 가량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교육환경이 정상적인 상황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표 V-10> 자녀의 하루 평균 공부시간("3시간 이상" 응답률) : 국제비교

(단위: %)

자녀의 나이	한 국	일 본	미 국
전체 평균	31.5	7.4	13.0
7~9세	21.9	0.5	7.2
10~12세	29.2	4.4	12.7
13~15세	41.3	16.4	18.3

자료: 青少年對策本部(1996); 7~15 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

이처럼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자기 학교성적이 좋은 편이라는 응답률이 한국(서울)은 32.7%에 불과한 반면, 서구 청소년들은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ベネッセ教育研究所, 1990). 청소년들이 성적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표수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청소년들의 기대교육수준을 보면, 한국(서울) 초등학교 중 70%가 앞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서구 청소년들은 명문대학 진학 희망자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와 유사한 입시경쟁을 겪고 있는 일본(동경)도 18%에 불과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표 V-11>).

<표 V-11> 초등학생(5학년)의 기대교육 수준: 국제비교

(단위: %)

	서 울	북 경	동 경	밀워키	오클랜드	상파울로
중학교까지	1.1	0.7	4.0	3.0	1.2	3.9
고등학교까지	2.7	4.7	33.7	6.6	12.1	12.3
보통의 대학	26.2	16.1	44.4	42.1	46.4	31.9
어려운(명문)대학	70.0	78.5	17.9	48.3	40.3	51.9

자료: 베네ッセ教育研究所(1990)

한국의 부모와 청소년들이 대학, 그중에서도 명문대에 집착하는 이유는 학력·학벌이 사회적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 중·고등학생의 41.6%가 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중국 17.2%; 일본 33.1%), 좋은 학교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청소년이 35.6%에 달한다(중국 32.8%, 일본 22.8%)(정회욱 외 2인, 1997).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이른바 일류대의 학벌을 중시하는 왜곡된 교육현실은 대학재학 연령층(18~24세)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조사결과에서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V-12> 대학졸업자를 평가하는 기준: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류대학 출신여부	57.9	22.4	14.8	20.5	22.8	15.2
대학에서의 성적	6.0	13.0	27.5	50.3	39.9	28.2
대학에서의 전공분야	16.7	40.9	27.0	9.2	10.7	47.7

자료: 青少年對策本部(1999); 18~24 세

즉, 사회에서 대학졸업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의 응답률이 다른나라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반면(57.9%, 11개국중 1위), 다른나라는 “전공 분야”(일본, 프랑스)와 “성적”(미국, 독일)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능력이나 적성보다는 일류대 졸업장을 중시하는 왜곡된 교육풍토는 학교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낮은 신뢰감으로 연결된다. 한국 중·고등학생의 63.9%가 “별 소용 없는 학교공부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은 26.7%에 불과하다(정희욱 외 2인, 1997).

또한 자신의 학교교육·학교생활의 의의에 대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력·자격의 획득”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일반·기초적 지식 획득”(미국, 독일, 프랑스, 필리핀, 태국, 브라질), “자신의 재능 신장”(스웨덴), “친구와의 우정”(일본, 영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학교가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의 함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단계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V-13> 학교생활을 통해 얻은 것: 국제비교

각국별 응답률 1위 항목	응답률(%)
학력·자격의 획득	한국(63.9), 러시아(53.4)
친구와의 우정	일본(65.5), 영국(88.2)
일반적·기초적 지식 습득	미국(82.9), 독일(75.7), 프랑스(75.1), 필리핀(69.8), 태국(80.9), 브라질(62.0)
자신의 재능 신장	스웨덴(75.7)

자료 : 靑少年對策本部(1999); 18~24 세

다. 사회의식 · 국가관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현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1997년 한·중·일 3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사회 현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은 9.5%에 불과하여, 일본·중국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2000년의 조사에서는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미국, 프랑스 청소년에 비해 훨씬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18~2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1998년의 조사에서도 한국 청소년들 중 1/4 정도만이 사회현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만족 응답률이 40%를 넘는 다른나라와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³⁴. 조사의 시기나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의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일관되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4> 사회현실 만족도 - 만족 응답률: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중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중·고등학생(1997)	9.5	42.7	24.8	-	-	-	-
중·고등학생(2000)	18.5	-	9.4	72.2	-	-	53.5
18~24세(1998)	25.7	-	45.2	67.8	63.4	40.0	40.4

자료: 1) 정희옥 외(1997), “대단히 만족”+“만족하는 편”의 응답률
 2) 윤철경 외(2000), “매우 만족”+“만족”의 응답률
 3) 靑少年對策本部(1999), “만족”+“약간 만족”의 응답률

청소년들이 사회에 불만을 갖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1998년의 국제비교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 항목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자국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복수응답)하게 하였다. 모두 14가지 항목 중에서 6가지 항목에 걸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³⁵, 그중에서도 “학력차별” “빈부격차” “사회복지 불

³⁴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같은 조사에서 1983년에 53%에 달하던 만족응답률이 1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³⁵ 다른나라의 경우 미국이 4개(“성차별” “인종차별” “올바른 것이 통하지 않는

충분”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이 사회불만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 15> 자국사회의 문제(복수응답) :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신분·가문 중시	54.5	23.8	46.2	36.7	24.6	39.1
학력 차별	71.0	52.2	46.6	42.0	33.9	31.7
빈부격차	65.0	10.2	52.1	57.9	55.6	61.8
사회복지 불충분	62.0	40.9	34.5	42.7	38.3	32.8
환경파괴 무관심	47.0	42.9	37.0	44.8	34.8	43.3
나쁜 정치	57.7	48.8	41.3	27.6	48.8	36.0

자료 : 靑少年對策本部(1999); 18~24 세

주 : 11 개국 조사결과 중 6 개국 자료만 정리한 것임

사회현실에 대한 높은 불만은 낮은 국가 이미지와 연결된다. 위의 조사에서 자국사회의 어떤 측면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모두 15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靑少年對策本部, 1999). 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역사·문화유산” “장래 발전 가능성” 등 3가지 항목에 불과하였고, 우리사회의 현 상황과 관련된 6가지 항목(“생활수준” “사회복지” “사회적 안정성” “국제적 발언력” 등)의 응답률은 모두 최하위권이었다³⁶. 우리사회의 과거(“역사·문화유산”)와 미래(“장래 발전 가능성”)에

다 “풍속문란”), 프랑스가 2개(“젊은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취직·실업난”), 스웨덴(“성실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한다”)과 브라질(“치안문란”)이 각각 1개였다.

³⁶ 1)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 : “역사·문화유산”(75.2%, 11개국중 1위), “장래 발전 가능성”(28.6%, 11개국 중 2위), “국민의 일체감”(28.4%, 11개국중 2위),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국민에 대한 이미지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다수이다. 다른나라 청소년들이 모두 자국민에 대하여 “근면하다” “지적이다” “실제적이다” “용감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다수인 반면, 유독 한국 청소년은 “허영심이 많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표 V-16>).

<표 V-16> 자국민의 이미지: 국제비교

	국가별 응답률(%)
허영심이 많다	한국(66.5)
근면하다	일본(60.0), 영국(62.0), 독일(71.0), 프랑스(39.0), 필리핀(59.5), 태국(47.4), 브라질(49.3)
지적이다	미국(55.2)
실제적이다	스웨덴(45.3%)
용감하다	러시아(41.1)

자료 : 靑少年對策本部(1999); 18~24 세

주 : 각국별로 응답률 1 위의 항목만을 정리한 것임

한국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부분적으로는 우리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회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의 반영일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서 “학력차별”과 “나쁜 정치”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우리의 현실과 부합되지만, “사회복지 불충분” “환경파괴 무관심”의 응답률이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현실의 반영으로 보기 어렵다. 자국사회의 자랑거리로서 “생활수준” “과학·기술” “사회복지” 등을 지적한 응답률이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낮은 것도 국가·사회에 대한

-
- 2)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 : “생활수준”(2.6%, 10위), “사회복지”(1.8%, 10위), “사회적 안정성”(1.4%), “국제적 발언력”(1.1%, 10위), “과학·기술”(9.5%, 10위), “스포츠”(23.8%, 10위)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은 두가지의 상반되는 대응양식을 낳게 된다. 현실 문제에 등을 돌리는 정치적 패배주의나 무관심과 더불어, 현실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주의가 그것이다. 사회불만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대응양식은 다음의 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선거권 행사와 같은 소극적 방식보다는 진정·서명·데모와 같은 적극적 행동주의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표 V- 17> 사회불만에 대한 대응양식: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선거권을 행사하는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20.2	50.2	35.5	44.6	35.7	35.3
합법적인 범위 (진정, 서명운동, 데모 등)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52.7	20.7	52.0	42.2	38.0	43.1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등 비합법적인 수단도 사용한다	4.9	3.4	3.1	2.3	6.1	4.8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21.9	19.6	3.2	4.9	7.7	14.2

자료 : 靑少年對策本部(1994); 18~24 세

주 : 11 개국 조사결과 중 5 개국 자료만 정리한 것임

현실 정치문제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 청소년의 71.2%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청소년들의 응답률은 과반수에도 못미쳤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는데, 사회불만에 대한 대응양식에서도 미국 청소년들은 한국과 같이 적극적 행동주의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V- 18> 정치에 대한 관심도: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관심이 있다	71.2	37.2	59.5	35.7	40.5	41.1
관심이 없다	28.6	61.5	39.5	64.2	58.2	58.8

자료: 靑少年對策本部(1999); 18~24 세

주: 11 개국 조사결과 중 5 개국 자료만 정리한 것임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태도는 매우 독특하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긍지를 느끼는 청소년은 84.2%로서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는 높은 비율이지만, 미국,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이나 국가·사회 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불만을 감안하면 국가에 대한 애착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를 위해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이 82.9%에 달하여 서구 청소년의 응답률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는 자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국가 공헌의사의 응답률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 청소년들의 국가 공헌의사는 유달리 높은 셈이다.

<표 V- 19>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자국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다	84.2	77.1	91.7	95.5	52.1	77.4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싶다	82.9	49.3	53.3	66.5	28.3	61.8

자료: 靑少年對策本部(1999); 18~24 세, “그렇다”의 응답률

주: 11 개국 조사결과 중 5 개국 자료만 정리한 것임

라. 자아관 · 문제행동

정신적 · 신체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주어진 생활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관³⁷을 형성해 간다.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과 문화는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나라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자아관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의 동아시아 3개국 비교조사에서 현재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44.2%로서 중국보다 훨씬 낮았고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00년의 4개국 조사에서는 미국, 프랑스 청소년의 대다수가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과 일본의 만족 응답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은 중국이나 서구 청소년들에 비교하여 자기자신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 20>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 - 만족 응답률: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중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1997	44.2	68.1	48.1	-	-
2000	37.2	-	23.1	88.8	70.7

자료: 1) 정희욱 외(1997); 중 · 고등학생, “대단히 만족”+ “만족하는 편”의 응답률
2) 윤철경 외(2000); 중 · 고등학생, “매우 만족”+ “만족”의 응답률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에 대해 갖고 이미지는 1994년의 5개 도시 비교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모두 7가지의 성격 · 행동특성에 대하여 한국(서울)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은 일본(동경)과 더불어 가장

³⁷ 여기서 “자아관”은 학술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일상적인 용례에 따라 “생활경험을 통해 축적된 자기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와 평가”라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한다.

낮은 수준이었다. 자기 자신이 “용기가 있다” “인기가 있다” “공부를 잘 한다”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조사대상 7개 도시 중 최하위였고, “정직하다” “친절하다” “운동을 잘 한다”는 응답률은 일본(동경)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에,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상해)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은 서구 청소년들과 대등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표 V-21> 자기자신의 이미지(복수응답) : 국제비교

	(단위: %)				
	서 울	상 해	동 경	뉴 욕	런 던
정직하다	8.8	59.3	8.1	49.2	21.7
친절하다	11.5	56.3	9.1	61.3	26.3
용기가 있다	13.1	50.1	15.5	48.2	30.0
일을 잘한다	10.3	46.1	11.3	59.3	28.8
인기가 있다	4.0	36.1	8.2	40.5	25.1
운동을 잘한다	16.4	28.9	14.9	56.4	32.8
공부를 잘한다	5.9	22.2	6.4	52.7	33.1

자료: 베네ッセ教育研究所(1994); 초등학교(5학년)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조사문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응답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중국(상해) 이 가장 높고, 미국(뉴욕)과 영국(런던)이 중간수준이고, 한국(서울)과 일본(동경)이 가장 낮았다(<표 V-22>). 18~2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1998년의 조사에서도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³⁸(靑少年對策本部, 1999).

³⁸ 이 조사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은 88.3%로서 조사대상 11개국 중 10번째였다. 이밖에 영국이 97.4%, 프랑스가 96.8%, 미국이 95.0%, 일본이 92.9%였으며, 러시아가 73.1%로 가장 낮았다.

<표 V-22> 행복감: 국제비교

(단위: %)

	서 울	상 해	동 경	런 던	뉴 욕
매우 행복하다	25.0	70.6	31.6	29.6	48.4
대체로 행복하다	39.6	23.1	29.2	48.0	38.4
계(행복하다)	64.6	93.7	60.8	77.6	86.8

자료: 베네ッセ教育研究所(1994); 초등학교(5학년)

자기자신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현실에 대한 회피의식으로 연결된다. 각국 청소년의 성장의식에 관한 응답결과(<표 V-23>)를 보면, 서구 청소년들은 어린이로 머물러 있고 싶다는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현재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상해)은 과반수 이상이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장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편, 한국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률이 34.0%로서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은 자신의 현재와 더불어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의 초등학교생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와 형제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연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표 V-23> 성장에 관한 의식: 국제비교

(단위: %)

	서 울	상 해	동 경	뉴 욕	런 던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46.2	62.6	40.2	42.8	46.6
어린이로 머물러 있고 싶다	19.8	14.9	34.9	52.0	45.7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34.0	22.5	24.9	5.2	7.7

자료: 베네ッセ教育研究所(1994); 초등학교(5학년)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과중한 학업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학력·학벌이 사회적 성공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학과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서 “공부·성적문제”라고 응답한 청소년(중·고등학생)이 한국은 47.0%로서 중국(35.5%), 일본(27.2%)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고민거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5.3%)에 불과했다(정희욱 외, 1997).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적절한 상담과 지도가 필수적이다. 고민거리의 상담상대에 대한 각국의 조사결과(복수응답)를 보면(<표 V-24>), 한국은 부친이 16.8%, 모친이 38.4%로서 양친 모두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이웃·학교친구와 상담한다는 청소년이 68.2%에 달하여 모친과 상담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구 청소년들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집단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24> 고민거리의 상담상대(복수응답)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아버지	16.8	21.9	39.4	38.9	38.9	21.1
어머니	38.4	45.9	64.3	59.3	59.3	53.0
이웃·학교친구	68.2	52.4	25.4	31.4	31.4	39.9

자료 : 靑少年對策本部(1999); 18~24 세

주 : 11 개국 조사결과 중 5 개국 자료만 정리한 것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동아시아 3국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V-25>). 모두 7가지의 문제행동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는데, 공공물건 파손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항목은 모두 경험자 비율의 순위가 일치하였다. 즉, 한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중간이며 중국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중국간 경험자 비율의 차이는 매우 현격하였다. 다른나라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자아관이 이와 같은 높은 문제행동 경험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 25> 문제행동 경험: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중 국	일 본
가출한 적이 있다	12.9	4.7	7.6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29.7	13.5	8.7
술 마신 적이 있다	55.4	28.7	30.9
도박한 적이 있다	45.7	7.7	25.7
공공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9.8	27.3	9.5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24.0	1.6	6.5
음란비디오나 잡지를 본 적이 있다	42.0	4.9	23.7

자료: 정회욱 외(1997); 중·고등학생, “그렇다”의 응답률

3. 요약과 논의

국제비교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생활·의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의 생활·의식 특성과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국가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다른나라 청소년에 비해 많은 불만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가정과 학교생활은 물론 국가·사회 현실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일본 청소년들은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서구나 중국보다는 한국 청소년들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은 생활만족도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서구 청소년들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청소년들은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둘째, 한국 청소년들은 가정생활과 사회현실에 많은 불만과 갈등을 느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의 요인인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이해 부족에 반발감을 느끼지만 연로한 부모님 부양의사는 중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사회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국가에 공헌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불만을 갖고 있는 일본 청소년들이 부모님 부양의사나 국가 공헌의사가 매우 낮은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셋째, 학업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하는 교육환경이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의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하지만, 학교성적에 대한 자신감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고, 가장 큰 고민거리도 공부·성적 문제이다.

자기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서구나 중국에 비해 매우 부정적이고,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도 학교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우리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넷째, 한국 청소년들은 국가·사회 현실에 대한 높은 비판의식과 더불어 이를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갖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국가·사회 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자국사회와 국민에 대한 이미지도 다른나라와는 달리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낙후된 사회현실의 객관적인 반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국가·사회 발전의 가치기준을 높이 설정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현실에 대한 높은 비판의식이 일본·서구 청소년들처럼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소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정치적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의지로 연결되는 것이 한국 청소년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는 기본적으로 각국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변동에 의해서 규정된다. 중국과 같은 저개발사회에서 성원들은 공동체적 윤리와 사회관계에 의해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서구적 가치관과 사회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인간관계와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는 전통적인 요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의 전통적인 가족윤리와 공동체의식을 내면화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와 자신을 일체화함으로써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 같은 동아시아권의 한국·일본과는 달리 중국 청소년들이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의 산업화과정을 통하여 혈연·지연에 기반한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인간관계가 해체되고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의 원리가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율적인 사고와 판단하에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다. 혈연·지연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존한다. 서구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공정한 사회적 원리의 존재 때문이다.

한국은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전형적인 농경사회에서 서구적 산업사회로의 변동을 경험하였다. 급속하게 이루어진 사회구조적 변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갈등 속의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에 적응해야만 한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양성관계의 중요성을 배우지만, 가정에서는 부친의 절대적인 권위에 따라야 한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배우지만, 학연이나 지연 없이 출세할 수 없음을 청소년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업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저개발국이나 서구 선진국 청소년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이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인 자기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현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서구 청소년보다는 한국과 가깝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성취한 고도성장이 그 주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불만과 갈등 - 부모세대와의 대립, 과도한 학업부담, 국가·사회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 자기자신에 대한 불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등 - 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청소년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대응양식에서 양국의 청소년들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일본 청소년이 서구 청소년과 같은 개인주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한국 청소년들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예컨대, 연로한 부모님을 양로원에 위탁하려 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 청소년들은 끝까지 자기 집에서 모시려

한다. 사회문제에 등을 돌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개혁하려 한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가 없는 일본과 달리, 한국 청소년들은 정치에 민감하고 국가에 공헌하고자 한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성격과 의미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지만,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거의 문화적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님은 명백하다.

참고문헌

- 고성해·이용교(1996). 청소년들의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상득(1996). “지역사회의 특성과 청소년의 의식실태.” 경상대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10호, pp. 37-45.
- 권이중(1992). 청소년의 이해: 변화하는 세계 속의 청소년. 서울: 문화체육부.
- 권이중·김문조·임희섭·전병재(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서울: 삼성복지재단.
- 권이중외 8인(199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
- 김동규(1989). “남북한 청소년의식 분석비교.” 통일, 제95권, pp. 34-40.
- 김문조·권이중·김선엽(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생활세계적 접근. 서울: 삼성복지재단.
- 김복숙(1993). 한국 중학생(청년전기)들의 가치관 분석: 6대 도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길(2000). “사이버공간 속의 청소년문화와 정체성”.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도종수·천정웅·구정화(1993). 경기지역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분석과 청소년시책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맹영임·서정아·김민(2002). 청소년 대중스타 수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옥표 편(1997).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문용린(1986).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문화관광부(2003). 2003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편(1988). 청소년의 생활태도와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
- 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1998). 98 서울시 청소년 의식조사.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신재흡(1991).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귀덕 외(1999). 한국 청소년문화: 비교문화적 분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안부근·이영미·유영일(1991). 91 MBC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방송.
- 양만우(1980). “청소년 의식조사.” 전주교대논문집. 제16호, pp. 65-80.
- 영동지역발전문제연구소편(1992). 영동 청소년들의 생각과 삶 : 영동지역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 서울: 영동지역발전문제연구소.
- 오영태·강상욱(1995).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 인천교대 논문집, 제29집 1호, pp. 256-258.
- 오영태·강상욱(1995).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 인천교대 논문집, 제29집 1호.
- 유진(1985). “청소년의식의 현실.” 문예진흥, 제98호, pp. 38-42.
- 윤석규(1992).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현실문제 그리고 그 지도방향.” 교육관리 기술, 제 263호, pp. 88-92.
- 윤철경 외 4인(2000). 새천년 청소년 의식의 국제비교- 한국·미국·일본·프랑스 청소년의 비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외 3인(200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영호(1981).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 제3권.
- 이용원(1995). “성남시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 새교육, 494호, pp. 104-107.
- 이종명(1989).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원 외 3인(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1993·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4).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제5회 세계청년의식조사 결과”. 한국청소년연구, 제19호.
- _____ (2000). “보론: 청소년 생활·의식 국제비교”. 이종원 외 2인,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3).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 조사 - 한·중·일·미 4개국 비교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김혁진(1997). 청소년정보화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유승호(2003).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 이종원 · 이경상 · 김종길(2003). 월드컵현상을 통해본 신세대의 사회 ·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 주동범 · 서정아(2000).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 정원식 외 5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희욱 · 이춘화(1999). 청소년의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 - 한국 · 중국 · 일본 · 미국 청소년의 비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희욱 · 전경숙 · 권오실(1997). 한 · 중 · 일 청소년의식 비교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차경수(1989).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민족지성, 제39호, pp. 34-41.
- 채근섭(1993).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청소년선교회편(1997). 10대 청소년의 의식과 삶에 관한 보고서. 서울: 한국 기독교청소년선교회.
- 최원기 · 전경숙 · 김창남(2000).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일섭(1982). “청소년의식과 가정.” 청소년, 제18호, pp. 18-22.
- 최혜경(1987).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3 ·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한국궐립조사연구소편(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서울: 한국궐립조사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편(199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7).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생표 · 이광호 · 김미영 · 박창남(1998). 학생생활 · 의식실태조사.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황정규(1979). 한국학생의 의식구조.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Helve, Helena(2000).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가치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Sengoku, Damotsu(2000). “새천년의 일본 청소년 문화와 의식”,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Sun, Yunxio(2000). “중국의 사회변화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內閣府(2004). 第5回世界青年意識調査結果概要速報. 東京: 內閣府.
- 日本青少年研究所(1991). 日本・米国・韓国 中学生の生活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1998). 中学生・高校生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1999). 21世紀の夢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2000). 中学生・高校生の日常生活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2001). 新千年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2002). 高校生の未来意識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青少年対策本部(1995). 第5回世界青年意識調査細部分析報告書. 東京: 総務庁 青少年対策本部.
- _____ (1996). 子供と家族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報告書. 東京: 総務庁 青少年対策本部.
- _____ (1999). 世界の青年との比較からみた日本の青年- 第6回世界青年意識調査報告書. 東京: 総務庁 青少年対策本部.
- ベネッセ教育研究所(1990). 都市社会の子どもたち- 国際比較調査(2). 인터넷자료 (<http://www.crn.or.jp/library/hikaku/vol109/head.htm>)
- _____ (1992). 都市社会の子どもたち- 国際比較調査(3). 인터넷자료 (<http://www.crn.or.jp/library/hikaku/vol124/head.htm>)
- _____ (1994). 第4回国際教育シンポジウム報告書- 家族の中の子どもたち. 東京: 베네ッセ教育연구소

부록: 조사항목 체계 및 조사표

부록 : 조사항목 체계 및 조사표

이 조사표는 2000년에 확정된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표”로서 학생 청소년뿐만 아니라 근로·무직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중에서 학생청소년 대상의 조사표(B형·E형)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1. 대상유형별 조사항목 구분

유 형 번 호	해당 청소년유형	중·고등 학 생	대 학 생	취 업 청소년	무 직 청소년
A	전체 공통항목	○	○	○	○
B	학생청소년 공통항목	○	○	-	-
C	비학생청소년 공통항목	-	-	○	○
D	연장청소년 공통항목	-	○	○	○
E	중·고등학생용 항목	○	-	-	-
F	대학생용 항목	-	○	-	-
G	취업청소년용 항목	-	-	○	-
H	무직청소년용 항목	-	-	-	○

2. 영역별 조사항목 구분

유형번호	조 사 영 역
0	배경변인
1	가정생활
2	학교생활
3	직장생활
4	지역사회
5	사회·국가
6	여가·생활일반
7	개인·자아관

3. 조사표

유형	조사항목	응답항목
A0	당신의 성별은 ?	1. 남 자 2. 여 자
A0	당신의 나이는 만으로 몇살입니까 ?	만 () 살
A0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1. 서 울 2. 부 산 3. 대 구 4. 대 전 5. 인 천 6. 광 주 7. 울 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도 11. 전라도 12. 경상도 13. 제주도
A0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 주택 4. 상가주택(상점에 딸린 주택) 5. 기 타
A0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	1. 두 분 모두 계시다 2. 아버님만 계시다 3. 어머님만 계시다 4. 두 분 모두 안 계시다
A0	당신의 가족은 친가 또는 외가쪽 할아버지·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 다음 중 자기 가족에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친가쪽 할아버지·할머니(또는 두 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2. 외가쪽 할아버지·할머니(또는 두 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3.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A0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이다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0	당신은 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 있다면 전체 형제 또는 자매 중에서 자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들(또는 외동딸)”이다 2.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만이(첫째)”이다 3.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막내”이다 4.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만이도 막내도 아니다
A0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예: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으로). 1) 아버지 2) 어머니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졸업
A0	부모님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아래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직업을 골라서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비슷한 직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1. 경영·관리직: 회사·관청·단체의 임원, 관리직 등 2. 사무·행정직: 회사·관청·단체의 중간간부, 사무직원 등 3. 교육자: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학원 강사 등 4. 전문직: 법률가, 성직자, 예술가, 의사,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5. 기술직: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건축가, 조종사 등 6. 자영업: 슈퍼마켓, 대리점, 정비소, 주유소, 식당 등 경영자 7. 서비스직: 요리사, 이발사, 미용사, 웨이터 등 8. 판매·영업직: 세일즈맨, 외판원, 상점 점원 등 9. 생산·기능직: 공장 근로자, 건설작업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10. 농·임·어업 11. 가정주부 12. 직업이 없다

유형	조사항목	응답항목
A0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종교입니까?	1. 종교가 없다 2. 기독교(신교·교회) 3. 가톨릭(구교·성당) 4. 불 교 5. 유 교 6. 기타 다른 종교
A1	당신은 평소에 집안일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다음의 각 집안일에 대하여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음식요리하기 2) 밥상차리기 3) 설거지하기 4) 세탁·빨래하기 5) 집안 청소하기 6) 쓰레기 치우기 7) 자기방 치우기 8) 부모님 심부름하기	1. 거의 하지 않는다 2. 별로 하지 않는다 3. 가끔 하고 있다 4. 자주 하고 있다
A1	현재 자신이 집안일을 돕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A1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친가(아버지쪽 친척)와 외가(어머니쪽 친척) 중 어느 쪽과 더 자주 만나십니까?	1. 친 가 2. 외 가 3. 모두 같다
A1	당신은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A1	부모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약간 이해하신다 4. 많이 이해하신다
A1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1. 있 다 2. 없 다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A1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정생활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는 아버지 2. 일보다 가정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아버지
A1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식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아버지 2.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아버지
A1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사활동에만 전념하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니 2. 가사활동과 더불어 사회활동을 하는 어머니
A1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식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어머니 2.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어머니
A1	당신은 앞으로 자신의 아버지(여자인 경우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1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1	앞으로 2~3년 뒤의 당신의 가정생활을 전망할 때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A1	나이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2.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3. 되도록이면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4. 전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A1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하여 당신은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1) 반드시 결혼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2)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3)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4) 자녀가 없는 집은 불행한 가정이다 5)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6)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야 한다 7)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8)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9)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10)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1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 2)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 3) 부모님의 직업 4) 살고 있는 집(주택) 5) 아버지·어머니 두분사이의 관계 6) 형제·자매와 자신과의 관계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2	[중·고등학생] <u>당신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이른바 “좋은 대학”과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과)”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u>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u>만약 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쪽을 선택하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u>	[중·고등학생] 1. 전공보다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겠다 2. 학교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과)을 선택하겠다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1. 전공보다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록 권유하겠다 2. 학교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과)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겠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2	[중·고등학생] <u>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하여</u> 당신은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1)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2)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3)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님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4)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5)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6) 학교에서의 우등생은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마련이다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u>우리사회의 중·고등학교의 현실을 감안할 때</u>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하여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2	[중·고등학생] <u>당신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u> 다음의 각 설명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 2)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자신의 적성과 소질의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5) 우리사회의 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u>당신은 중·고등학교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u>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3	사람들이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돈을 벌기 위해 2.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 자기자신의 발전을 위해
A3	일을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다면, 나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2.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어도, 나는 계속 일을 할 것이다
A3	일과 여가생활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쪽과 더 가깝습니까 ?	1. 일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 2. 여가생활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A3	다음 두가지 직장 중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 일은 고되고 바쁘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 2. 책임과 권한은 없으나, 일이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은 직장
A4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십니까 ?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나는 다른 곳에서 산 경험이 없고 이 지역에서만 살았다 2. 다른 시·군에서 산 경험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3. 이 지역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더 오래 살았다
A4	현재 당신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이나 행사(마을청소, 이웃돕기 행사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2.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3. 가끔 참여하고 있다 4. 자주 참여하고 있다
A4	당신은 동네에서 이웃어른들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A4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어른 중에 자신이 앞으로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A4	당신은 앞으로도 지금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2.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3. 잘 모르겠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4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	1. 매우 싫어한다 2. 싫어한다 3. 좋아한다 4. 매우 좋아한다
A4	앞으로 2~3년 뒤에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2.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될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A4	다음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마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설명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우리동네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2) 우리동네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자주 있다 3) 우리동네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 4) 우리동네 어른들은 다른 집 아이들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는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5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	1.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2.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
A5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5	당신은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2) 잘 살고 못하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3)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4)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5)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6)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7) 집안이나 뒷배경이 중시된다 8)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9)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다 10)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5	앞으로 2~3년 뒤의 우리사회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2.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A5	당신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생각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1)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3) 국민들의 문화·예술수준이 높다 4)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5)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6)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다 7)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8)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 9)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5	당신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6	일주일 중 집에서 <u>가족과 함께</u> 저녁식사를 하는 날은 대략 며칠 정도나 됩니까 ?	약 ()일
A6	일주일중 아침식사(우유·주스 등만 마시는 것은 제외)를 <u>거르는 날</u> 은 대략 며칠 정도나 됩니까 ?	약 ()일
A6	다음은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u>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날</u>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잠을 자는 시간 2) TV를 보는 시간 3) 여가시간(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약 ()시간()분
A6	당신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한번도 없다 2. 전에 해 본 적이 있다 3. 지금 하고 있다
A6	[중·고등학생] 당신의 한달 평균 용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용돈: <u>학용품, 교통비</u> 등을 제외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u>식대, 교통비</u> 등을 제외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약 () 만 () 천원
A6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A6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A6	당신은 공휴일 등 쉬는 날에 주로 누구와 함께 어디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2. 가족과 어울려 집에서 지낸다 3. 혼자 외출을 한다 4. 가족과 함께 외출을 한다 5. 밖에서 친구·동료들과 시간을 보낸다
A6	당신이 취미·여가생활을 즐기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다음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시간이 부족하다 2. 비용이 부담된다 3. 공부에 방해가 된다 4. 함께 할 사람이 없다 5.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6. 적당한 장소·시설이 없다
A6	당신은 평소에 주로 어떤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보기>에서 각각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활동 2)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1. TV시청, 라디오 청취 2. 신문·잡지 읽기 3. 전자오락·컴퓨터 게임 4. 컴퓨터활용, PC통신·인터넷 검색 5. 독서활동·글쓰기 6. 만화읽기·만화그리기 7. 영화·비디오 관람 8. 대중음악(가요, 팝송) 감상 9. 클래식 음악·국악 감상 10. 노래부르기·악기연주 11. 춤추기·무용 관람 12. 미술 감상·그림그리기 13. 수예품제작, 모형조립, 수놓기 등 14. 실내오락(트럼프, 바둑, 장기 등) 15. 쇼핑하기·백화점·시장 구경 16. 야외활동(등산, 낚시, 산책 등) 17. 여행 18. 스포츠 활동(야구, 축구, 수영 등) 19. 운동경기 관람 20. 이중에는 없다 21. 특별한 취미가 없다
A6	당신은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친구(들)은 동성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 (동성: 자신이 남자인 경우 남자친구, 이성: 자신이 남자인 경우 여자친구)	1. 동성의 친구만 있다 2. 이성의 친구만 있다 3. 남자, 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 4.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6	친구들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약간 이해하고 있다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A6	현재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를 <u>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u>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6	당신의 집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컴퓨터는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	1. 없 다 2. 컴퓨터가 있고, 내가 주로 사용한다 3. 컴퓨터가 있고, 부모님이 주로 사용한다 4. 컴퓨터가 있고, 형제·자매가 주로 사용한다
A6	당신은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한달에 1~2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3. 일주일에 1~2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4. 일주일에 3~4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5.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다
A6	당신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이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1.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2. 한달에 1~2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3. 일주일에 1~2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4. 일주일에 3~4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5. 거의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다
A6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당신의 생활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2.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약간 불편할 것이다 4. 매우 불편할 것이다
A7	현재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1. 매우 행복하지 않다 2. 행복하지 않다 3. 행복하다 4. 매우 행복하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7	다음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2) 나에게는 자랑할만 것이 별로 없다 3)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4) 나는 때때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6)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7)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8)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9) 내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7	현재 당신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가장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중·고·대학생] 1. 돈·경제적인 문제 2. 진로문제 3. 공부·학업문제 4. 이성문제 5. 자신의 성격 6. 진로문제 7. 친구와의 관계 8. 건강문제 9. 자신의 외모 10. 종교·인생관 문제 11. 가정문제 12.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취업청소년] 3. 직장문제(대체)
A7	당신은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1. 아버지 2. 어머니 3. 형제·자매 4. 학교선생님 5. 친구나 선·후배 6. 이중에는 없다 7.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 [대학생] 4. 학교교수님 [취업청소년] 4. 직장상사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B2	현재 몇학년입니까 ?	()학년
B2	[중·고등학생] 당신은 <u>학과수업 시간 이외에</u> 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대학생] <u>학과 강의시간 이외에</u> 교수님과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B2	[중·고등학생] <u>학교 선생님들은</u> 학생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학생] <u>학교 교수님들은</u>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약간 이해하신다 4. 많이 이해하신다
B2	[중·고등학생] <u>지난 1년 동안 학교 선생님과</u>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반항을 하거나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 [대학생] <u>지난 1년 동안 학교 교수님과</u>	1. 있 다 2. 없 다
B2	[중·고등학생] 당신은 평소 <u>학급친구들에 대해서</u>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 [대학생] <u>같은 과 친구들에 대해서</u>	1.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2.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3. 약간 느끼고 있다 4. 많이 느끼고 있다
B2	[중·고등학생] 다음 중 <u>어떤 선생님이</u>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학생] <u>어떤 교수님이</u>	1. 수업시간에 알기쉽게 잘 지도해주는 선생님 2. 학생들의 생활·진로지도를 잘해주는 선생님
B2	[중·고등학생]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u>선생님 중에 자신이 어른이 되면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u>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 [대학생] <u>교수님 중에서 자신이 앞으로 본받고 싶다고</u>	1. 있 다 2. 없 다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B2	[중·고등학생]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u>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u> 2) <u>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u> 3) <u>학교에서의 특별활동</u> 4) 학교 수업시간의 양 5) 자신의 학교성적 6) 학교의 규칙·규율 7) 학교의 시설·설비 [대학생] 1),2) <u>학교 교수님</u> 3) <u>학교에서의 서클·동아리활동</u>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B2	[중·고등학생] 다음 중 <u>어떤 선생님</u>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학생] <u>어떤 교수님</u>이	1.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선생님 2.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선생님
B2	현재 자신의 학교생활을 <u>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u>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B2	앞으로의 1년 뒤의 당신의 학교생활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B6	친구를 학교친구(학교에서 사귀는 친구)와 동네친구(한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친구)로 구분할 때 당신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어느 쪽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십니까 ?	1. 대부분 학교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2. 주로 학교친구들하고 어울린다 3. 주로 동네친구들하고 어울린다 4. 대부분 동네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B6	당신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과 어느 정도 자주 어울려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한달에 1~2일 정도 2. 일주일에 1~2일 정도 3. 일주일에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B3	당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부모님은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보기>에 제시된 직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직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에 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업 선택) 1) 자신이 원하는 직업 2)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직업	1.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2. 고위공직자(대통령, 장·차관 등) 3. 일반 공무원 4. 군인·경찰관 5. 정치인(국회의원, 정당활동 등) 6. 의사·약사 7. 간호사 8. 사회복지관계자(사회단체, 복지단체 등) 9. 언론인(기자, 아나운서, PD 등) 10. 직업 운동선수(야구, 축구 등) 11. 예술가(음악가, 화가, 사진작가, 소설가 등) 12. 연예인(배우, 가수, 개그맨, 모델, 댄서 등) 13. 전문기술자(파일러트, 엔지니어, 건축사 등) 14. 컴퓨터 전문직(프로그래머, 게이머 등) 15. 학자(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 16. 교사(초·중·고등학교) 17. 회사경영자 18. 회사원 19. 자영업(상점, 슈퍼마켓, 음식점 경영 등) 20. 가정주부 21. 농업·어업·임업 등 22. 잘 모르겠다
C0	당신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떻게 됩니까?	1. 초등학교 중퇴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중퇴 4. 중학교 졸업 5. 인문계 고등학교 중퇴 6.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7.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 8.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9. 대학교 중퇴 10. 대학교 휴학중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D0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1. 부모님(또는 두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있다 2. 부모님과 떨어져서 친척·친지집 또는 형제들과 살고 있다 3.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기숙사, 하숙, 자취 등)
E0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	1. 중학교 2. 인문계 고등학교 3. 실업계 고등학교
E2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남녀공학입니까? 남녀공학인 경우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남녀공학이 아니다 2. 남녀공학이고, 남·녀가 한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3. 남녀공학이지만, 남·녀가 다른 반으로 나뉘어 있다
E2	당신의 학교성적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매우 잘 하는 편 2. 중간보다 잘 하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못 하는 편 5. 매우 못 하는 편
E2	당신은 학교수업 이외에 정기적으로 학원(체육관·문화센터 등 포함)에 다니거나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1) 학과공부 보충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다 2)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다 3) 학과공부 보충을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받고 있다 4)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받고 있다 5)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혼자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있다 6) 집에서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를 받아보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E2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E2	학교의 특별활동 이외에 교내 또는 교외 서클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전혀 가입한 경험이 없다 2.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3.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E2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입니까 ? 아니면 취업할 생각입니까 ?	1.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2. 가능하다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3. 가능하다면 취업할 생각이다 4. 반드시 취업할 생각이다 5.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6	지난 1년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E6	다음은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2) 집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약()시간()분
F0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	1. 전문대학교(2년제) 2. 대학교(4년제)
F2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전공·취업준비 등)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F2	대학에 들어와서 교내 또는 교외 서클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전혀 가입한 경험이 없다 2.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3.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G0	현재의 직장(또는 직업)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	약 ()년 ()개월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G0	현재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사무·행정직: 회사·관공서·단체의 사무·행정 직원(업무보조 포함) 2. 영업·판매직: 세일즈맨, 외판원, 슈퍼마켓·백화점 점원 등 3. 서비스직: 배달원, 요리사, 이·미용사, 웨이터, 식당 종업원 등 4. 생산·기능직: 공장 근로자, 건설 작업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5. 농·임·어업 6. 기타
G3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G3	당신은 일·업무관계 이외에 직장상사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G3	당신의 직장상사는 부하직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3. 약간 이해하고 있다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G3	지난 1년동안 직장상사와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반항을 하거나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G3	당신은 평소 직장동료들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	1.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2.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3. 약간 느끼고 있다 4. 많이 느끼고 있다
G3	다음 중 어떤 직장상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일·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2. 부하직원들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G3	다음 중 어떤 직장상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하직원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 2. 부하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사람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G3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자신이 앞으로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 있 다 2. 없 다
G3	현재 자신의 직장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G3	구체적으로 직장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1)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 2)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 3) 직원 복지·후생제도 4)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 5)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 6) 직장의 규칙·규율 7) 직장의 시설·설비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G3	앞으로의 1년 뒤의 당신의 직장생활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G3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직장에 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1. 반드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2. 가능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3. 오랜 동안 현재의 직장에 서 일하고 싶다 4. 현재의 직장에 서 평생 근무하고 싶다
G6	다음은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일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1) 직장에 서 일하는 시간	약 ()시간()분
G6	당신은 직장에 서의 업무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어느 정도 자주 어울려 시간을 보내십니까?	1. 한달에 1~2일 정도 2. 일주일에 1~2일 정도 3. 일주일에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G6	친구를 직장친구(직장에서 사귀 친구)와 동네친구(한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친구)로 구분할 때 당신은 직장밖에서 주로 어느 쪽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십니까 ?	1. 대부분 직장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2. 직장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3. 동네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4. 대부분 동네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H0	현재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 취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3. 별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 4. 기 타
H0	당신은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거나 직업을 가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연구요약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의식의 실태와 그 변화양상을 종합적·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00년에 청소년 생활·의식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조사표를 개발하여 제1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 2차년도인 올해에 동일한 조사표와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제2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올해 조사는 전국의 남녀 중·고교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추출방식으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 단위의 집단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 전국의 50개 학교(학교별로 1~3개 학급)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조사표에 대한 오류검토 및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유효표본은 3,500명이었다.

조사결과의 분석은 문항별 응답결과를 제1회 조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1993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청소년 생활·의식 조사의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국가관” “교우관계 및 생활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종합논의”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청소년 생활·의식의 주요 특성과 그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1회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1990년대말 IMF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사회적 안정의 회복,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인한 학업부담 완화 등의 제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 부부 중심의 소자녀가구는 지역·계층의 구분 없이 폭넓게 확산되어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의 변화는 지속적인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점진적으로 해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하여 이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세대와의 심리적 유대관계는 상당 수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핵가족화 추세와는 달리 부모와의 동거를 당연시하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시장경제 체제의 성숙과 더불어 청소년층 내부에서도 점진적인 계층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즉, 가정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은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아파트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주거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역공동체(마을·동네)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와해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동네친구의 개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친구이자 경쟁자인 학교친구가 대체해 가는 등 질적인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생활·여가패턴도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독현상이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